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0월 21일(음력 9월 4일) 수요일(주간)

법구경

백 년 동안 공양물을
올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존경이
훨씬 값이 있느니라.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황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력'

자승·각명·대우 스님 후보 자격 인정… 혼전 없이 22일 선거 치를 듯

한국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종무행정을 4년간 이끌 수장이자 2000만 불교도를 대표한 지도자로 활동할 총무원장 선거(10월 22일)가 목전에 다가왔다. 기호 1번 자승 스님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종단 선거 마다 발생한 혼탁양상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10월 12~14일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심경) 후보 등록결과 전 중앙종회 의장 자승(55) 스님과 속리산 법주사 봉곡암 감원 각명(58) 스님, 전 선운사 주지 대우(63) 스님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선 접수 규정에 따라 자승 스님은 기호 1번, 각명 스님 기호 2번, 대우 스님 기호 3번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13일 각 교구 선거인단을 확정, 15일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격을 심사해 세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후보 등록과 더불어 각 후보들은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자승 스님은 12일 후보 등록 이후 출마회견, 13일 종정 법전 스님 예방을 비롯해 하루 2~3개 교구를 방문하는 선거운동에 나섰다.


10월 15일 열린 제211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선관위원 스님들이 후보자 신상명세서를 보며 심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기호 2번 각명 스님도 13일 출마회견을, 기호 3번 대우 스님도 14일 출마회견을 여는 등 선거 운동에 나섰다.

후보 마감을 전후해 물망에 올랐던 각 예비후보들의 성명도 이어졌다. 출마를 선언했던 종하 스님은 11일 "신임 총무원장이 종단과 한국불교의 중흥과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기를 기원한다"며 철회의사를 밝혔다. 총무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 정념 스님도 14일 "새 불교를 만들어 가는 통찰력 있는 총무원장이 선출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후보로 회자되던 월서 · 도영 스님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총무원장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교계 안팎에서는 기호 1번 자승 스님이 선거인단 80여 명인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각기 1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20개 교구 본사의 추대를 받은 점을 감안, 총 320표 중 최소 270표 이상을 득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승 스님의 압승이 예상됨에 따라 특정후보 비방전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 10월 9일 창립된 것으로 알려진 '대한불교조계종 정법수호재가회'는 자승 스님을 상대로 14일 서울민사지법에 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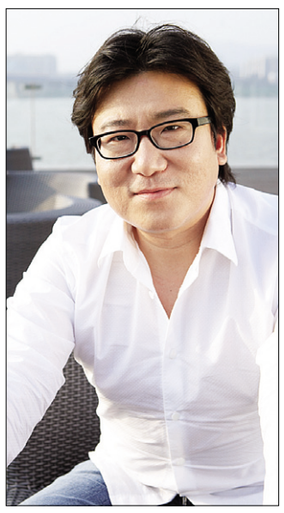
이에 대해 자승 스님 선대위는 "종단선거 폐단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근거 없는 문서 유포와 사회법 제소행위는 반불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종 행위에 대해 종단과 협력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람

'해운대' 감독 윤제균

후속작 '템플스테이' 준비



가장 한국적인 게 불교
한국판 가족판타지

1200 만 관객을 동원해 올해 최대 흥행 영화 '해운대'를 제작한 윤제균 감독이 차기작에서는 불교 쓰나미로 전 세계를 휩쓸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윤 감독은 후속작으로 '템플스테이(Templestay, 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국토 경주를 무대로 제작된 영화는 한국 불교 수행체험의 대표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소재로 제작될 예정으로, 벌써부터 불교계 내외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작은 해외를 겨냥한 영화입니다. 서양에 어필하기 위한 차별된 소재 를 찾던 중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외국 소년들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겪는 모험을 그린 가족판타지로서 '쥬만지' '박물관이 살아있다'와 견줄 영화로 기획 중이다.

이번 영화에서도 그는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석굴암 본존불 등 경주의 다양한 불교문화재를 활발발하게 살아 움직이게 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동안 윤제균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데 불교에서 소재를 많이 찾아왔다. 그는 피천득 시인의 글귀를 보고 '해운대'를 만들어 불교적 인연을 영화에 담았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담은 '색즉시공'도 그의 대표 작품이다. '색즉시공'은 저급영화라는 혹평과 불교폄하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지만, 색욕이란 허상을 통해 생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을 다뤘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사상, 인연법 등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사상이 담긴 책 속의 법구(法句)들은 세상을 참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요, 한국을 대표할 만한 불교철학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촬영에 앞서 윤제균 감독과 스태프들은 서울 근교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체험도 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시나리오는 수정 중에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할 기회는 없어 체험할 만한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작 불사인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아름다움과 사상을 기본으로 가족애를 다룬다. 이번 영화 한편이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윤제균 감독의 활약에 거는 사부대중의 기대가 크다.

이상언 기자

데스크 초대석 산악인 엄홍길  ……9면

社告

영봉(해종)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ikey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해종) 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안내
11월 6일(금)~ 20일(금) 15일 : 일 시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라야-반달-마일리 -불불레-Pikey 베이스캠프-Pikey 정상-준베시-반달-시발리아-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 코 스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인 원
287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참 가 비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입금계 좌
10월 30일(금) : 접 수 마 감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사전설명회
02-2004-8233, 017-236-5769 임연태 부국장 : 문 의
033-647-8848 영봉스님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해종)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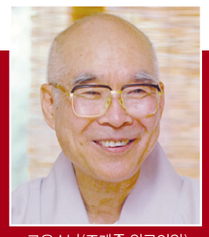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길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황벽스님이 어느 날 백장선사에게 물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禪의 진수를 어떻게 가르치렵니까?"
백장선사가 잠자코(良久)있자 황벽이 다그치듯 말했다.
"스승께서는 뒷사람들로 하여금 禪을 단절시키지는 마십시오."
스승은 한 마디를 던지고 방장실로 들어갔다.
"자네가 禪을 단절시키는 사람이네."

修行의 目的은 깨달음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
우리는 희론(戱論)과 침묵에서 벗어나 법을 논하고자 한다.
여기 열린 마당에 모여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 주제와 강사
①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고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②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시몽스님 (백양사 주지)
③ 생명평화운동을 통한 깨달음의 길 – 도법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④ 동사섭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용타스님 (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⑤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월암스님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⑥ 초기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각묵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⑦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 – 향봉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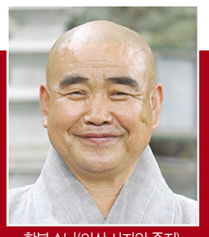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시몽스님(백양사 주지)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용타스님(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월암스님(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각묵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주지)

야단법석 일정표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월 21일 (첫째 날)	·	고우스님	시몽스님
11월 22일 (둘째 날)	각묵스님	용타스님	용타스님
11월 23일 (셋째 날)	도법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11월 24일 (넷째 날)	시몽스님	향봉스님	향봉스님
11월 25일	도법스님	·	·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집 결 : 2009년 11월 21일(토) 낮 12시
■ 입 재 : 2009년 11월 21일(토) 오후 2시
(백양사 방장 수산 큰스님 입재 법어)
■ 회 향 : 11월 25일(수) 오전 11시(4박 5일)
■ 대상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 동참비 : 출가자 – 10만원 / 재가자 – 20만원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접수처 : 백양사 종무소
■ 문 의 : ☎ 061)392-7502, 전송 392-208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 불 총 림 백 양 사



죽비와 목탁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호스피스協에 거는 기대

호스피스, 터미널케어라고도 불리는 임종간호. 불교에서는 2500여 년의 불교사와 함께 해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죽음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대처하는 지혜와 방법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인 아함부의 <유행경(遊行經)>은 죽음의 수용, 고통의 완화나 증상완화,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응대하는 이상적 모습과 사후 처리 등의 문제를 부처님과 아난 존자의 대화를 통해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종교계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호스피스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불교는 생로병사를 어느 종교보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면서도 그 실천법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임종간호에 대한 활동은 이웃 종교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미 1991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협회를 각각 설립했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가톨릭은 48개의 호스피스기관, 개신교는 100개 기관을 각 협회에 등록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계의 임종간호 전문시설은 정토마을 한 곳뿐이다. 교육기관은 아미타호스피스회, 환희불교복지대학, 영남보현자원봉사단 등 15개 기관 및 시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임종간호가 필요한 불자들이 이웃종교계 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개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불교계 최초로 호스피스활동을 전개해온 아미타호스피스회가 10월 11일 불자 호스피스 인력을 결집해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를 창립했다.

협회장 지현 스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정토로 인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뒤늦은 출발에 포교원도 지원을 약속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협회를 종단산하 단체로 등록하도록 힘 쏟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협회 설립에 늦은 감이 있다는 뒷말이 들린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르다고 했다. 환자를 돌봄은 여래를 돌봄과 같다고 했다. 이웃 종교에 뒤쳐진 만큼, 임종을 앞둔 불자들에게 자비의 등불과 감로수가 되기 위한 발원을 더욱 새롭게 했으면 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천태종 명락사 다문화가정 지원 나서

11일 명락빌리지 개원… 중국·몽골 등 8가구 14명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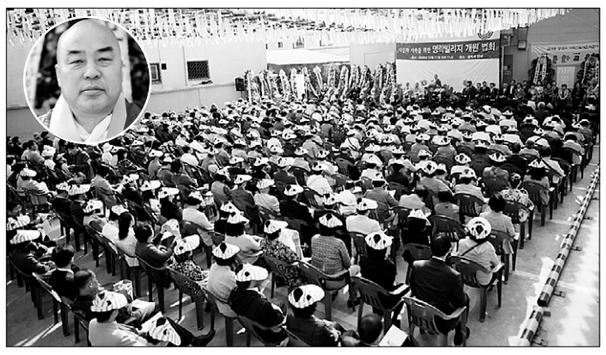
천태종 명락사가 국내 첫 다문화 결손가정 재활쉼터 '명락빌리지'를 개원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 천태종 총무부장)는 10월 11일 명락사 경내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락빌리지'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명락사 옛 수련관의 14개 방을 개조해 만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명락빌리지'는 가정폭력과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 결손·모자가정을 위한 주거교육시설로 법률상담과 한국어교육 등 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알선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입주한 중국·몽골·베트남인 등 8가구 14명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낯선 땅에서 파경을 맞은 아픔과 직장 등을 잃은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 향후 6가구도 추가 입주 예정이다.

이날 개원법회는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삼귀의례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 △경과보고 △개식사 △법어 △축사 △발원문 등으로 진행됐다.



10월 11일 서울 명락사에서 열린 명락빌리지 개원법회. 원내는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

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명락빌리지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주지 무원 스님과 신도분들의 노고가 크다"며 치하했다. 이어 스님은 "삼국유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에서 나오듯 어려운 이를 위한 자비심은 우리 모두를 성불의 길로 이끌 것"이라며 "늘어난 다문화가정에 비례해 증가하는 피해여성과 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불자들의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고 당부했다.

법어에 앞서 무원 스님은 "긴급 상담전화나 일시보호소는 있지만 명락빌리지 같은 자립시설은 국내에 없었다"며 "명락빌리지를 시작으로 다문화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말에 이어 감사원장 춘광 스님의 발원문 낭독과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의정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조계종 중앙신도회장)는 축사를 통해 "다문화 피해여성 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첫 다문화모자가정 쉼터가 개원돼 더없이 기쁘다"며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 김성식(한나라당)·김희철(민주당) 국회의원, 제재형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상임대표 등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참석 인사들은 명락빌리지를 돌아보며 거주 가족들을 격려했다.

한편, '다문화사찰'을 표방하는 명락사는 2월 무원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이후 '다문화 길상 기원등'과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만등(一萬燈) 불사(佛事)'를 통해 관련 기금을 모연해 왔다. 명락사는 다문화가정예술제, 다문화청년합창단, 다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관련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지관 스님 퇴임식

30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퇴임식이 10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집행부는 32대 성과 및 과제를 짚는 자료집 발간과 4년간의 주요사업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등 임기 마무리 작업을 차분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이어 "결계포살집은 첫 발행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 원장스님께서 역사적 자료인 점을 감안해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 한국불교사상서 번역도 영문화 관련으로 지연 중이지만 퇴임식 전까지 10권 전집 중 일부 마무리될 전망이다. 목동 국제선센터 또한 민원관계로 지연 중이지만 임기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려인, 지관 스님 예방

조계종이 주최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도자 한국문화체험'에 참여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20명(총 39명 중)이 10월 14일 지관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전 세계가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다'고 하셨다"며 "전쟁 때문에 조국을 떠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곳에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조국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이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고 종단방문을 환영했다.

박선주 기자

태고종 기관장 등 인사 단행

중앙초심원장 경담·중앙호법위원장 원묵 스님

태고종은 제24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을 기해 각급 기관장과 총무원실·부장 인사를 10월 15일 단행했다.

공석이었던 기관장인 중앙초심원장에는 경담 스님, 중앙초심원 부원장에 성률 스님, 중앙호법위원장에 원묵 스님이 임명됐다.

이어 총무원 실·부장에는 교무기획실장 원명 스님, 재정지원실장 월담 스님, 교류협력실장 능해 스님, 문화종무특보 법현 스님, 교무부장 지해 스님, 재무부장 법경 스님, 기획부장 법운 스님, 사회부장 고담 스님, 문화부장 지허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 교임부장 경보 스님, 종무위원 완월 스님, 종무위원 상하 스님, 무위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종무기관 부서장으로 중앙홍보원 홍보부장 혜철 스님, 중앙포교원 포교부장 원오 스님도 임명됐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5일 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실무역량과 애종심, 종단 내 위치 등을 고려하고, 지역별 균형과 형평에 맞게 전국 종무원 추천을 반영했다"며 "집행부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원융화쟁회 창립… "종단발전 초석"

20여 교구본사 국장급·말사 주지스님 구성

조계종 각 교구본사 중진스님들로 구성된 '원융화쟁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 목소리 대변에 나섰다.

원융화쟁회(회장 만당, 백양사 기획국장)는 10월 16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원융화쟁회는 20여 교구본사 국장급 소임자 스님들과 소임을 마치고 교구본사 말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들로 이뤄졌다.

원융화쟁회는 향후 △세계원융미래사 연구원 △원융미래복지관 △불교문화연구원 △해외불교문화학교 △선불교 연구원 등을 설립하고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 종단과 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융화쟁회는 이날 "교구본사 중심제로 인해 지역불교계가 소통이 부재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며 "전현직 소임자 스님들이 각 분야별 추진경험과 선교방편을 교류, 상호지원해 종단의 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다. 원융화쟁회는 결의문을 통해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상호비방과 금품살포 등 승풍실추 행위 근절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권위 불교인권상 후보자 추천받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제15회 불교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11월 1일까지 받는다.

불교인권상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소통하는 인권지킴이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개인 또는 단체로 추천 대상자 공적평가기간은 1년(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이다.

추천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접수는 이메일(pencil56@emapl.com)로 받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02)734-6401 박선주 기자

불교청소년지도사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31일~11월 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불교청소년지도사 연수를 실시한다.

불교청소년지도사, 파라미타 지도자 및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종단 포교종책 및 종교편향 △종단과 사찰과의 연계방안 △지역 포교활성화 방안 △청소년 상담 및 지도 방법론 △지역별 모임 △지도사를 위한 특강 등을 교육한다.

접수는 10월 26일 오후 5시까지. 참가비는 무료. (02)2011-1903, www.buddhism.or.kr 이상언 기자

고선종대가람 황악산 직지사
제12회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

법망경대승보살계본에 부처님께서 늙고 죽음은 지극히 가깝고 불법은 쇠하려고 하니, 모든 스님네들과 우바새와 우바이들은 심지대계(心地大戒) 보살계를 받아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간곡히 부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안팎이 하나가 된 지극한 마음으로 이 보살계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침내 부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0월 28일(음력 9월 11일) 오전 10시
◎ 장 소 : 직지사 만덕전(금강계단)
◎ 보 살 계 : 1인 30,000원
◎ 만등불사 : (1가족 1등) 10,000원
• 접 수 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직지사
• 전 화 : (054) 436 - 6013, 6862 • 팩 스 : 436 - 3174
• 온 라 인 : 우체국 702829-01-000143(직지사)

大韓佛教曹溪宗 第八教區
本寺 直指寺 住持 性雄 合掌

불교환경연대 후원의 밤 개최

지난 10년 미래 10년 준비하는 작업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불교환경연대의 첫 후원의밤 행사가 300여 대중의 축하와 격려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불교환경연대는 조직안정화 및 인재불사로 입지를 굳히기위해 △불교NGO센터 건립 △불교환경문화연구소 설립 △불교환경 인재불사의 3대 비전을 선포하고 환경보살로서의 서원이 사회로 회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행사는 성전 스님의 사회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의 개회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의 인사말,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의 격려사,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의 축사로 진행됐다.

보선 스님은 "생명존엄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한 불교환경연대는 불자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를 했다"며 "불교환경연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지금까지의 발자취가 앞으로 걸어갈 100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반대하는 운동은 끝에 가서는 지기 마련이다"며 "앞으로 환경운동은 반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지키는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마케팅 해서 청정국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평화가 바람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불교환경연대의 외침이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우쳐 줬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화계사 합창단과 관음무용단, 가수 안치환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현장 모금액 5758만원과 약정액 3400만원으로 총 9158만원이 집계됐다.

박선주 기자

케이블카 추진 공원법 반대

케이블카반대위 12일 조계사 앞서 기자회견

'국립 · 도립 · 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반대위)'는 10월 12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케이블카 추진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케이블카반대위는 10월 12일 조계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자연을 그대로 두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리산(노고단, 천왕봉, 반야봉), 설악산(대청봉), 북한산(백운대) 5개의 봉우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정부와 환경부에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회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신언직 진보신당 위원장, 박그림 설악녹색연합대표,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낭독, 자연공원법 개정반대 카드섹션과 조계사와 종각 광화문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다.

케이블카반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가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기를 자연공원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개발' 정책을 포기할 것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고 주장 했다.

지성희 팀장은 "환경부는 이미 올해 5월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조계종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10월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의 의의를 말했다.

윤주옥 사무처장은 "이 추워지는 계절에도 현재 지리산 노고단은 시민사회가, 천왕봉은 산악인, 반야봉은 불교연대를 비롯한 사찰 스님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국 사무처장은 "내장산 케이블카는 천염기념물 91호인 굴거리나무 군락지를 양분시켰고, 설악산 권금성은 케이블카 설치 후 예전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헐벗은 산으로 변했다"며 환경부는 우리 자연생태를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

다섯 개의 봉우리에서 12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자연공원법 개악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이어진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불교전문서점 15일 개점

템플스테이정보센터 지하에 불서 2만권 갖춰

2004년 문을 닫은 '책방 여시아문'의 뒤를 이어, 2만 여권의 불서와 음반 등을 갖춘 대형(360여㎡) 불교전문서점이 조계사 맞은 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 1층에 들어섰다.


불교전문서점 개점식이 끝난 후 불서를 살펴보는 지관스님(왼쪽)과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내빈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불교출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불교전문서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서 지관 스님은 "불교 포교는 경전과 스님, 불상이 갖춰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오늘 서점 개점을 계기로 교학을 장려하고 문서포교를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홍 스님은 "출판문화사업은 시장의 원리가 아닌 문화포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종단의 배려로 출판계의 숙원사업이 이뤄진만큼 양질의 불서를 출판하겠다"고 말했다.

종훈 스님은 "향후 서점 운영과 관련한 조계종 종령에 규정을 만들어 안정적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며 "홈페이지 구축,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불자들이 불서를 많이 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출판계는 대형 불교서점의 개점으로 불서 출판 및 유통의 활성화로 포교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김성우 기자

서불대 이사 전원 임원 승인 취소

교과부 결정… 지욱 스님 측 법적 대응 검토

장기간 학내 분규중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이사 전원이 해임돼 서불대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14일 파행 운영된 학사행정에 대한 책임과 공익적 이유 등을 들어 서불대 이사회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서불대 이사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서불대 이사회는 위법 부당한 교원 인사처분과 학사파행 등 현저한 학교운영의 장애를 야기시켰고, 법률로 엄격히 금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특히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해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에 의거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불대 이사회의 전원 해임으로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도 불가피해졌다. 관선이사는 서불대 법인운영을 위해 최소 4인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8월 대법원으로부터 교과부의 '이사 승인 취소 처분 철회'를 판결 받은 서불대 설립자 덕해 스님의 이사회 복귀까지 예정돼 서불대가 설립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지욱 스님 측은 "교과부의 굴욕적인 계고 조치도 이행해왔으나 이사 전원 해임 조치는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이사회 전원 해임 조치는) 언젠가 바로 잡힐 것"이라 밝혀, 교과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조동섭 기자

법륜 스님 "대북지원 확대 절실" 호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NGO 포럼서 주장

대북 인권운동과 평화통일에 앞장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의 대흉년과 대기근을 우려하며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법륜 스님은 10월 1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개최한 NGO 포럼 '대북 지원과 인권'에서 "올해 북한지역은 냉해와 가뭄, 홍수가 겹쳐 인도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지원 확대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법륜 스님은 "지난해부터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은 매년 100만톤 이상씩 식량을 지원하고, 비료 지원도 병행해야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중국에 정착한 5만여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식량난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간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중국 고용주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며 "남한은 중국과 외교관계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는데, 이는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족이자 이웃으로서의 의무'라고 주장한 스님은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창고 보관료만 연간 3000억원을 쓰고 4년 이상 묵은 쌀은 동물 사료로 방출하는 마당에 굶어죽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이 남한의 관할권에 있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남한의 개입 근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북중동맹을 통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명분으로 개입하는데 우리는 개입할 명분조차 없게 된다"고 말했다.

300조원에 이르는 한 해 예산 중 1%(3조원)만 있어도 북한 식량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법륜 스님은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은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주 기자

수타사에 공작산 생태숲 조성

천년고찰 수타사(주지 삼지, 강원도 유형문화재 17호)에 대규모 생태숲이 조성돼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과 수타사는 공작산 주변의 자생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생태계 연구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공작산 생태숲'을 조성했다. 홍천군 동면 덕치리 산1번지 163ha의 임야에 조성된 생태숲은 교육관 및 전시시설, 산소길 등 산로와 2700여종의 식물군락이 피는 '역사문화 생태숲' '유전자원보존 숲' '교육체험 생태숲'으로 구성돼있다.

박선주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기호 1번

"국민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종단의 구태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선언적인 주장 보다 종단의 백년대계가 담긴 주요한 종책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때이며,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단운영에 반영하는 '개방적인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또한 종단의 정통성을 확립한 정화세대의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개혁세대의 합리적인 식견을 모아내는 '세대통합의 지도력'을 통해 한국불교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수 계
1972. 10 해인사에서 지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4. 4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주요 이력
1992. 9제10대 중앙종회 의원
1996. 11제11대 중앙종회 사무처장
1997. 12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999. 11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2000. 2제12대 중앙종회 의원
2002. 12 제13대 중앙종회 의원
2005. 11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2006. 11제14대 중앙종회 의장
2004. 2 ~ 현재,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후보 자승스님

세계여성불자대회 12월 28일 베트남서

세계여성불자들의 소통의 장인 제11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베트남의 호치민시에서 개최된다.

사키야디타(Sakyadhita)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뛰어난 여성불자들'을 주제로 전 세계 비구니와 재가여성불자들의 업적을 집중 조명한다. 토론은 △여성불자와 지도력 △문화를 넘어서는 대화-뛰어남의 정의 △여성불자들과 범지구적 빈곤 △여성불자들의 다양한 삶 △문화의 교차로에서 불자교육 등을 주제로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방글라데쉬,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네팔, 등 개발도상국의 비구니와 재가불자들이 참석을 위한 후원도 진행 중이다. (02)722-2101

수화찬불가 초급반 원심회 18일부터

수화로 청각장애법우님들의 깨달음을 돕는 조계사 원심회(회장 김장경)는 수화 찬불가, 수화 초급반을 모집한다.

수화 찬불가 수업은 10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진행되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심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찬불수화로 단체와 개인지도를 병행한다.

10월 8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수화 초급 수업을 실시한다. 강좌는 실용적인 측면을 대폭 강화해 타 단체의 초급과정과는 차별화된 심화교육을 시행한다. 수화통역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에게는 일대일식 맞춤교육을 시행한다. 모두 참가비는 무료다. (02)720-4528

이상언 기자

"개산대재 이제 우리들 세상이에요"

봉은사 1215년 개산대재 어린이 위한 '사천왕과 친구되기' 인기 만점

미래 불교 동량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개산대재 행사가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10월 18일 1215주년 개산대재를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천왕과 친구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절문을 들어서면 만나는 덩치 큰 사천왕상이 귀여운 내 친구의 모습으로 변신해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다가갔다. 봉은사는 사천왕상의 험악한 모습이 무서워 절에 가는 것을 피했던 아이들을 위해 사천왕의 이미지 변신부터 시도했다. 사천왕상 캐릭터는 불법수호와 불제자 외호 등 의미는 살리면서 어린이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자인돼 인기를 독차지했다.


봉은 문화사업단 '나무 물고기'의 대표 캐릭터 수호사천왕.

이날 행사에는 봉은사 산하기관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복지시설인 달마학교 어린이를 비롯해 지역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어린이들은 봉은사에서 배포한 사천왕에 대한 학습자료를 읽고 문제를 풀고 사천왕과 사진찍기, 대웅전 참배, 경전 인경, 미륵부처님께 인사하기 등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사천왕의 의미를 바로 알고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어린이, 파라미타 청소년, 대학생회, 청년회 등 계층 봉사부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1회 어린이 청소년 합동 수계법회도 봉행했다.

한편 봉은사는 개산대재를 맞아 문화사업단 '나무 물고기'를 출범시켰다. 문화사업단은 어린이를 위한 사천왕상을 비롯해 비천 양장노트, 연아 보살 캐릭터 카드, 핸드폰 고리, 봉은사 계절 엽서, 사천왕 액정클리너, 사천왕 티셔츠, 사천왕 문구세트, 사천왕 스티커 세트, 전통한지 마당, 개마고원 주목나무 염주세트 등 11종 42개의 상품을 개발 출시했다. 문화사업단 대표 캐릭터인 수호사천왕은 차후 게임 등 디지털 제품에도 등장시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히 다가간다.

문화사업단은 기존의 공양물위주의 용품에서 벗어나 개인기도용품과 문화상품, 서적 등으로 신행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제품의 디자인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기존 중국제품의 조악함을 떠난 모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은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전통등(燈) 개발 및 등 문화 확산운동, 캐릭터와 콘텐츠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선도,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과 남북불교교류, 강연이나 활동체험 등을 통한 문화습득, 체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신계사 남북합동 법회 봉행

리규룡 부위원장 "합동법회가 통일 앞당길 것"

남북 불자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불교성지'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에서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북측 조불련 전국신도회 김명희 위원(왼쪽)과 남측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남측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10월 13일 오후 2시 신계사 대웅전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2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5타의 범종 타종으로 시작돼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후 남측과 북측 참가자들은 부처님께 꽃을 올리며 마음을 모았다.

조불련 리규룡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계사는 6 · 15통일시대에 북남 불교도들이 불심화합으로 이뤄낸 통일불사의 결과물이다"며 "신계사가 민족통일의 장이 되는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며 오늘 합동법회가 그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정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신계사와 금강산을 보전하고 지켜 나아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불교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준비해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측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과 북측 조불련 전국신도회 김명희 위원이 함께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이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나라, 통일되고 번영하는 현세의 불국정토에서 길이길이 복락할 그날을 만나 오기위해 우리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통일만을 발원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선주 기자

대불청 서래 노인요양센터 개소

강북청소년수련관 12월에 라오스봉사

한국 불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청년불자들이 국내외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전 세계에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어 화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이하 대불청)는 10월 1일 서울 번동 재가 장기 요양복지시설인 '서래(西來) 노인요양센터'를 개소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래 노인요양센터(센터장 윤숙현, 이하 서래, 02-939-0079)는 65세 이상 출 · 재가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파견 재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요양보호사는 하루 4~5시간 방문목욕, 방문요양을 통해 각 가정의 노인수발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대불청 지구 지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서래는 고령 및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신 스님, 재가자들의 복지 및 권익향상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대불청 회원들의 포교 신행의 장이 될 전망이다.

윤숙현 센터장은 "단순한 노인 요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종교 부분도 고려해 연계해 서로가 종교적인 대화를 통해 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불교발전기금으로 회향하고 앞으로 노인요양원, 요양 병원, 실버타운 등을 목표로 불교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범위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불청과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은 12월 11~20일 라오스에서 의료 · 교육봉사 등을 펼친다. 대학생, 의료인,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미얀마 지역민과 문화축제, 무료진료, 구호물품전달, 교육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의사 및 간호사, 음악 · 미술 전문가, 대학생 등 30명을 접수받는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접수는 10월 24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02)900-6650, www.nanna.seoul.kr

이상언 기자

한의사불자연합회 10일 창립

이수완 회장 "의료봉사를 기본으로 할 것"


10월 10일 창립축하 떡 커팅식을 하고 있다.

의왕보살의 화신 한의사 불자들이 불심으로 중생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조계종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이수완)는 한방의 날인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 지하 공연장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신도국장 정무 스님, 사무국장 원교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했던 것은 중생의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연구해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진실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병든 이의 병원(病原)을 확실히 알아 진실로써 치료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수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와 한의학, 성불과 의도(醫道)는 모두 마음자리에 근본을 두고 있기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며 "부처님의 교와 학이 마음속에만 자리해 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생활화되지 못한 것은 불제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신행활동의 기본은 봉사를 통한 의료시혜"라며 "정기법회, 봄 · 가을 템플스테이를 통한 불교의 생활화,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의사불자연합회는 조계종 신도단체로 등록되면서 전국 11개 한의과 출신 불자 한의사들의 신행 구심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행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법륜 스님 전국순회강연**=정토회 법륜 스님이 10월 17일~11월 6일 전국순회강연을 실시한다. 10월 17일 오후 5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18일 오후 7시 경주 신라문화체험장, 19일 저녁 7시 포항시청, 29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저녁 7시 청주 고인쇄 박물관, 30일 오전 11시 부산 디자인센터, 11월 3일 오전 11시 창원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저녁 7시 진구 청소년수련관 , 5일 저녁 7시 구미1대학 본관 4층 강당, 6일 오전 11시 일산 덕양구 민방위교육장, 저녁 7시 분당 JS 웨딩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02)587-8994

●**강선희 명상교실**=불교인재원은 10월 30일~12월 18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불교인재원 선운당에서 강선희 명상교실 제 2기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자비명상, 호흡, 오체투지, 만트라 등의 체험 위주의 명상 수행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6만원으로 20명 선착순 접수. (02)735-2428

●**위빠사나 명상코스**=담마코리아는 10월 22일~11월 2일, 4~15일 경북 상주시 푸른누리에서 위빠사나 명상코스를 실시한다. 코스 10일 전 과정 참여 가능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가능. (054)536-9820

●**하안거 집중수행**=서울 상도선원은 10월 15일~2010년 1월 15일 하안거 집중수행에 들어간다. 새벽 4시~저녁 9시 선방을 개방하고 입방비는 자율보시. (02)815-3391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1. 불교 현대화 의지를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경륜이 있는 분.
2. 방송의 경쟁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 경영 능력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을 불교방송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 **자 격 :**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 (정관상 불교방송 사장 임기 4년 가능자)
◇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부 (사진 / 상벌사항 / 서명 · 날인 포함),
② 경영계획서 1부 (A4용지 5매 ~ 10매)
- 불교방송의 특장을 살리는 프로그램 제작방향.
- 사회적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방안.
- 새로운 경제 및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 방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방안.
- 재원 증대 확보를 위해 취할 조치 등.

◇ **제출일시 : 2009년 10월 28일(수) 정오까지**
◇ **제 출 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환 210)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면담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참고사항**
1.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 선임(BBS 정관 제5조 5항)
2. 기타 사장의 처우 · 복무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상기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본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2010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유불선 합일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방문화 창달을 교육목표로 설립된 특성화·차별화를 통한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대학원대학교입니다.

1. 모집안내

학 과	과 정 (지원구분)	모집인원
서화심미학과	석 사 (신입)	○○명
불교문예학과	박 사 (신입)	○○명
자연치유학과	석·박사통합 (신입)	○○명
미래예측학과	연 구 (신입)	○○명
문화정보학과	외 국 인 (신입)	○○명
조형칠예학과		

2. 전형일정
【원서교부】 2009년 10월 12일(월)~10월 30일(금)
【원서접수】 2009년 10월 26일(월)~10월 30일(금)
【전형일자】 2009년 11월 7일(토)
【합격자 발표】 2009년 11월 18일(수) 본교 홈페이지

3. 전형 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 연구과정은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입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전화: 02) 3668-9811,12
- 팩스: 02) 3668-9899

동방대학원대학교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해인사 1207주년 개산대재 봉행

다례재 사진전 복식전 등 다채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13일 제1207주년 개산대재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수좌 원융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스님의 헌향을 시작으로, 헌화, 종사영반 등으로 진행됐다.

개산대재를 기념한 사진전 등 문화행사도 함께 열렸다. 대장경 판전 앞마당에서는 여행사진가 이현준 작가의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등이 시작된 것을 비롯해 17일 성보박물관에서는 '비운의 군주 광해군 복식전'을 개최됐다. 전시는 31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해인사는 23~23일 경내에서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종정스님을 전계대화상,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을 갈마아사리로 모시고 진행된다.

해인사 관계자는 "비로자나불 무생계는 비로자나불이 설하고 문수보살이 전해온 법신계로서 보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킨, 오늘날 모든 불자들이 수지해야할 신행규범"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55)934-3111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구은행, 동화사에 전동차 기증

8일 기증식… 대구은행 환경사랑 운동 일환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는 10월 8일 대구은행으로부터 전동차 1대를 기증 받았다.

경내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하춘수 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허운 스님은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전동차는 경내 업무용으로 적합하다. 전동차를 기증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이 펼치는 환경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동화사에 기증된 전동차는 사중의 업무관련 운반 담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동차 기증식에서 함께 한 허운 스님(오른쪽)과 하춘수 대구은행장.

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동화사에 문화재지킴이 활동과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 오토바이도 기증했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전문직 53선지식 동자전 개최

31일까지 여진불교미술관서

여진불교미술관(관장 이진형)은 10월 14~31일 '53선지식 동자전'을 주제로 '2009년 선지식을 전문직업인에서 찾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식에는 활안 스님을 비롯해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 옥천불교연합회 회원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이기도 한 이진형 관장은 "개관 4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전시회는 <화엄경>에 선재 동자가 찾아다닌 선지식을 21세기 전문 직업인에서 찾고자 교육 종교 법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모범 전문직업인들을 동자상으로 캐릭터화했다"며 "보살행의 화현인 여러 동자상을 비롯해 선재 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아다닌 21세기 선지식 상이 대한민국 장인의 손에서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감상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재가불자 역할 모색하다

총지종 중앙교육원 22~26일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

전세계 재가불교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재가불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지종 중앙교육원(원장 화령 정사)은 10월 22~26일 서울과 평창 월정사 등지에서 '재가불교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14개국 30여 국내외 재가불교 지도자, 재가불교운동 관련 학자 등 재가자는 물론 출가자 등 사부대중이 참가해 재가불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22일 저녁 6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룸에서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열리는 행사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재가불교와 사회참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재가불교의 이론적 기초 △재가 및 참여불교 단체 △한국 인도 티벳에서의 불교와 사회의 소주제로 나뉘어 국내외 재가불교지도자 11인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는 23~24일 평창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생활불교 관련 세부실천 방안 논의와 각국 대표의 재가불교 활동에 대한 소개가 진행된다.

25일에는 강릉 일대 유적지, 박물관 등을 찾아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효강 종령은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통해 전세계 재가불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생활불교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령 정사는 "세계의 많은 재가불자들이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갈구해 왔다"면서 "본 대회가 불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회 대회는 지난해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열렸다.(02)552-1080

조동섭 기자

중창불사 회향

23일 영월 혜운사

태고종 영월 혜운사(주지 정담)는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경내에서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행사는 주지 정담 스님이 일주문 건립과 무량수전 신중단에 목탱화를 조성하는 등 중창불사를 회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주지 정담 스님은 2001~2004년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무량수전을 비롯해 7층 석탑과 범종각 등을 장엄하는 등 혜운사 가람불사에 힘써왔다. (033)374-0079

조동섭 기자

제3회 만해예술제

30일 동방대학원대

동방대학원대(총장 정상옥)는 10월 30일 오후 3시 교내 사자후전에서 제3회 만해예술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만해시 낭송, 살풀이, 해금 연주와 몽골 불교의례 시연, 티베트 전통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02)3668-9823

조동섭 기자

"전통무예 보러 오세요"

골굴사 11월 1일 전통무예대회 열어

경주 골굴사(주지 적경)는 11월 1일 오후 12시 선무대 대학공연장에서 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열리는 행사에서는 기천문, 경당 24반무예, 무의단공, 선무도, 영가무도, 택견, 합기도, 공수도 등 20여 전통무예가 선보인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대적광전 공연장에서 선무도와 임동창의 피아노, 인간문화재인 서울대 이애주 교수의 승무, 정경화 선생의 택견, 판소리 등 예술공연이 펼쳐진다.

적경 스님은 "선무도 세속포교 25주년을 맞아 한국전통무예대회를 열게 됐다"며 "가을 산사에서 전통무예와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이색 템플스테이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54)744-1689

조동섭 기자

"진흥원 임대수익 영담 스님 발언 잘못"

진흥원, 불교방송 인용자료 오류 지적

"진흥원이 BBS를 상대로 60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는 영담 스님의 발언은 잘못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은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이하 BBS)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용한 통계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보도자료에서 "BBS는 '진흥원으로부터 9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오히려 진흥원에 150억원을 지급해 진흥원이 60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은 틀리다"면서 "진흥원은 BBS 설립 이후 145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90억원으로 주장한 BBS는 설립 당시부터 1993년까지 자료를 찾기 어려워 1994년부터 2003년분까지만 계산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BBS측이 냈다는 150억원에는 부가세, 관리비 등 대부분 제3자에게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됐다"며 "BBS가 진흥원의 지원금으로 자체 활용한 액수는 70억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능인중·고교 설립 기념비 제막

9일 개교 70주년 맞아 은해사 백련암 앞에서


10월 9일 능인중 · 고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은해사 백련암 앞에 건립된 학교 설립기념비 제막식 모습.

종립학교인 능인중 · 고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교 설립 기념비를 제막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이사장 종광)은 10월 9일 은해사 백련암 앞에서 학교설립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설립비는 전면에는 '능인중 · 고등학교 설립비'를 한문으로 새겼고, 후면에는 학교의 간략한 역사를 기록했다.

종광 스님은 축사에서 "능인중 · 고교는 일본강점기 당시 불교 선각자들이 민족정신을 지키고자 설립한 호국사상이 깃든 교육의 현장"이라며 "설립비 제막을 계기로 능인학원 설립의숭고한 의미가 널리 알려져 불교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능인중 · 고교는 1939년 은해사 백련암 옛터에서 오산불교학교로 개교했다. 개교 당시부터 체계적인 중등교육기관으로 인재양성에 힘써왔다. 1946년 능인중학교로 전환, 1951년에는 고등학교를 설립해 현재까지 6만여 졸업생을 배출했다.

행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과 능인고 양근식 교장, 능인중 김영현 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마곡사에 충청판 '올레길' 열려

2010년 말까지 '마곡사 솔바람길' 개설

제주 자연을 벗 삼아 걷는 '올레길'에 이어 공주 마곡사에 충청판 '올레길'이 개설된다.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2010년 말까지 2억원을 들여 천년고찰인 공주 마곡사 인근 솔숲을 거닐며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가칭 '마곡사 솔바람길'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도는 마곡사 솔바람길을 시범으로 추진한 뒤, 2011년부터는 서산시 가야산 보원사지 가는 길 등도 특색 있는 산책로로 개발할 계획이다.

마곡사 솔바람길은 △마곡사 가는 길(마곡사관광지~천연송림욕장, 총연장 2㎞, 소요시간 30분) △백범 명상길(천연송림욕장~은적암~백련암~활인봉, 2㎞, 60분) △솔잎 융단길(아들바위~나팔봉, 1.5㎞, 30분) 등 6가지 코스로 구상 중이다.

이 중 '백범 명상길'은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 낭인에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1895년 일본군 장교를 살해한 뒤 마곡사로 도피해 은거생활을 할 때 구국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거닐었던 숲길이다.

한편, 올레는 제주말로 '큰길에서 집 대문에 이르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란 말이다. 지금은 자연친화적인 '트레킹 코스'의 의미로 변용됐다.

조동섭 기자

불기 2553年 大韓國佛教曹溪宗 創宗宣布

佛教가 우리나라에 傳來된지 1천6백餘年이 흐르는 동안 우리民族의 혼과얼을 심어 주었으며 또한 精神思想은 물론 國家發展에 지대한 貢獻을 하였으며 수많은 文化遺產을 우리 後孫들에게 남겨주어 世界的인 文化遺產으로 등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文化財는 대략 佛教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業績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歷史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受難을 겪을때마다 부처님의 佛智와 대원력으로 그 위기를 슬기롭게 克復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本 宗團은 釋迦牟尼 부처님의 教理를 봉체하며 佛祖의 慧命을 近間으로 正法修行과 布教活動으로 時代的인 사명의식과 대원력으로 至極 發心하여 圓融無碍로 이나라의 發展과 國泰民安 및 成佛得度하여 수미산 정상에 獅子吼 를 拔河老泥 大韓國佛教曹溪宗 의 공식명칭으로 宗憲을 宣布함에 率先自律思想을 發揮하여 宗風을 外護 內剛케 함으로 宗團의 紀綱을 確立하고 傳統을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佛祖의 加護 아래에서 法孫萬代까지 永遠한 繁榮과 입지안국의 修行精進으로 전원 成佛하시길 祈願하며 嚴肅히 創宗을 宣布하는 바입니다

불기(佛紀) 2553年 10月 10日(陰曆. 8. 22)

總務院長 德山

總務副院長 寶應　元老院長 妙玄
中央禪院長 法光　宗會議長 昇志
監査院長 大正　教育院長 普明
布教院長 法雄　考試院長 眞峯
文化院長 法宣　護法院長 梵海

總務部長 般山　教務部長 德淨　財務部長 智山
社會部長 應宣　企劃部長 成道　布教部長 眞妙
文化部長 普慧　糾正部長 日如　弘報部長 昇岩

＊함께 하실 종도(宗徒) 여러분을 모십니다.

大韓國佛教曹溪宗 總務院 : 서울特別市 鐘路區 平倉洞 523-61番地
電話 02)379-5502 / 팩스 02)379-0843

특별기고-불자들이 알아야할 신학자 '스베덴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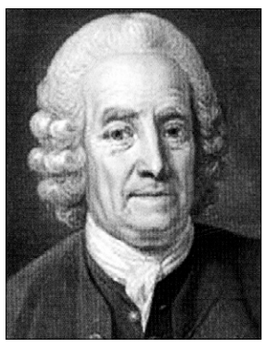
"모든 종교인은 구원 받는다" 주장

필자가 스베덴보리(Emanuel Sweden borg · 사진)라는 스웨덴 출신 신학자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한국새교회의 한 교인에 의해서다.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그 분으로부터 의뢰받은 스베덴보리의 책을 번역하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번역을 해나가던 중 "인간과 모든 동 · 식물이 태양의 작용 아래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자연계(natural world)와 사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적세계(spiritual world)로 구분한 뒤 자연계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구절에 이르러 <금강경> '응화비진분'에 나오는 저 유명한 사구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상됐다.

이쯤에서 스베덴보리라는 영성신학자(靈性神學者)를 알게 된 동기를 접고, 그 후로 필자가 알게 된 그에 대한 사실과 기존 기독교의 교리와는 판이한 그의 신학 사상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기로 하겠다.

스베덴보리는 1688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왕실의 궁정교회 목사였던 예스더 스베드베르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루터교의 경건하고도 돈독한 신앙 속에 성장해 12세의 나이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의 하나로 손꼽히는 웁살라 대학에 입학해 어학 · 수학 · 광물학 · 자연과학을 섭렵하고 22세에 철학박사가 된 매우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였다. 졸업 후 당시로서는 선진국이었던 영국으로 유학을 가 특히 정밀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어놓았다. 그 후로도 그는 자연과학과 이에 연관되는 철학적인 저서를 잇달아 내어놓아 세계적인 스웨덴 식물학자 린네와 더불어 유럽 대륙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한 그가 신학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은 인간의 신체 속에서 영혼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모색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모색 과정에서 많은 사색과 명상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환영을 접하면서 영안(靈眼)이 열리고 그 후로 살아있는



육신을 지닌 채 여러 차례 천계(天界)와 영계(靈界)를 오가며 그곳에서 보고 듣는 대로의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렇게 이루어져 전해지고 있는 그의 방대한 신학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의 환영을 접하면서 받은 소명, 즉 성경의 영적인 의미(spiritual sense), 또는 내적인 의미(internal sense)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 소명 가운데 나오는 영적 의미가 그의 신학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은 그의 신학을 추종하는 이들에게는 상식화돼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쯤에서 필자는 그의 저술과 해외의 저명한 신학자 및 성직자들이 그에 관해 다룬 저술에서 필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기로 하겠다.

먼저 스베덴보리는 "구원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왜곡이다"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는 주님은 모든 종교에 실제로 임재하시며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의 '선한 개인들'은 모두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실 기독교인에 대해서보다 비기독교인데 대해 더 확실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이에게 구원의 방법을 베풀지 않는 신은 사랑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는 신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보고 온 천계(天界)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천국에는 일반적, 종류별, 그리고 세부적 구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나라, 종류별로는 세 천국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종류별로 완전히 다른 세 천국이 있는 바. 가장 내적(삼층), 중간층(이층), 가장 외적(일층) 천국이 그것으로 세 천국은 그 질서와 상관관계가 가장 위쪽 부위인 머리, 중간 부위인 몸통, 가장 아래 부위인 다리로 이루어진 사람의 몸과도 같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식에 속하는 것인 사람의 내면도 이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각 천국에는 안쪽과 바깥쪽이 있다고 했는데 이쯤에서 독자들께서는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줄 믿는다.

그의 저술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작품, 업적들에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그 중 알려진 사람들만 대충 소개해도 칸트, 에머슨, 헨리 제임스, 블레이크, 보들레르, 예츠, 괴테, 컬러리지, 도스토예프스키, 칼 융, 헬렌 켈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사실과 더불어 일본의 스즈끼 다이세쯔가 <Sweden borg: Buddha of the North>라는 영문판 저술을 남겨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1월 17~20일 미국의 샌디에고에서는 세계의 주요 종교를 대표하는 1만1000명의 종교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교학술회의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서구불교의 대중화에 있어서의 스베덴보리 저술의 역할'을 다룬 <Sweden borg: A Modem Buddha?> 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우리 불교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리라 생각돼 주마간산격으로나마 스베덴보리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그의 신학사상을 소개해 올렸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소개를 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오석제 번역인

캄보디아 아이들 후원 모임 결성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 13일 창립총회… 남지심·이평래·김재영 공동대표

어느 나라든 교육이 국가의 미래다. 국내 재가불자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공동대표 남지심, 이평래, 김재영)은 10월 13일 서울 종로 아미타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남지심 공동대표는 "이웃종교에 비해 대승적인 활동에 소극적인 불교계의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운동'을 생각했다"며 "우선적으로 전통불교국가인 캄보디아 어린이들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모임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대표 이평래 교수(충남대)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의 원조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하는 때"라며 "보시의 정신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운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은 3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이 10월 13일 창립총회를 갖고 보살행을 발원했다.

인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방송인 엄앵란, 김경자 구의원(한나라당 강서구 의회), 박상필 국제포교사회장, 서분례 서일농원 대표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쳐온 재가불자들로 결성된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을 늘려가고 후원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창립과 동시에 시작한 첫 사업은 캄보디아 오도르 민쩨이 지역에 있는 쏨닷 뗍 뽀디봉 초등학교 학생 250명의 급식비 및 학비와 8명의 교사 월급을 지원하는 것.

뽀디봉 학교는 캄보디아 왕사(王師)인 텝봉(Tepvong) 스님이 캄보디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민하던 중 (주)세화 이동윤 회장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하지만 급식비와 교사의 월급을 줄 형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이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 아이들 급식비와 교사들의 월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는 인구 1400만 명 중에서 70%가 30세 이하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 국가'다. 하지만 이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조차 봉급이 매우 낮아 수업을 기피하는 등 공교육 시스템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 앙코르와트와 시엠립 등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신교 선교단체들이 선교봉사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한 개신교봉사단체는 2020년까지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어린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선교봉사를 벌이고 있기까지 하다.

남지심 대표는 "2000년 전통의 불교국가에 개신교단체가 가서 지원하는 것은 민족, 가족 간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마음속에 살아있는 어린생명을 부처님으로 모신다는 생각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의 지원을 희망하는 불자들은 누구나 회원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010)2808-6028, 1946nam@paran.com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11일 창립

지현 스님 "환자 돌보는 공덕 여래 돌봄과 같아"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가 창립을 선포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지현)는 10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스님, 협회 고문인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협회 상임이사 능행 스님,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김혜자 수녀, 한국기독교호스피스협회장 김성환 목사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호스피스협회를 종단산하 단체로 등록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아픈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 불이(不二)사상으로 여러분 모두 호스피스 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대표이사이자 호스피스협회장인 지현 스님은 창립법회에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스피스 활동은 계속 있어왔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 진행해온 활동을 조직화해 운영 및 교육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창립총회에서는 본부임원추대식을 갖고 협회이사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법주사 총무 영원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 등 24명을 추대했다. 협회의 회원은 1300여 명으로 아미타호스피스회, 환희불교복지대학, 영남보현자원봉사단 회원들이 등록돼 있다. (052)264-0117

이나은 기자

제2회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서울노인복지센터 개막작 '문디' '와인할매' 상영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0월 14~16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제2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미디어 문화권에서 소외돼 온 노인들이 미디어 문화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세대간 이해와 공감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오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동수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가섭 스님은 "이번 영화제는 노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역량을 확인하고, 미디어를 통한 신노인 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계기"라며 "영화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공감, 어울림이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문디(Moondy, 정해심 연출), 와인할매(Wine Grandma, 송주영 연출)가 상영됐다.

문디는 이주여성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이질적인 상황 속에서 '문디'라는 호칭으로 소통하는 두 여인을 카메라로 잔잔하게 보여주는 내용. 이어 상영된 와인할매는 먼저 떠난 남편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할머니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영화제에서 전국노인영상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7편의 수상작을 비롯해 어르신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40편의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도 상영했다. 또한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의 수상작 7편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02)6911-9585

이나은 기자

산사 예술제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골굴사 전통 무예 대회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며 승병들의 무예를 계승한 선무도 세속포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합니다. 전통무예와 예술공연을 관람하며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일정안내

⊙ 10월 31일(토)은 제 36회 선무도 승단 심사가 있습니다.
⊙ 11월 1일(일)
◈ 1부 무예대회, 낮 12시 ~ 오후 3시, 선무도 대학 공연장
기천문, 경당 24만무예, 무의단공, 선무도, 영가무도, 택견, 정도술, 풍류선도, 한무도, 회전무술, 국술원, 쿵푸, 차력무술, 특공무술, 합기도, 공수도
◈ 2부 예술공연 오후 3시 ~ 6시, 대적광전 공연장
● 선무도와 임동창의 피아노 ● 승무(인간문화재 이애주 서울대 교수)
● 택견(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 ● 풍류, 임동창의 피아노, 판소리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문의 전화 : 054)744-1689 / 745-0246 www.sunmudo.com

중국 육조사 (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조계선풍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분원, 명상센타)를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
★선 원 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장 여건을 갖추신 분
★문화원장 :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정신수행에 관심있는 스님, 의사, 약사, 교사출신이나 일정한 수행 경력이 있는 분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사본 1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 연 락 처 :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TEL : 033)761-7008, 761-2556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 서울 문 화 원 : TEL : 02)766-6800, 720-6363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 경기 문 화 원 : TEL : 031)574-1108
◈ 부산 육조선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본찰 용화사 방장 석 연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숭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10월11일 중국 광동성 육조사 (대원 방장)와 한.중 불교 선 문화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원장으로, 2009년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로에 육조사 대원방장님과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본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홍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흥사 옥관음불접안 법회에 증명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전 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간화선을 대중화하려면?

조계종 불학연구소 23일 간화선 세미나

간화선 대중화 사례를 통해 간화선의 비전을 조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1차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간화선 수행의 성공사례와 간화선 대중화의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이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과 지도방법'을, 월암 스님(지리산 벽송선원장)이 '벽송선회와 간화선 대중화의 비전'을 발표한다.

불학연구소 서재영 선임연구원은 "간화선이 현대인들에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안국선원과 벽송선회에 참가하는 수백 명의 재가불자를 보면 간화선이 현대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어떻게 해서 간화선 수행을 대중화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간화선을 대중화시킬 것인가?'라는 간화선 대중화의 방법론적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011-1818 조동섭 기자

'가산불교대사림' 11권 발간

'ㅂ' 마무리 'ㅅ' 사건달바까지 다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은 최근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 11권을 발간했다.

책에는 1400 페이지 분량으로 5800여 표제어가 수록돼 7권부터 이어온 'ㅂ' 항목이 마무리 됐다. 표제어 '불교'에서는 7페이지에 걸쳐 '불교'와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 한국 등에서 진행된 '불교개혁'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어 'ㅅ'항목에서는 불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 '사(士)'로 시작해, 음악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음악신인 네 명의 건달바를 뜻하는 '사건달바'까지 다뤘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1999년부터 불교 관련 표제어 15만여 항목을 정리하는 세계 최다 불교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작업을 펼치고 있다. (02)765-9602 조동섭 기자

"한강시원지 우통수 불교와 관련"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술세미나서 주장

"우통수(于筒水)와 금강연(金剛淵)은 한강의 시원지이며, 불교와는 불가분의 관계다."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정념 · 월정사 주지)이 10월 13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한강시원지 오대산 우통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자현 스님은 주제발표 '불교에서 바라본 제례의식, 생명수 사상'에서 이같이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스님은 "우통수와 금강연을 기록한 사료들에서 한강의 시원이라는 사실 외에 우통수의 색과 맛, 무게가 다른 물들과 달랐다는 신성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강연의) 금강이라는 명칭에 불교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강의 시원과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록문학가 이지누씨는 주제발표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우통수와 한강'에서 "우통수(于筒水)와 금강연(金剛淵)은 한강의 시원지이며, 오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불교문화를 폄하했지만 우통수와 금강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우통수는 서대 염불암과 같은 장소이고, 금강연은 월정사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백제금동대향로 나투다

불교중앙박물관 '백제가람 속 불교문화' 특별전

절제와 담백한 미를 자랑하는 백제불교 문화재가 한자리에서 전시된다. 특히 전시에는 백제 불교 미술의 백미라 불리는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가 국립박물관 외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10월 16일 '백제가람에 담긴 불교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해 백제 지역에서 발굴 · 출토된 불교조각(54건) · 불교공예(35건) · 불교건축(67건) 등 관련 유물 200여 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전시회는 다섯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백제불교 연표 등을 통한 '백제 불교의 발자취' △능산리사지 금동광배 등을 통해 백제 불교 미술의 섬세한 조형미를 소개한 '백제의 불상' △부여 장하리석탑 등 충남지역 석탑에서 사리구를 비롯해 함께 출토된 10여 과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백제의 불교공예' △다수의 사원이 불국토를 이뤘던 사비시대 모습을 조감할 수 있는 '백제의 사원' △백제의 우수한 건축기술을 소개하는 '백제의 사원건축' 등으로 선보인다.

각 소주제별 전시 문화재 가운데에는 국립 부여 · 공주 · 청주박물관 소장문화재 중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국보 제247호), 부여규암면출토 금동관세음보살입상(국보 제293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국보 제106호), 부여부소산출토 '정지원'명 삼존불(보물 제196호), 군수리사지 출토금동보살입상(보물 제330호) 등 백제불교미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국보급 유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중 '백제금동대향로'는 소장처인 국립부여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두 번 전시됐을 정도로 귀한 전시품이다.

1993년 12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는 높이 61.8㎝의 크기다. 대형 향로는 유례가 없을뿐더러 받침에선 다리 하나를 치켜든 용이 연꽃봉오리를 입으로 받치며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등 백제 미술 중의 최고로 손꼽힌다. 용과 연꽃 봉오리 위로는 사방에 촘촘히 표현된 74개의 산봉우리, 6그루의 나무, 12곳의 바위, 39마리의 동물, 16명의 인물상이 묘사돼 있고, 신산(神山) 꼭대기에는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다. 향로의 연기는 봉황의 가슴 등에 뚫린 12개 구멍에서 피어 오르도록 고안됐다.

백제금동대향로의 보험가액만 300억원에 달하기도 하지만, 국립박물관의 자존심으로 불릴 정도의 '명품' 유물로 지금까지 외부에서 전시된 예가 없다. 이런 까닭에 이번 불교중앙박물관 전시는 국립부여박물관의 한 관계자가 "부처님 가피가 아니었다면 안될 일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범하 스님은 "'백제금동대향로의 불교중앙박물관 전시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도 국립박물관 외에서는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기회"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11월 5일까지 계속된다. 단, '백제금동대향로'는 10월 22일까지만 전시된다. (02)2011-1960 조동섭 기자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0월 15일 특별전 개막식에서 지관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오른쪽)이 금동대향로를 둘러보고 있다. 보물 제196호 정지원명금동삼존불상, 국보 제247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

"10·27법난 교과서 게재돼야"

10·27법난 명예회복 학술심포지엄서 주장

군부정권의 도덕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자행됐던 10 · 27법난에 관한 관련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과거사 청산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학술행사에서 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법난에 대해 초 · 중 · 고교 및 대학 교재에 게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10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 · 27법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 최용춘 상지대 교수(교불련 회장)는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이관 △역사교육관 건립 △법난에 대한 학생 교재 게재 △각 종단별 피해자의 잔여임기에 대한 배려 등을 주장했다.

한편, 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주 스님(금산사 회주 ·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한 역사적 범죄행위는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에 대한 국가적 배상이 이뤄줘야함은 물론 후세들에게 교육되고 교훈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 유식 특강

23일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문화관서

세계적인 유식학자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日 동양대)의 특강이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0월 23일 오후 3시 문화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2009 세계석학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행사에서 다케무라 총장은 '<성유식론>의 연기사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에서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은 세친(400~480)의 <유식삼십송> 제18게송을 근거로 오직 마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유식의 입장과 연기설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다케무라 마키오 교수는 동경대 인도철학불교학 박사로, 일본인도학불교학회상(1984), 일본종교학회상(1986), 나카무라하지메동방학술상(2007), 이노우에엔료상(2008)을 수상한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학자다. <유식삼성설의 연구> <유식의 탐구> 등 유식학 논서를 비롯해 <입문 철학으로서의 불교> 등 다수의 불교 관련 저서와 논문이 있다. 조동섭 기자

'보리심' 학술대회 21일 열려

보리심(菩提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써 널리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보리심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종석)은 10월 2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불교에 있어서 보리심의 문제'를 주제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종석 스님의 기조강연 '대승불교와 보리심'을 비롯해 △<보살지지경>에 있어서 보리심(묘주 스님, 동국대) △<무량수경>에 있어서 보리심(강동균 교수, 동아대) △<화엄경>에 있어서 보리심(권탄준 교수, 금강대) △<대일경>에 있어서 보리심(정성준 연구교수, 동국대 BK)이 발표된다. (031)980-7862 조동섭 기자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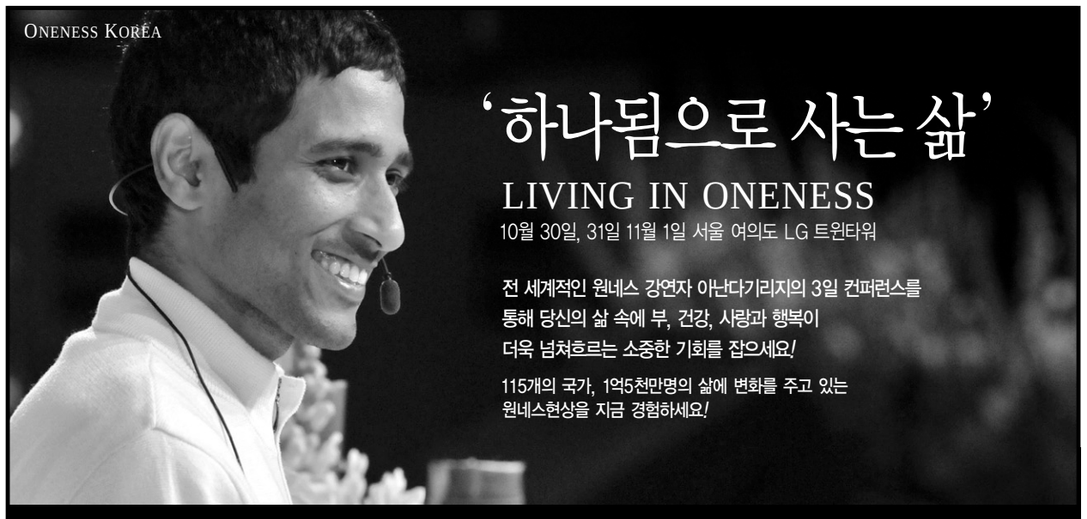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원네스과정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 삶에 대한 법칙 터득하기
- 부모, 배우자, 자식, 동료들의 관계회복 및 치유
-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 자신을 포함한 모든것과 하나됨 이루기

- 일 시 : 2009년 10월 30(금), 31일(토), 11월 1일(일)
- 장 소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 강 연 자 : 아난다기리지 (인도 원네스 유니버시티 강연자)
- 금 액 : 95만원 (입금 선착순 자리배정)
- 홈페이지 : www.onenesskorea.com
- 예약문의 : tel- 070-8244-8020

mail-onenesskorea@gmail.com 카페-http://cafe.naver.com/onenesskr

주 최 : OUR HOME 및 아워홈 협력업체 ONENESS UNIVERSITY

일주문



관음종 태허조사 탄신다례법회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0월 13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태허조사 탄신다례법회를 봉행했다.(02)763-0054



직지사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10월 24~25일에는 '세상을 향한 날개짓' 템플스테이와 26일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054)436-3174



군종교구 간부불자 수련회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10월 9~11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군불종 임원진 및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간부불자 수련회를 개최했다.



도봉산 천축사 산신대재

서울 천축사 주지 유방 스님은 10월 26부터 11월 1일까지 국운융창 산신대재 7일 기도를 봉행한다. (02)954-1474



29기 2급 전문지도자 과정 개강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10월 10일~12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전10시~오후7시까지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을 실시한다.



주영운 행원이사장 국민훈장 수훈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은 10월 14일 2009이북도민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동백장)을 수훈했다.



2009 서울세계 차 문화축제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22일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들차회인 '2009 서울 세계 차 문화축제' 를 개최한다.



불교아카데미 티벳불교 강연

불교아카데미 전우희 이사장은 10월 24~26일 우리함께회관 수행센터에서 티벳 라또 사원 방장 라뙤켄 린뽀체 스님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신희섭 교수 美국립학술원 회원 등록

한국과학기술원(KIST) 신희섭(제1호 국가과학자) 신경과학센터장은 최근 미국 국립학술원(NAS) 외국인회원으로 등록됐다.



국선도법사단회의 신종플루 강의

국선도법사단회의 임경택 의장(목포대 정외과 교수)은 10월 22일 국선도 광화문수련원에서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를 강연한다.(02)722-0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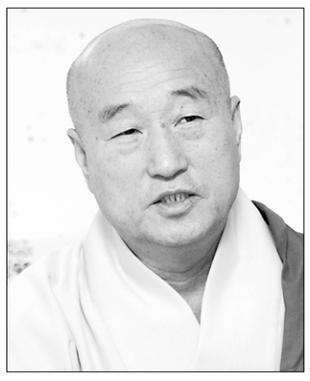
"나눔을 위한 소통 5대영역 가동할 것"

설립 15주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한 분의 기증으로 수십 명의 고통받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명나눔에 동참하세요."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을 비롯한 의료복지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일면 스님은 "故법장 스님이 생명나눔을 설립한 이래 본부는 생명나눔실천운동이 자리잡는 데 힘을 쏟았고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헌혈, 조혈모세포, 조직기증 운동에 힘을 기울여왔다"며 "2009년을 설립이후 15년 동안의 사업을 새롭게 정리하고 평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해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생명나눔은 그동안 △장기기증 결연 사업 △헌혈 은행 △환자 지원사업 △장기 및 시신기증자 천도재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2009년 9월말 까지 장기기증희망자는 2만4258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는 1만6560명이 등록돼있다. 특히 조혈모세포기증은 대한적십자사 다음으로 많은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나눔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서약운동과 의료발전을 위한 시신기증 결연 사업 및 연간 2억700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환우 치료비 · 수술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일면 스님은 "2014년 까지 향후 5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낼 계획"이라며 "'생명나눔을 위한 소통'이라는 큰 주제를 세우고 5가지 영역을 만들어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과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나눔은 △대중 △환자 △정서 △기관 △온라인의 다섯 영역에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중과의 소통은 장기 기증 홍보 및 교육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위한 캠페인 진행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환자와의 소통은 정기적인 모금을 통한 환자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헌혈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서와의 소통에서는 희망 길 걷기대회, 자선음악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 사업을 주로 펼칠 예정이다. 기관과의 소통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치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홍보한다.

일면 스님은 "불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동참했으면 좋겠고, 특히 젊은이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환자를 도와 환자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하자"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일붕법왕문도의 날 조사전 기공식 봉행



10월 10일 열린 일붕법왕문도의 날 법회.

일붕법왕문도회가 주최하고 일붕법왕종이 주관하는 일붕법왕문도의 날 기념식 및 일붕법왕 조사전 기공식 대법회가 10일 10일 오전 11시 충북 청원군 법왕청 담화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초대법왕 일붕 전서 '세계일화'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이날 일붕법왕종은 일붕 스님 박물관 겸 조사전 건립 등 업적사업을 병행키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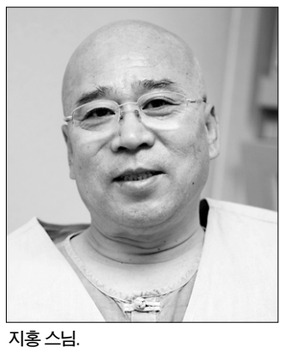
한편, 이날 법회에는 부산 대각사 경우 스님 등 100여명의 스님과 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새 콘텐츠 · 전문가양성 진력"

9월 22일 문을 연 불교IT문화원 원장 지홍 스님

"IT나눔으로 불교의 자비정신을 펼치겠습니다."

불교와 IT를 접목,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고 전문가 양성과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불교IT문화원(원장 지홍)이 9월 22일 문을 열었다.



지홍 스님.

불교IT문화원장 지홍 스님은 "예전 한문문화권에서는 스님들은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지도자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맞이했다. 하지만 스님들과 불교계는 IT와 관련된 분야를 멀리하고 있어 관심이 절실하다"며 설립목적을 설명했다.

지홍 스님은 "불교계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녔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서예대전 등 공모전을 개최하고, Active불화와 E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의 IT화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각 사찰 및 행사에 전문가를 파견해 승가 내의 디지털 전문가 양성 및 컨설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불교IT문화원은 불교IT콘텐츠화와 더불어 IT나눔으로 불교계 저변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IT나눔은 '한 가정 한 PC운동'으로 10월 말부터 각계에서 중고컴퓨터를 지원받아 다문화 가정 및 각 사찰 신도자녀 중 PC가 없는 가정에 보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인터넷 교육 등 소양교육도 진행한다. 불교IT문화원은 IT나눔에 대해 '임의단체'로 신청, 향후 사단법인화도 추진 중이다.

지홍 스님은 "현재 사회는 '악플' 등 정서 · 정신적으로 황폐화된 인터넷 세대가 커가고 있다. IT나눔 속의 불법으로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불교문화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02)739-9777 노덕현 기자

東大출신 연예인들 10억 모금 약속

이덕화, 최민식,이효정, 이경실 등 기부금 약정

동국대 연극학과 출신 연예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10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기부키로 했다.



2009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동국대 출신 연예인들, 맨 앞이 이덕화씨.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0월 10일 동국대에서 열린 '동문초청 2009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이효정, 이덕화, 최민식, 채시라, 이경실, 조여정 등 동문 연예인들이 이날 학과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을 내년까지 조성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연극학과 동문회장인 이효정 씨는 "모교의 건학103주년 및 연극학과 창설 50주년을 맞아 학교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을 동문회 차원에서 모금하기로 했다" 며 "2010년 12월까지 기금을 조성해 학교에 기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홈커밍데이에는 이연택 총동창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홍영표 국회의원등 1300여 동문이 참석해 145억원의 발전기금이 모였다. 이 외에도 각단과대별로 동문들의 후원금이 줄이었다. 불교대학(원)은 석림동문회를 비롯한 동림동문회, 덕산장학회, 불교대학동문회, 불교대학원총동문회, 불교경영과최고위과정 총동문회 등에서 1000여 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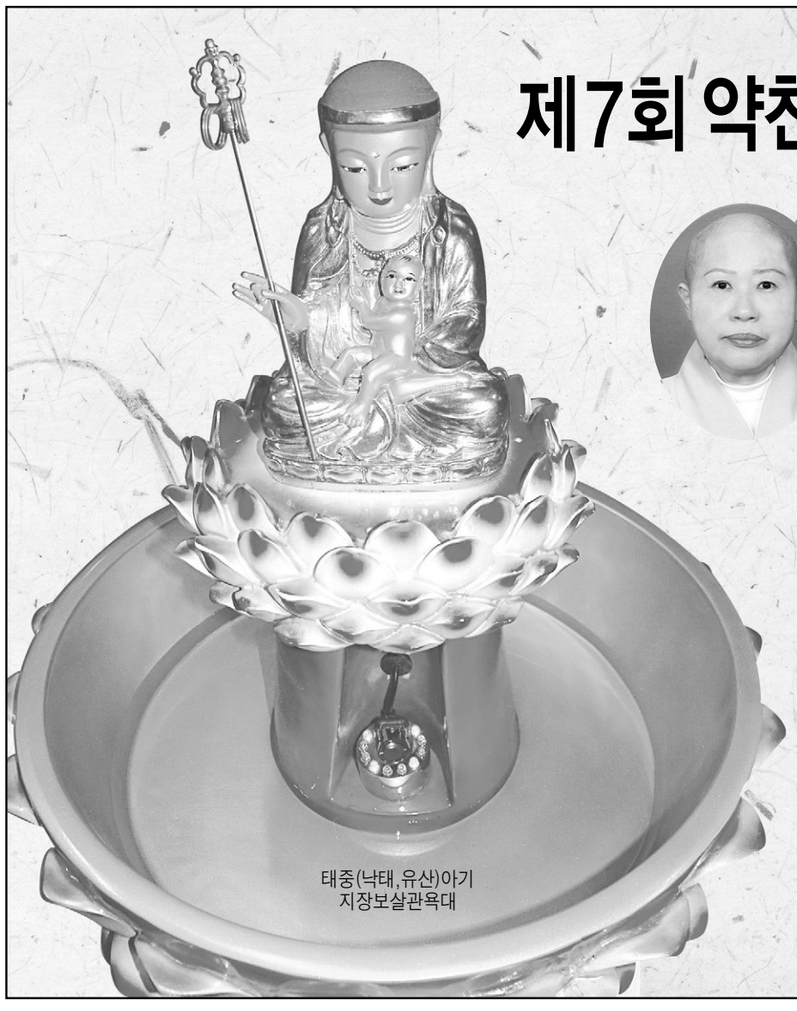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창립 30돌 기념법회에 참석한 원택, 지홍, 상훈, 현각, 지현 스님(왼쪽부터).

불광출판사 창립 30주년 및 월간 <불광> 35주년을 기념하고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법회가 10월 16일 서울 견지동 불광출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불교출판문화협회장)은 "광덕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출판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필자와 애독자를 비롯해 성원해 주신 사부대중의 사랑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 어린이 · 청소년 도서와 인문 · IT분야에도 좋은 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前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원택 스님과 불광법회 이형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제7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9년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8월 2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1일 (음, 8월 23일)
- 3재 : 양력 10월 25일(음, 9월 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2일 (음, 10월 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물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산에서 배운 것 세상에 회향해요"

"히말라야는 왜 나를 살려서 돌려보내준 것일까?"

결국 이 질문 하나였다. 1988년 에베레스트(8850m)를 오른 이후 2007년 5월 로체샤르(8400m)까지 8000m 이상의 16좌를 모두 오른 뒤에 남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질문은 새로운 삶의 행로를 보여줬다.

눈보라와 강풍 앞에서 목숨마저 던지고 모든 것을 '산' 혹은 '신'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길에 즐겁게 인생을 던진 산사나이 엄홍길.

그의 이름은 이제 산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하다. TV광고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의 얼굴은 산악인의 대표 아이콘이 됐다. 8000m 이상 16좌를 다 올랐다는 엄청난 기록 때문만은 아니다. 기록은 산악인 엄홍길의 성취일 뿐이고 기록 이후의 삶이 그를 진정한 산사나이로 만들고 있다.

장충동 파라다이스 빌딩 1층에 자리한 '엄홍길 휴먼재단'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에 읽은 그의 책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라>(2008, 마음의 숲)의 서문은 그의 진심을 잘 보여준다.

"히말라야는 왜 나를 살려서 돌려보내준 것일까? 문득 세상으로 나가 무엇인가를 하라고 돌려보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트만두를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받은 깊은 은혜를 산으로 되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히말라야의 산들과 신이 나를 살려서 돌려보낸 이유였습니다. 나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지적 장애인들, 그리고 예기치 않은 화재로 온 몸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와도 산에 올랐습니다. 서른여덟 번의 히말라야 산행에서 수도 없이 겪은 실패, 좌절, 실의, 도전, 희망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전이자 엄청난 변화이며 그것에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뻤습니다."

작년 휴먼재단을 설립하면서 펴낸 이 책에는 히말라야를 비롯한 큰 산들이 준 교훈을 알알이 담고 있다. 강연과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늘 분주한 그는 '산이 가르쳐 준 교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겸손 순응 초심 평상심 무욕 등의 단어들을 열거했다.

"산과 하나 되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산과 하나 된다는 것은 포용심과 협동심 그리고 하심과 평상심을 갖춘다는 것이지요. 자만과 정복심 그리고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는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산이 결코 용납하지 않거든요. 히말라야를 처음 도전할 때 저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봉 16좌를 다 오른 것은 몇 가지의 조건만 충족돼서 가능했던 게 아니다. 자신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고 산이 허락해야 하는 것이다. 산은 문명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산은 이미 존재 그 자체로서 커다란 교훈입니다. 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순일한 삶을 보면서 문명의 혜택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추해 보기도 합니다. 문명이 나쁘다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문명사회에 적응하면서 잃어버린 본래의 순수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엷어지면서 자연을 정복하기에 안간 힘을 씁니다. 그 대가로 엄청난 재해를 입으면서 말입니다. 지금 히말라야를 비롯한 큰 산들은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고 탐욕이 닿는 순간 자연은 망가집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인정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류는 엄청난 재앙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엄홍길 휴먼재단(이하 재단)'이다. 재단은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근원적으로 추구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과 사람의 공생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히말라야에 깃들어 살면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병마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이다. 지난 봄 네팔의 오지마을 팡보체에 초등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완공된다.

재단은 네팔의 14개 주에 최소한 1주에 하나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수도인 카트만두에는 두 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학교를 짓고 교보재를 지원하고 교사와 의료시설 학용품 장학금 등 포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재단은 또 '희망'을 주제로 하는 상설 프로그램들도 가동한다. '엄홍길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함께 산을 오르며 산의 교훈을 들려주고 희망을 전한다. 일대일 멘토링과 청소년들과 오지 탐사 프로그램 등도 희망을 전하는 엄홍길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제 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산을 오르는 일보다 산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재단을 모태로 해서 산에서 얻은 지혜를 사회에 회향하는 길은 참으로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동참할수록 더 값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봉산 계곡 절집이 많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는 동안 자연스럽게 절물이 들었다는 그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히말라야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회향하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어디 내 것이 있나요? 산은 더욱더욱 버리며 살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더욱더욱 채우려고 사는 것 같아요. 산을 내려와서 보면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산에 오르면 그곳에는 산이 없습니다. 나는 산의 일부이고 산의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산에서 경험하고 깨친 것들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로 회향되니 함께 산을 오르다 먼저 간 동지들에게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늘 그들을 호명하며 최선을 다 해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던 그가 시계를 봤다.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안해요. 제가 좀 바빠서…."

"아닙니다. 대장님이 바빠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걸요."

호탕하게 웃는 그의 얼굴, 다름 아닌 히말라야였다.

글=임연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엄홍길.

'엄홍길 휴먼재단' 통해 오지 어린이 지원활동

청소년들에 '희망' 주는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

"산은 하심과 상생의 지혜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



엄홍길 휴먼재단은 현재 네팔의 오지 팡보체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다. 기공식 기념사진. 사진제공=엄홍길 휴먼재단



미륵종 산림수계법회 승려단기 연수교육



10월 14일 미륵종 승려교육장에서 열린 단기 연수교육 입교식 모습.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 14일 사미(사미니)계 산림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승려 단기 연수교육을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미륵종 승려교육장에서 실시했다.

미륵종은 전국 각 말사에서 수행하던 예비승려를 매년 10월 소집, 10일간의 합동교육을 실시하며, 사미계 수계법회 봉행에 이어 단기 승려 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 사미(니)계를 득한 예비승려는 23명(사미15명 사미니8명)이다. 이들은 수계식후 미륵종 승려단기연수에 동참했다

경남 서부지사장 영민

가을 산사에 가면 멋과 맛이 있다

산사음악회 및 기도 · 정진하는 내실 갖춘 축제다양

산사에 쾌청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면 고요하던 절집이 흥겨운 음악과 웃음소리로 들썩이기 시작한다. 가을의 정점인 10월, 부산 · 경남지역 산사에서 불자와 일반시민들의 발길을 재촉하는 야단법석이 한창이다.

개원 40주년을 맞은 삼광사(주지 화산, 051-808-7111)는 개원 11월 1일 개원법회를 앞두고, 10월 31일 오후 전야행사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부산MBC와 공동주최로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가요와 클래식, 가곡을 넘나드는 음악회를 준비 중이다. 개원일인 11월 1일에는 종정스님 및 천태종단의 대덕 큰스님이 자리하는 기념법회가 봉행된다. 개원 6주년을 맞은 홍법사(주지 심산, 051-508-0345)는 11월 1일 기도와 함께 개산 6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1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대웅보전 일대에서 불공 및 6주년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12시 아미타대불 인연의 손 제막식,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등이 마련된다. 잔디마당에서는 이경순(영광문화예술원 관장) 연꽃사진 초대전이 열리고, 청풍루 주변에서는 국수, 부침개 등을 즉석에서 요리하는 먹거리 장터가 마련된다. 10월 24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예불까지 삼천 배 정진기도를 올릴 예정이다.



울산 월봉사에서 10월 11일 열린 제5회 문화예술축제 중 해수관세음보살 봉안식 모습.

내원정사(주지 정련, 051-809-1551)는 11월 17~21일 5일간 제3회 개산정진대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오후 1~4시 까지 하루 3시간씩 참선은 불교대학 강의실, 사경은 청람제, 1080배는 대적광전에서 각각 진행된다. 개산정진대법회 회향 익일인 22일에는 탑사와 위봉사, 송광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된다.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 052-251-4602)는 10월 11일 제5회 문화예술축제를 봉행했다.

'소외된 노인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해수관세음보살 점안 및 봉안. 선서화 전시회, 아나바다 장터, 바자회, 적문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회, 어린이 사생대회 및 백일장,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초청법문, 달빛다도회 시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열렸다. 특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달이랑 별이랑 사랑이랑' 산사음악회에는 주지 오심 스님의 법고 연주, 심진 스님, 이치현과 벗님들, 영조 등 인기가수가 출동해 축제의 흥겨움이 절정에 달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삼광사 한글학교

"한글배우며 젊음 되찾아요"

"사각사각, 탁!" 선생님이 판서를 마치고 분필을 내려놓자 학구열에 불타는 몇몇 학생들이 교탁 아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필기를 시작했다. 수능을 한달 여 앞둔 고3 수험생의 족집게 수업보다 훨씬 뜨거운 열기의 이곳은, 바로 삼광사 한글학교다.



삼광사 한글학교 학생들.

삼광사(주지 화산) 한글학교는 4년제로 운영된다. 한 학년에 평균 1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40~42주간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진행된다. 1학년 커리큘럼은 한글 자음과 모음, 맞춤법 위주로 진행되고, 2학년은 단편소설과 전래동화 위주로 읽고 쓰기, 3학년은 삼귀의례와 사홍서원,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부모은중경> <금강경> 등 경전을 공부한다. 최고학년인 4학년은 사성례, 무상계, 장엄염불, 영가법문 등 고난이도의 경전과 여러 문학작품을 통해 한글을 마스터하게 된다.

보통의 학교와 똑같이 여름과 겨울 2차례 방학하고, 봄과 가을에는 소풍 겸 수학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당당히 선출된 반장도 있고, 방과 후 교실을 청소하는 당번도 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른 열외란 없다. 쌩쌩한 65세 박순이 반장도, 80세 최고령 김금순 할머니도 공평하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틀림없이 교실을 깨끗이 쓸고 닦는다.

이날 당번은 2분단, 최고령 김금순 할머니의 차례가 돌아왔다. 얼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가방을 둘러매고 청소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개구쟁이 중학생 같다.

김금순 할머니는 "그동안에는 그냥 기도하러 올라오던 중에 내가 줄줄 외우는 불경을 읽고 쓸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며 "책상에 앉아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어느새 글자를 잘 쓰는 내가 신기하다"고 말했다.

반면, 2시간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을 알리는 차임벨은 없다. 오전 10시 1교시를 시작하고, 10시 40~50분쯤 되면, 선생님이 칠판에 오늘의 받아쓰기 10문항을 판서한다. 이때부터 2교시 시작 전까지 약 20분간 자율적으로 쉬면서 받아쓰기 대비 예습을 하고 있다. 물론 받아쓰기는 문제와 정답이 똑같아,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치는 셈이다.

삼광사는 삼광한글학술상과 대학생 논문대회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월 9일 제563회 한글날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주지 화산 스님은 허남식 부산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정오, 수업이 끝나자 한껏 곱게 차려입은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손잡고 부리나케 교실을 빠져나간다. 이들을 붙잡고 어딜 그리 바삐 가시냐고 물었더니 '좋은데' '데이트하러' '맛있는 것 먹으러' 간다며 10대 여고생들처럼 깨르르 웃었다. 삼광사 한글학교는 70평생 살며 글을 몰라 당한 설움을 씻어주는 것 이상으로, 1920~1940년대 암울했던 현대사에 빼앗긴 학창시절까지 되돌려줬다.

박지원 기자

"한국 불교 새 리더십 구축"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창립3주년 기념법회



박수관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은 1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창립3주년 기념법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단체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모두의 열성적인 개척정신과 헌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 3년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부터 불교세미나와 대중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교계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불교의 새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스님과 범어사 전 강주 지오 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과 사무총장 자인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및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해 3주년을 축하했다.

지난 3년간 포럼이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하며 각오를 다진 행사에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 스님과 범어사 前 강주 지오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400여 회원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사명 대사 추모 행사 잇따라

표충사, 추계향사 봉행 · 부산 추모광장 조성 중



10월 14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사명대사 추모대법회에서 스님들이 헌화하는 모습.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들과 수탈당했던 통도사 적멸보궁의 진신사리 등 수많은 성보를 되찾아 온 사명 대사의 열반 제399주기 기일을 맞아 부산과 고향인 밀양 등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0월 14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사명대사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불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속세를 벗어나 산중에 은거한 듯 보이지만 항상 국가와 민족 속에 함께 하며 고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함께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친 수고한 호국정신을 잊지 말자"고 설했다.

현재 연합회는 부산시로부터 1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9월 18일 호국광장 조성 성역화사업 기공식을 봉행하고, 2010년 3월 5일 완공을 목표로 사명 대사 호국광장 조성 성역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는 19일 호국대성 사명 대사 추계 향사를 봉행했다. 사명 대사를 비롯해 풍전등화의 국난 중에 나라를 구한 서산 대사와 기허 대사께 분향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여러 호국충절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번 추계향사는 1477년 조선시대부터 해마다 이어져 532회 째를 맞았다. 한편, 표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 대사가 머물며 승병을 훈련시켜 전쟁에 대비했던 호국성지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수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공불련 창립 9주년

템플스테이 · 법회 봉행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창립 9주년을 맞아 10월 10~11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 및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첫날인 10일 저녁예불 및 입제식을 시작으로 적멸보궁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정진기도, 대의원 총회, 익일 새벽 4시부터 부도탑에서 금강계단 삼보일배, 묵언 숲길걷기, 서운암 포행순례, 제9주년 기념법회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하복동 회장은 "이곳에 머무는 1박2일 시간이 짧지만, 부처님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적멸보궁 아름다운 산사에서 불법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대우스님 禪詩
그대 그리운 날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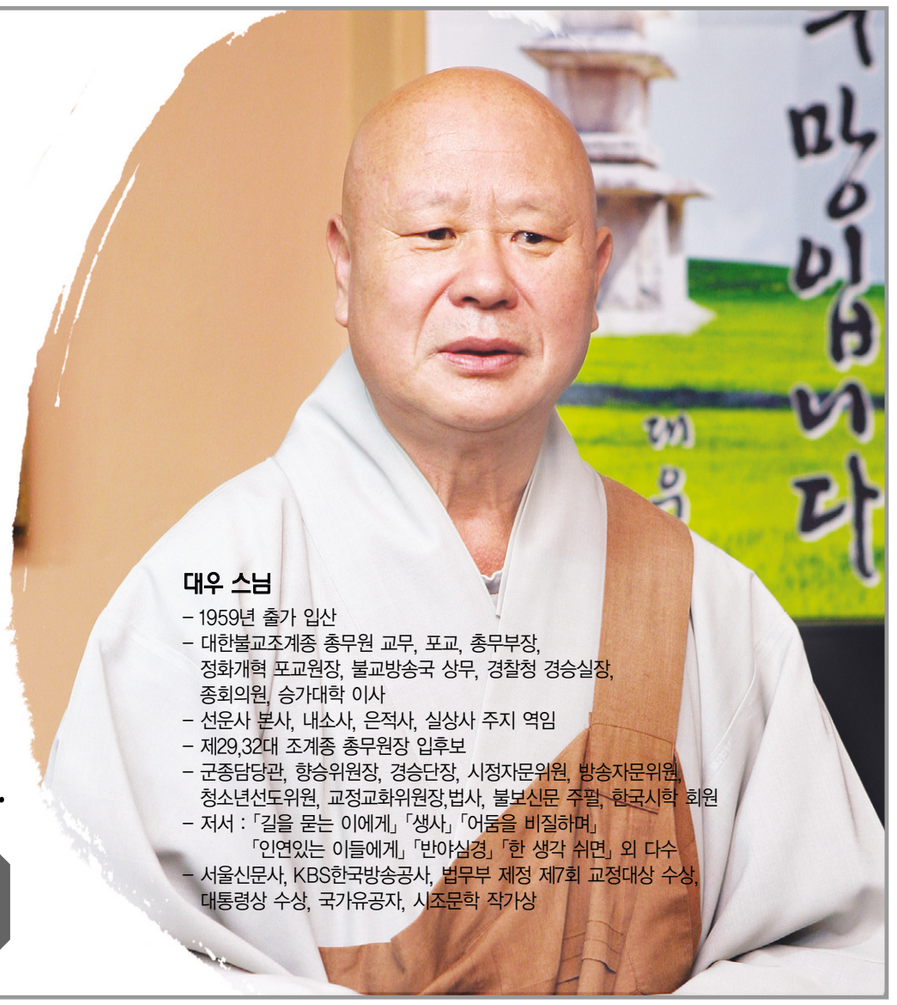
법보시 문의 받습니다

어느 가을날
詩人 대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뜨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 주었네.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우주의 주인
백련참회굴 백련선원 대우 합장 010-2625-3307



대우 스님
- 1959년 출가 입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총무부장, 정화개혁 포교원장, 불교방송국 상무, 경찰청 경승실장, 종회의원, 승가대학 이사
- 선운사 본사, 내소사, 은적사, 실상사 주지 역임
- 제29,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입후보
- 군종담당관, 향승위원장, 경승단장, 시정자문위원, 방송자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교정교화위원장,법사, 불보신문 주필, 한국시학 회원
- 저서 : 「길을 묻는 이에게」「생사」「어둠을 비질하며」 「인연있는 이들에게」「반야심경」「한 생각 쉬면」 외 다수
-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 법무부 제정 제7회 교정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유공자, 시조문학 작가상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익산불교신도聯, 어려운 이웃에 '자비의 연탄' 전달

다가올 겨울에 난방비 걱정으로 한숨만 내쉬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익산불자들이 연탄을 통해 자비를 실천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익산지역 불자들의 모임인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는 10월 11일 익산시 거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 가정 등 불우이웃에게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행사에서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우성 · 백운사 주지)를 비롯한 스님과 불자 60여 명은 이날 54가구에 1만800장의 연탄(700만원 상당)을 직접 각 가정에 배달했다.

우성 스님은 "지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하나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흐뭇하다"며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중근 회장은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중근 회장(왼쪽)이 자비의 연탄을 나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름다운 사찰 이어나가자"

10일, 남원 실상사 불사십조 선언식 개최

불사(佛事)에 불교계 세계관과 시대정신을 담아 사찰 고유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가 10월 10일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0가지 불사의 실천덕목을 담은 '실상사 선언 – 불사십조' 선포식을 개최했다.


10월 10일 실상사 불사십조 선포식후 문화행사가 열렸다.

이날 선포된 불사십조(佛事十條)는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 △생명살림의 불사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 △대중적 협동의 불사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지속가능한 생태적 불사이다.

실상사는 지난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바람직한 도량불사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절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 그리고 제안' '불사란 무엇인가', '불사에서 담아야 하는 21세기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비롯해 '작금에 이루어지는 불사는 종교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등 불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왔다.

불사십조는 도량불사 세미나에서 축적된 대안들을 정기용 건축가의 제안으로 제정하게 됐다.

선포식은 남원시 산내면사무소에서 실상사에 이르는 길을 따라 진행된 길놀이로 시작됐다. 향후 실상사 불사에 사용될 나무를 용재림(用材林)으로 정하고 고하는 의식과 지리산 천왕봉쪽 농로에서 보광전 앞까지 이어지는 기원춤 의식이 펼쳐졌다.

한편, 실상사 불사십조 선언에는 불교계는 물론 학계 종교계, 마을 주민등 각계 각처에서 1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추억의 템플스테이 개최

10~11일 음악회 · 풍물장터도 열려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간 대중들이 다시 금산사에 모였다.


10월 10~11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추억의 템플스테이 모습.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10월 10~11일 '앉아봐라 꽃밭이다'를 주제로 제3회 추억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던 외국인 등 3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경내 곳곳에 전시된 템플스테이 사진과 다양한 한지 등이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사찰음식의 시연과 시식이 이어졌다. 또, 동남풍의 사물놀이 비나리 공연, 대금연주가 이창선씨의 연주와 현대악기와 어우러진 퓨전국악, 판소리, 비보이 공연, 꽃반지 끼고의 가수 은희씨의 공연으로 절정을 이뤘다.

이어 일감 스님이 진행하는 산사토크와 주지스님의 법문, 숲속명상 등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들이 자기 고장의 특산품을 한가지씩 갖고와 판매하는 풍물장터가 열려 많은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가을 산사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감 스님은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던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씩 모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힘이 되어 주는 장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자들의 첫 출가의식 열려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재식

태고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행자들의 첫 출가의식이 열렸다.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산림 모습.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0월 13일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에서 '제34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태고종 재정부원장 화경 스님, 경담 스님, 상명 스님(선암사 선원장), 수진 스님(담양 용화수 주지)을 비롯해 노완규 순천시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의식, 임명장 수여, 행자선서, 환영사, 치사, 축사, 교수 · 습의사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화경 스님은 치사를 통해 "출가하는 120명 행자는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종단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불법을 배우는 과정인 신 · 해 · 행 · 증의 과정을 잘 배우고 닦아, 올바른 수행자의 길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마음 속의 무진번뇌를 극복하고 부지런히 정진해 인천의 스승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가한 120명의 행자는 30일까지 매일 조석예불을 비롯한 불교예절 습의와 교리, 종단역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사찰탐방, 1보 1배 등을 공부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무등산 증심사 오백나한 대제 개최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10월 10일 오백전에서 '기축년 오백나한 대재'의 회향과 문화행사를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9월 19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된 '오백나한 대재 회향식'에는 부처님과 10대제자, 16성중, 오백나한전에 여섯가지 공양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전통불교영산회 스님들의 오백나한 불공과 기도, 범패와 축원이 이어졌다.

지장 스님은 "마음이든 물건이든 비우면 그 비운만큼 다시 채워진다"며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더 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말했다.

법문에 이어 진행된 문화공연에는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의 판소리와 국악, 타악연주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오백전은 지방유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정토회 광주법당 총무 임지영

"부처님 만난 것 너무 행복해요"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수년간 북한 어린이돕기를 비롯해 제3세계 어린이를 위한 구호활동, 인도 둥게스와리, 필리핀 민다나오 등에서 교육과 주민환경개조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세계로 뻗치는 법륜 스님의 천수천안 자비의 손길을 빛고을 광주에도 드리우는 이가 있다. 바로 임지영 정토회 광주법당 총무(사진)다.



정토회 지역법당 총무는 일반단체 총무와는 달리 법당을 책임지고 이끄는 임무를 맡는다.

임지영 총무는 매일 새벽 5시에 기도방에 앉아 새벽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새벽기도 후 가정집의 아침일과를 마친 그녀의 발걸음은 광주법당을 향한다. 집이 있는 전남 화순에서 법당까지는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매일 버스를 타고 법당에 도착하면 오전 10시. 정리하고 법회준비하고, 법회가 끝나고 다시 정리하면, 오후 4시. 그리고 다시 집으로. 하루하루 바쁘고 고정된 일과의 연속이지만 임 총무는 부처님 일을 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임지영 총무의 불교인연은 등산을 하며 시작됐다.

"화순의 조그마한 선정암이라는 암자였어요. 산행 중 우연히 학담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불연(佛緣)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 임 총무는 호남불교대학에 다니며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포교사가 돼 포교활동도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 20대부터 고민하던 의문점은 항상 남아 있었다.

그런 그에게 법륜 스님의 책은 올바른 세계관을 열어주는 큰 계기가 됐다. 연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 인간관이었다.

2002년 겨울, 정토회의 인도성지순례에 동참한 임 총무는 그곳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정토회에 입문했다. 물 만난 고기처럼, 그녀의 활동은 맹렬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는 어느덧 정토행자가 돼 정토회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법당을 이끌고 있다.

광주법당은 이제 출발단계이지만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 주말이면 회원들은 저마다 홍보물과 모금함을 들고 거리에 나선다.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캠페인이다. 임지영 총무는 광주에서 '열린아카데미'와 같은 통일 관련 일을 하고 싶다. (062) 511-899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禪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용성 학명 만공
한암 만암 만해 효봉
혜암 동산 경봉 고암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무엇이 되려는 욕망조차 내려놓는 것이 '수행'

상좌불교한국명상원

"눈꺼풀을 살며시 내리며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그 마음을 손끝으로, 다시 엉덩이로, 다시 허리로 옮겨보세요. 무엇을 느끼나요. 느끼는 이 마음, 느끼고자 하는 이 마음, 마음의 작용에 대해 알아차리세요."


토요일 열린 12연기반에 참석한 수행자들이 입정에 들고 있다.

몸 · 느낌 · 마음 · 법 보며 근심 · 걱정 벗어나
나 자신도 내가 아니니 성낼 곳도 기뻐할 곳도 없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강남구 논현동 청호불교회관에 자리한 상좌불교한국명상원(이사장 묘원, 구 한국명상원). 명상원에는 20여 수행자가 정진 중이었다. '마세라티', '페라리' 등 수입차 전시장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공간의 정진열기는 유명 스포츠 카의 질주하는 엔진만큼 뜨거웠다. 인근 빌딩숲의 마천루와 법복을 입은 수행자들이 묘한 대비를 이뤘다.

토요일 진행되는 명상원 수행은 직장인을 위한 수행시간으로 마하시 사야도의 12연기 법문을 교재로 한 이론 수업과 경행, 좌선, 그리고 면담 순으로 진행됐다.

묘원 법사는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방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을 떠나 6년간 고행한 뒤 마침내 선업의 조건이 성숙돼 먼저 12연기를 통찰하고 위빠사나를 수행해 깨달음을 얻었다"며 12연기를 결부시킨 위빠사나 수행을 설명해 나갔다.

묘원 법사는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외에 마음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지도했다.

"수행하려는 것도 감각적 욕망의 갈애입니다. 무엇이 되려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이러한 욕망 조차 극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8정도와 사념처, 경행 등 수행 전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위빠사나 수행은 '알아차림'으로 어리석음을 밝히고, 반복되는 수행을 통한 지혜로 열반에 까지 이르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몸 · 느낌 · 마음 · 법의 4념처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세간에 얽힌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요체입니다. '삼빠자나(知, 正知, sampajana)'와 '사띠(念, sati)'로 몸과 느낌을 따라가며 지켜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행

이론 강의가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후 참가자들은 일어나 경행을 시작했다. 경행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발바닥과 발, 다리 그리고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리는데 집중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빵과 다과를 즐기며 수행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기자를 비롯해 처음 찾은 이에게 먼저 배운 도반들은 친절한 설명으로 후배들을 이끌었다.

한 도반이 기자에게 경행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행위도 발바닥 뗌의 시작, 뗌의 끝, 앞으로 나감의 시작, 나감의 끝, 바닥에 닿음의 시작, 닿음의 끝 등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몸의 행위에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아님을 느끼고, 마음이 느끼는 것을 나눠 보죠. 일종의 나 자신을 대상화 시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옵니다. 외부에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화남 등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대상화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가. 이것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림'으로 통찰하게 됩니다."

"물이 차면 넘치듯 자기 내면의 충만함이 넘치면 다른 이에게 까지 펼쳐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연기에 따라 타인도 자연스럽게 보살피게 됩니다."

경행에 이어 참가자들은 자리를 잡고 좌선에 들었다.

#좌선

기자가 좋아하는 두산과 SK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어서 일까.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 취재가 있어서 일까. 아니면 수행의 '수'(修)도 모르는 기자의 마음 때문일까. 앉고 나서 불과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허리와 엉덩이가 쑤셔왔다.

"좌선을 하면 평상시 생활하는 자세가 아니니 아픕니다. 조용한 곳에서 앉아 좌선을 하면 몽상과 졸음이 쏟아지고, 온갖 곳이 아픕니다. 몽상, 졸음이 오고 아프라고 좌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시 최적의 상태로 몽상과 졸음, 아픔에 쓰이는 그 마음을 보세요."

묘원 지도법사의 설명은 이어졌다.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보면 통증이 하나가 아니고, 통증을 보는 마음도 하나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苦)를 대하는 마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고'를 억누르는 것, '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고'의 뿌리를 지켜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억누르고 대체하는 것은 일시적일뿐 한계가 있습니다. '요놈이 이렇구나' 알아차리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목적을 가지고 들어서면 그 목적에 가려 뿌리를 보기 힘들다는 '알아차림'. 기사를 쓰기 위한 좌선 때문에 번뇌 망상이 일었다. 하지만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도에 따라 들숨과 날숨에 집중했다.

'숨은 하나가 아니다. 들숨의 시작과 끝, 허파의 포만으로 오는 고통, 날숨이 시작되며 생기는 기쁨과 줄어드는 고통, 날숨의 끝에 오는 공백과 그로 인한 또 다른 기쁨과 고통, 다시 들숨이 시작된다.'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를 대상화해 바라보니 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지를 느끼게 됐다. 그렇다고 숨 쉬지 않을 수도 없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우리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

#두산 vs SK PO전에 대한 망상

경행과 좌선 사이 쉬는 시간 동안 2009프로야구 PO의 결과가 궁금했다. 기자가 팬으로 있는 두산은 2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숙명의 라이벌인 SK에 진 바 있다. 명상원에 들어오기 전 1:1동점을 만든 뒤 연장전에 돌입했기에 그 결과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쉬는 시간 동안 문자로 친구에게 결과를 물어봤다.

'연장 10회 3:1로 SK 승'

문자를 보자 마음이 불편했다. 특히 2007년,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확률이 80%가 넘는 원정 2연승을 먼저 해놓고 내리 홈에서 4연패해 우승을 놓쳤고, 2008년 코리안 시리즈에도 원정 1승을 먼저 해놓고 4연패로 주저 앉은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야구장에서 응원하며 느꼈던 좌절감과 울분이 쌓였다. 두산 사령탑인 김경문 감독과 적시타를 때려내지 못한 선수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다. 원망의 마음이 생기자 몸도 불편했다. 고요함 자체가 어색했다.

이런 울분 속에 문득 '내 마음이 왜 이럴까'는 생각이 떠올랐다. 문자를 보기 전과 본 후 마음상태에 대해 생각 해보았다.

보기 전의 흥분과 기대감, 보면서 느낀 좌절감, 그 이후 느낀 울분. '분명 나 자신은 문자를 보기 전 기대감과 걱정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문자를 본 뒤 기대감이 사라지며 내가 느끼게 된 이 울분은 어디에서 오며 왜 나온 것일까. 다른 누구를 원망하는 이 마음은 또 무엇인가.'

곰곰이 마음을 되짚자 두산에 대한 울분은 '대리만족'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승부욕'에서 나왔음을 알게됐다. 선수와 감독은 분명 최선을 다했다. 나 이외의 다른 대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었던 것이다. '승부욕'이란 나의 욕망과 집착을 비워가는 수행을 통해 나를 극복하는 데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외부적 요인을 변화시킴으로서 바꾸는 것은 헛된 마음씀이었다.

#인터뷰

이어진 인터뷰는 나의 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줬다.

"좌선이 안 돼자, 예전에 잘 된 것들이 떠오르며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그 조건은 그때뿐입니다. 과거 잘 된 것을 끄집어내 괴로울 필요가 없고, 과거 잘못된 것을 끄집어 내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며 수행이 안되는 것에 고뇌하지 마십시오. 50분 졸다 10분 수행이 되면 앞의 50분은 10분을 위해 몸의 피로를 던 연금의 순간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느끼세요."

여러 참가자와 지도법사의 면담을 들으며 두산의 패배에 대한 쓰라린 마음은 잊혀졌다. 두산은 두산이고 나는 나다. 좌선을 통해 가만 보면 나 자신도 내가 아니니 성낼 곳도 기뻐할 곳도 없는 것이었다. '알음알이'를 버리는 불교 수행에서 좋고 나쁜 방법이 따로 있을까.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두산은 PO에서 원정 2연승 후 홈 3연패 떨어졌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상좌불교명상원은?

2003년 '한국위빠사나선원'으로 출발한 '상좌불교한국명상원'(지도법사 묘원)은 위빠사나 등 상좌부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기금마련으로 운영된다. 2009년 8월 5일 종교법인 허가를 취득한 한국명상원은 현재 경기도 가평군 유명산 '명상마을 행복한 숲'에 '한국 명상원 집중 수행처'를 건립 중에 있다.

매주 월,수,목요일 오후 2시에는 수행반이 열리며 월요일 7시 대념처경반, 수요일 7시 초전법륜경반, 토요일 6시 12연기반 등 직장인을 위한 수행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02)512-5258

대한불교천태종 서울 관문사
봉 상월 원각 대조사 옥존상 점안 대법회 축
모시는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관문사에서는 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
옥존상을 봉안하고 오는 10월 25일 관문사 대불보전에서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점안식 : 불기 2553(2009)년 10월 25일(일) 오전 9시 30분
◈ 성보박물관 기와 특별전 개관식 / 도량수호 금강신장 종기 제막식 : 오전 9시

문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대한불교천태종 관 문 사
전화 02)3460-5300 www.gwanmunsa.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7

부단한 정진으로 복밭 가꾸라

[원문]
사향사과조원성(四向四果早圓成)
삼명육통실구족(三明六通悉具足)
밀승아불수교촉(密承我佛受敎囑)
주세항위진복전(住世恒爲眞福田)
–금오산 향천사 나한전

[번역]
사향(四向) 사과(四果)를 속히 잘 이루고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모두 다 갖추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손히 모두 받아
이 세상에 참된 복전을 만들어서 오래 살고자 하네.

[선해(禪解)]
어느 날인가. 나는 법회 중에 한 불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지식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아니 대답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물음은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난 물음일 수도 있고 허무맹랑한 물음, 아주 쉬운 물음일 수도 있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세상에 이 따위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평범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 솔직히 고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불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우리의 삶은 온 것을 모르고 간 곳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 태어났으며 그리고 늙어 병을 얻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출가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원인인 생로병사(生老病死)이다.

이에 대해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인간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좁고 어두운 공간, 탁한 물속에 갇혀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면 비로소 지상 아래로 밀어내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 때 거대한 압착기에 눌리는 나무 조각과 같은 고통, 기름을 짜내는 참깨가 된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 어머니의 몸밖에 나온 후에도 고통은 계속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주어도 마치 가시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것이 바로 탄생의 고통이다."

그는 이처럼 인간의 탄생을 적절하게 비유했다. 하지만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다. 성장하면서 더한 고통을 당한다. 마침내 탄생한 아기는 점점 자라서 등은 굽어지고 백발이 되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이 된다. 눈은 시력을 잃어 희미하게 되고 귀는 어두워 잘 들리지 않는다. 입은 이가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고 몸은 기력이 없어져 걷기 조차 힘들어진다. 고통은 그 뿐만이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얻는 병마가 있다. 암이나. 혈우병, 고혈압, 당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병(病) 속에 인간은 갇혀 산다. 어디 그 뿐인가? 마음이 지어내는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정신적 충격에 쌓여 온전한 자기 자신을 잃고 헤맨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을 고통 속에서 구제하기 위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말이다.

부처님이 인도 땅에 태어나 인간으로서 참으로 희유하고 어려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 육도윤회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는 만 중생을 위해 바른 법의 수레인 법륜(法輪)를 굴리심으로써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셨던 것이다. 그리해 인간이 가진 모든 번뇌와 슬픔, 갈애와 분노, 어리석음과 죽음, 전쟁과 공포, 주림과 증오의 굴레를 벗고 깨달음이라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다.

오늘의 주련 이야기는 금오산 향천사이다. 옛날 백제의 승려 의각 대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1,035위의 불상을 배에 싣고 백제 땅에 도착했으나 이들 부처님을 모실 알맞은 절을 잡지 못해 몇 달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 안에서 치는 종소리를 듣고 나타난 황금색 까마귀 1쌍에 의해 절터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당나라에서 가져와 안치했던 3053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불상 가운데 1516불만이 남아 있다. 극락전 안에는 조선시대의 삼존불상이 봉안돼 있는데, 주불은 아미타여래좌상이며,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협시불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멸운에 의해 중건됐다. 극락전, 나한전, 천불전과 더불어 많은 요사채를 갖추고 있다. 천불전(충남문화재자료 173)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의각이 옥돌로 조성한 높이 15㎝ 정도의 소불이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안치돼 있다.

극락전 앞에는 자연석을 가공해 만든 당간지주가 있고, 그 옆 나한전 앞에 9층석탑(충남문화재자료 174)이 있다. 천불전 서쪽에 부도 2기(충남문화재자료 179)가 있는데, 의각 대사 부도 1기와,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조직해 금산전투에 참가했던 멸운대사의 부도 1기로, 의각 부도는 조각이 정교하며 신라나 고려 때 것과는 전혀 다른 작법을 보여준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향사과조원성 삼명육통실구족: 사향(四向) 사과(四果)를 속히 잘 이루고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모두 다 갖추었다.'

사향(四向)은 소승불교에서 수도해 깨달음을 얻어 들어가는 4가지 품계이며 수행의 가장 기초 단계인 견도향(見道向), 불교의 근본 진리를 명료하게 보는 눈을 얻는 단계인 정류향(頂流向), 욕계의 모든 혹을 끊는 단계인 일래향(一來向), 욕계 9품의 수혹 가운데 7, 8품은 끊었지만 아직 1품이 남아 있는 단계 불환향(不還向)을 뜻한다.

사과(四果)는 소승불교의 성문들이 탐진치의 삼독을 끊고 위없는 성도에 들어가 부처가 되는 4단계 깨달음의 결과를 말한다.

삼명(三明)은 숙명통(宿命通) 천안통(天眼通) 누진통(漏盡通) 곧 과거의 업상(業相)과 인연을 알아내 내세의 상을 명확히 하며 현재의 고상(苦相)을 깨달아 번뇌를 끊어 버림을 말하고 육통은 천안통(天眼통), 천이통(天耳通), 타심통(他心通), 숙명통(宿命通), 신족통(神足通), 누진통(漏盡通)이다.

말하자면 사향 사과와 삼명육통을 다 구족하기 위해 정진하라는 경구(警句)이다.

'밀승아불수교촉 주세항위진복전: 부처님 가르침을 공손히 모두 받아 이 세상에 참된 복전을 만들어서 오래 살고자하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이야 말로 복전(福田)을 구하는 길이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물론 중생들이 이를 따르기란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필히 부처님의 시은(施恩)을 받게 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부대중들이 평생 따라야 할 삶임을 명심해야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성불의 기본
매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살면 깨침의 단계 이르러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7

애욕은 본래 공적한 것

[원문]
若見自心是佛 不在剃除鬚髮 白衣亦是佛. 若不見性 剃除鬚髮亦是外道. 問曰 白衣有妻子 慾不除憑何得成佛. 答曰 只言見性 不言慾.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아는 것은 머리와 수염을 깎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를 깍지 않은 속인이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라도 도에서는 벗어난 것이니라."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처자가 있어서 음욕을 없애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달마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자기의 성품만 보라고 말하였지, 애욕은 말하지 않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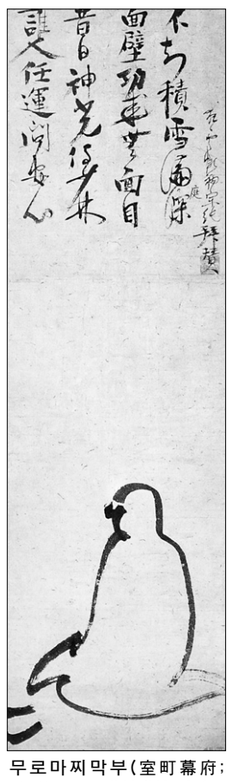
[해설]
재가자 분들도 성품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하면 견성(見性)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성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장좌불와(長坐不臥)를 몇 십년 하고 오랫동안 염불을 하고 계율을 지켜도 성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고 하는 수행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더라도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정진한다면 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놈이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장보살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는 그대로 하나이며 일체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一卽一切 多卽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우주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을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色卽是空 空卽是色)"라고 말합니다. 공(空)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색(色)은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곧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장보살을 찾든 아미타불을 찾든 그 실상(實相)에서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찾아도 찾는 그 놈이 곧 우주와 하나라는 확신을 갖고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 겁니다. '관음', '관음'을 빨리 염하면 틈이 안 생겨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품만 보라고 말하였지, 애욕은 말하지 않았느니라.'



무로마찌막부(室町幕府; 1338~1573년)시대의 달마도 (日, 林原미술관 소장)

한 제자가 달마 스님께 "처자가 있어서 음욕을 끊을 수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자기의 성품만 보라고 말하였지, 애욕은 말하지 않았느니라"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애욕은 무시이래 익혀온 습(習)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만 보고 우주 실상을 깨치게 되면 실상에선 경계가 다 끊어지므로 그런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성품을 보기만 하면 애욕은 본래 공적한 것이라 구태여 없애려 할 것도 아니고 즐겨 빠질 것도 아니니라.'

우주의 근본 성품자리는 물질이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 뜻을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법신부처님' 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미타부처님' 이라 부르기도 하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온갖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은 바로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반야 실상자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일러준 것이고 본래 성품자리는 스스로 체험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불성이니, 법성이니, 진공(眞空)이니 온갖 명사를 붙여놨지만 문자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와 하나가 됐으면 애욕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잠시 잠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끊어지게 된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지만 다 커서 부모 속을 썩이게 되면 온갖 원망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양이 없고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품만 깨닫기 위한 정진만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설사 습이 남아있더라도 불성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구부정(不垢不淨)'이란 말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 성품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다만 그 자리를 '청정 불성'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을 때 "일체가 마음에 달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체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하나의 성품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근본 실상인 하나의 성품자리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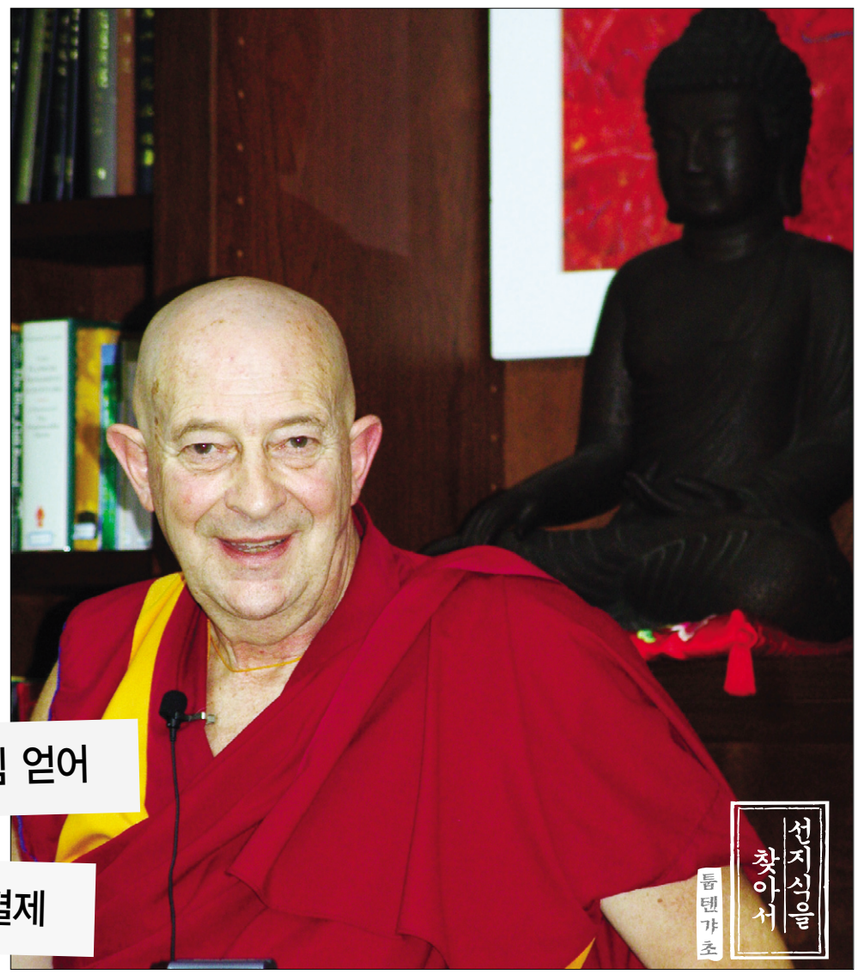


‘어떻게 살 것인가?’ … 지혜 자비 키우는 수행해야

툽텐 갸초 스님

인더스 강 여행 후 대자연이 준 가르침으로 내면의 힘 얻어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 의사’ 출간… 3년간 무문관 결제



호주 출신의 젊은 의사였던 에이드리언 펠트만(Adrian Roy Feldmann)은 젊은 날을 히피로서 자유분방하게 보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했지만 어떤 종교에도 흥미가 없었다. 이십대 후반에 그는 갑자기 의사 일을 접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찾기 위해 러시아 신비주의자 구제프와 중국의 노자, 장자 사상에 의지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을 떠난다.

펠트만은 아프가니스탄의 시골을 여행하며 친구들과 환각제와 히피 음악, 철학적 토론을 즐겼지만, 얼마 안 있어 그런 삶에서도 회의를 느낀다. 자유로움과 순간적인 쾌락은 있었지만, 참된 평화와 행복이 아님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펠트만은 세 친구와 함께 작은 돛단배에 몸을 맡기고서, 삶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맡기라는 노자의 도(道)를 좇아 장장 1000km에 달하는 인더스 강을 여행한다. 이 여행을 마칠 즈음, 대자연에서 얻은 가르침으로 내면의 힘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다시 의사의 일상으로 돌아간 펠트만은, 그러나 예상 밖의 좌절을 맛본다. 히피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동체 삶을 도모해 보기도 하지만 음악과 마약, 자유로운 삶도 해답이 아님을 깨닫고서, 다시 아시아를 여행하다가 1974년 3월, 마침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코판사원에서 불교 명상 강좌에 참석하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 문제의 원인에 대해 뜻 깊은 해답을 주는 동시에 개인이 가진 고뇌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명상법을 포함한 심리학 체계로서의 불교에 감명을 받게 된다.

불교를 ‘원시적인 히말라야 미신’쯤으로 치부하던 펠트만에게 붓다의 가르침은 의사로서 고민하던 문제인, 감정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처방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르마(法)라는 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발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했다. 개인과 세상의 괴로움을 없애는 탁월한 방편으로서 붓다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그는 결혼생활에 대한 갈망을 접고 1975년 툽텐 갸초(Thubten Gyatso)라는 법명을 받고 티베트 스님이 됐다.

갸초 스님은 네팔과 인도에서 네 해 동안 안거수행을 한 후, 1980년대에 프랑스에 티베트 불교사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불교교육과 명상 지도를 더 받았다. 그 뒤로 호주와 대만, 홍콩, 몽골 등지에 머물면서 세계 곳곳에서 불법을 전해왔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오스트레일리아 캥거루 섬에 홀로 안거하며 무문관 3년 결제를 무사히 회향해 수행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히피’에서 ‘스님’으로 탈바꿈하기까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 여정을 쓴 책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 의사(원제: A Leaf in the Wind-A Life’s Journey)>(호미 刊)의 저자로 서구사회에 널리 알려진 갸초 스님이 10월 11일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 13일 서울 조계사 내 갤러리 ‘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스님은 당신의 수행체험을 통해 얻은 참다운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스님은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하셨는데, 달라이 라마처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2000년 첫 방한 당시 나흘간 도심 안거에 참여하면서 선 수행에 대한 한국 스님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너그럽고 자연친화적이며 예술적인 감각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곳이 바로 정토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삼촌이 호주 군인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인연이 있습니다. 삼촌의 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죠. 그리고 삼촌이 암에 걸렸을 때 한국의 참선 수행을 통해 병을 치유하고, 이 이야기를 호주에서 책으로 펴내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9년전 몽골에서 간단미술대학 김선종 교수와 김인희씨를 만나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 의사>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하게 된 인연이 깊습니다.”

–티베트불교와 한국불교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티베트불교는 우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제거한 후 명상을 통해 옳은 생각까지도 다 비우는 수행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발해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도록 합니다. 한국불교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승불교의 지향점에서 양국 불교는 결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무문관 결제를 마치셨는데,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집중이 어려웠지만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으로 나중에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정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의 방향을 더욱 뚜렷이 할 수 있게 된 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이번 3년 안거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문관에서 나오기가 싫고 계속 정진하고 싶다는 점이었습니다. (웃음) 어떤 도반들은 대승의 수행자가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한 소승의 수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3년 결제의 정진력으로 몽골불교 포교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으니 제가 소승의 수행자가 아닌 점은 분명합니다. (웃음)”

–올해 3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불교회관에서 상임법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1999년 스승님이 몽골에 갔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교가 약해져, 몽골 불자들이 불교센터 건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몽골에는 선교사들이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고, 불교는 미신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불교를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임법사를 맡은 것은 그 때의 요청에 응해서 몽골불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몽골불교는 티베트불교와 같은 전통이어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1970년 히피 세대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앞날이 밝은 의사의 길을 버리고 히피로 떠돌다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까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랑의 최종 종착지를 왜 티베트로 택하셨나요?

“남들은 히피라고 불렀지만 머리가 좀 길었던 것 말고는 우리는 멀쩡했습니다. (웃음) 베트남전쟁이 한창인 당시,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비롯해 선생님, 정치인, 군인 등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엉망진창인 사회를 개선할 해법을 찾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히 서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동양의 정신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 역시 그러한 이유로 여행을 떠났고, 인연법에 의해 티베트불교와 두 분의 스승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불교가 매우 과학적인 것이 호기심을 자극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의사는 몸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은 ‘혼돈(mess)’ 상태인 경우가 많았기에, 나는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히피 세대는 물론 많은 서구인들이 불교에 열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리가 아니었다면 서구사회에 법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도 정신적으로 공허해지는 반대 여파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서양의 히피 음악이나 영화 등에 공감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한국의 젊은 세대는 참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문화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문화속에는 이미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있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불교를 배울 수 있지만 서구사회에는 그런 기회가 드물지요. 한국 젊은이들이 다른 불교국가를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불교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불자들이 내면적으로 성장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스승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도의 길은 한 개인의 온전히 사적인 여행입니다. 그 길은 인내심 많고 자비롭고 영성이 뛰어난 스승이나 도반의 지도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곳 한국에는 수행을 많이 하신 큰스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스승에게 과감하게 질문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면 좋겠지요. 산중에 계신 스님들도 재가자와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해결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개인 차원에서 탐욕 · 분노 · 어리석음을 없애나가면 이런 개인이 모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고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고요와 평화는 사실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미 본래의 마음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무명으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명상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계발하는 것이 티베트불교의 수행법입니다. 모든 생명과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탐구와 명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존재를 나의 어머니로 여기는 자비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13일 저녁, 서울 인사동 불교영어도서관에서 열린 법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설법의 형식을



‘자아’ 벗고 행복해지자

〈ego〉

통해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스님은 40여 스님과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음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수행자가 아집과 분별심을 여의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법문했다.

“괴로움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 독립된 실체로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들, 외부의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식상의 개념이나 생각으로만 존재함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 모든 것에 좋다, 나쁘다 등의 실재하지 않는 자질을 부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이 그 사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을 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투사한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서 반응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풀 길은 이러한 그릇된 겉모습을 꿰뚫어보는 지혜이니, 이것이 바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투사한 것일뿐 비어있음을 즉, 공성(空性)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못된 터전에 기초를 둔 자아(ego)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스승이 할 일은 제자가 자아를 벗어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생긴 용기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성을 잃는 대신 우린 붓다가 됩니다. 그것은 자아를 대신해 통합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날 법문의 핵심은 법회를 마치고 사부대중이 한글과 영어로 합송한 ‘회향기도’에 오롯이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덕으로 견성해서 우리 원수 번뇌 극복해 생로병사에 매달린 중생 해탈케 하소서. 보배로운 보리심 없는 이에게 생기고, 있는 이에게는 더욱 성장케 하소서. 허공이 남아있고 중생이 남아있으면 나도 남아있어서 중생 고통 해탈케 하소서.”

갸초 스님은 이번 방한 기간에 14세기 티베트 불교의 스승 쫑까파 대사가 지은 〈람림(Lam-rim.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바탕으로 불교의 근본 원리와 마음을 일으켜 수행해 나가는 단계 등을 한국 스님과 불자들에게 법문한다. 부산 홍법사(18일 오전 10시) 청도 운문사(20일 오전 7시30분, 운문사 스님 대상) 울산 해남사(20일 오후 7시) 부산 미타선원(21일 오전 1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22일 오전 11시) 해남 미황사(24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학 승가학연구원(26일 오후 2시) 서울 불광사(27일 오전 10시)에서 법문을 통해 불자들의 보리심을 활짝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사진=김성우 기자



툽텐 갸초 스님은 …

속명은 에이드리언 로이 펠트만으로, 1943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태어났다. 1969년 멜버른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1971년 영국 런던대학에서 열대의학 학위를 받았다. 1969년부터 1975년까지 뉴기니,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런던에서 학위를 받고서 의사로 일하던 중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친구들과 여행하다가 인더스 강을 장장 1000km에 걸쳐 작은 범선을 타고 여행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삶의 화두였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하던 중, 네팔 카트만두에서 라마 예셰와 라마 조파 린포체의 명상 강좌를 듣게 되고, 18개월만에 출가를 심한다.

1975년 네팔 카트만두 코판사원에서 사미계를 받고, 1977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티베트 스님이 된 뒤로 네팔에서 무료 의료원을 운영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미국, 대만, 홍콩,일본, 몽골 등 세계 곳곳의 불교회관에서 상임법사로 불교와 명상을 가르쳐 왔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오스트레일리아 캥거루 섬에 홀로 안거하며 3년 무문관 결사를 마쳤고, 2009년 3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불교회관에서 상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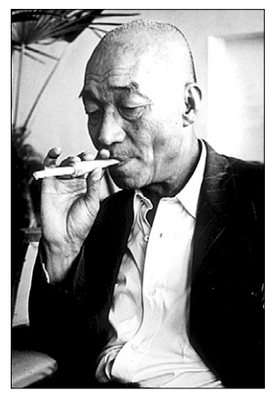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5. 꽁초도인 오상순 선생

“풀끝에 맺힌/ 한 방울 이슬에 / 해와 달이 깃들고
끊임없는/ 낙수물 한 방울이/ 주춧돌을 패여 구멍을 뚫고
한 방울의 물이/ 샘이 되고/ 샘이 흘러/ 시내를 이루고
시냇물이 합쳐/ 바다를 이루나니
오— 한 방울 물의/ 신비(神秘)한 조화(調和)여/ 무한(無限)한 매력(魅力)/ 단합(團合)의 위력(威力)이여
우주(宇宙) 영원(永遠)한 흐름이/ 크낙한 너 발자취로 하여/ 더욱 난만(爛漫)한 진리(眞理)의 꽃은/ 피는 것인가.”
(오상순의 시 ‘단합의 결실’)

조계사에 화통(火桶)도인이 살고 있었다. 백송(白松) 옆 다 찌그러져가는 요사채 수위실에서 연속해서 연기가 솟았기 때문에



사찰서 참선 염불로 세월 보낸 운수객… ‘폐허’ 동인

한 때는 불자동차(소방차)도 왔었다고 한다. 이 도인이 있으면 방안에 빈 자리가 없다. 그런데 그 틈에서도 공초(空超) 오상순(吳相淳; 1894~1963) 선생은 두 다리를 뻗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잠이 든다. 머리맡에는 아침부터 피웠던 담배꽁초가 명자 그대로 ‘공초(空超)’를 이루고 있다.

훤칠한 미간에 육계가 불록 솟아오른 머리는 언제나 말끔히 청소되어 있다. 끝으로 갈수록 숫이 많은 눈썹, 오뚝한 코에 가무스레한 눈에서는 별빛 보다도 더 맑은 빛이 쏟아진다. 메기입처럼 쭉 째진 입에 보조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500나한 가운데 한 분임이 틀림 없다.

1894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의동(효제)학교를 나와 13세에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일본으로 건너가 18년 도시샤대학을 졸업한 후, 19년 교회 전도사가 되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불교로 개종, 21년 중앙불전을 나오고 보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전국 사찰을 전전하며 참선과 염불로 세월을 보냈던 운수객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시인이 되어 1920년에는 〈폐허〉 동인으로 되었다.

서 폐허 속에서 개벽을 꿈꾸는 선각자가 되었다.

“아세아의 마지막 밤에 태어나서
여명에 이르는 동안
영원처럼 살다 가신 당신
평생 무일푼의 적빈도인으로
몸에 지닌 것은 물뿌리 하나뿐이었지만
언제나 가난을 모르고 살아왔던 당신
당신은 공산명월이었습니다.”

누구나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고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하고 인사하던 모습이 선연하다. 폭 큰 연기 속에 온갖 번뇌망상 다 날려버리고, 허공까지도 삼켜버린 공초도인을 사람들은 그 얼굴만 쳐다 보아도 눈물이 난다고 하였다.

공초도인은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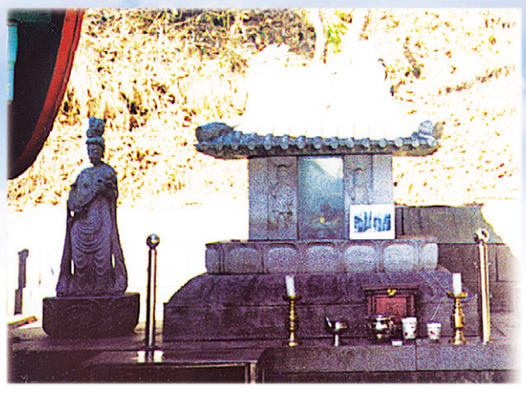
“어디로 가십니까?”
“직장에 가지. 따라 갈테야?”
따라가면 으레 명동의 청동다방이다.
“6?25전에는 푸라워 혜성이 내 직장이었는데, 수복 후엔 청동이야.”
그림자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꽁초다”하며 제각기 악수를 청한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이처럼, 죽었다 깨난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 같이 기쁨을 안겨준다.
한번은 구상 시인을 만나,
“야! 임마. 나는 기독교에 내 스스로 들어갔다가 내 스스로 나왔고, 불교에 들어갔다가 불교에서도 뛰쳐나왔다. 부처님이 불교를 불교 아니라고 해서 말이다.”
그래서 당시 불교를 대표하는 시인은 공초이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시인은 구상이란 평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종교보다 더 사랑하고 아낀 것은 자연이다. 자연이 없이는 종교를 배태한 인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도(道)라는 것이 있을 때는 자연이 남이고, 도라는 것이 없을 때는 자연이 나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숙연히 머리를 숙이고 공초도인의 법문을 듣는다. 그러면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무엇들 하고 있는 거여. 멀쩡한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병인(病人) 아닌 사람이 없으니 대충 보고 말라구.”
하면서 또 한 모금 들이킨 뒤에 하늘 높이 내뿜었다.
이것이 1961년 일이니, 공초 선생이 하직하기 2년 전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악산 동해사 감로법비 17주년 기념 대법회

동해사에 내리는 감로 법비를 아십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법비와 광명이 내린 이래 매년 그달 2시에는 여지없이 40여일 동안 매년 법비광명이 수년째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동해사 불탑사에서는 매일 기도정진과 초청기도 법회에 1일 수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철야정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도량에 불자님의 동참을 초청하며 사찰단위의 법회도 환영합니다. 이 성스러운 전세계에서 만나기 어려운 법비 광명의 광경을 친견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망울!
밤에도 낮에도 아 성스러운 광명이여!
아 이 신비스런 법비의 광명이여!
우리의 소원을 섭수하소서!
아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나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을 내려주소서.



감로법비 17주년 기념 대법회
[2009년 10월 29일 오후 1시]
◇ 1부 : 연예인 초청 경로 대잔치
◇ 2부 : 각 종단 종정 큰스님 초청 기념 대법회
◇ 3부 : 수계산림 대법회
※ 식사 및 숙식 무료제공 (예약을 요함)

법비광명 축제 및 기도기간
◇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 철야기도

※ 전화요청시 양양터미널에서 봉고차 운행

동해사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 전화 033)672-2900. 2911 / 불탑사 033)671-7751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9>

지구 환경 파괴하는 글로벌 시장주의

환경오염 악화 막기위한 적절한 규제 만들어야

신자유주의 사상은 인간적이며, 신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글로벌시장경제를 확대해 나간다면 국부를 증진하여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1970년 후반 미국 경제학계의 주류가 되어 케인즈 경제학이나 신고전파 종합으로부터 '작은 정부', '자기 책임', '감세'를 축으로 하고 머니터리스트(Monetarist)나 합리적 기대학파로부터 나온 것이다.

머니터리스트나 합리적 기대학파의 생각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케인즈적인 경기 대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 부문을 비대하게 만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상실시키므로 오히려 경제성장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점차 유력한 정책사상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1981년 로날드 레이건 정권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역사도 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풍요를 만들어 낸 것은 소득격차의 '대압축'과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이었는데, 그것이 지나쳤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여 미국을 다시 종전 이전의 격차사회로 되돌려 버리고 만 것이다. 이처럼 다소 장기적인 시점에서 역사를 추적하면 그 흐름이 단순 명쾌하고 자유방임정책의 전개가 미국사회를 안정시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근시안적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따라서 본다면 정말 지금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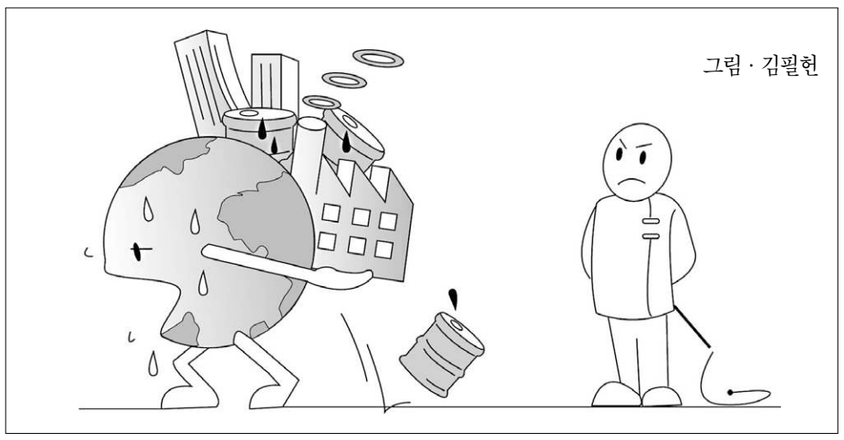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정책은 30년에서 40년마다 순환을 되풀이하고 그 중에서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이 행해진 시기에는 미국이 진정한 의미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순환론으로 본다면 미국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소득격차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공공의 이익'에 더 큰 배려를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8년 11월, 미국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와 소득 불평등의 시정을 정책의 기둥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이후의 미국은 레이건 이래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에서 케인즈주의적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향후 미국에게는 복음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약탈자본주의의 탐욕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을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시장을 그대로 계속 방임한다면 '자본주의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글로벌 시장경제의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문제는 이윤추구를 지상명제로 하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심각한 현상인 지구환경 파괴에 있다.

시장주의가 지역적인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을 때는 기업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 주변 주민이나 소비자의 반발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는 등 오히려 수익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공해방지나 환경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지역적인 환경오염은 나름대로 규제도 쉬웠고 규제의 효과도 검증하기 쉬웠던 것이다.


그림 · 김필헌

그런데 글로벌 시장경제에서는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무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해도 그것이 직접 기업경영에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근래에 와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환경의 파괴나 오염물질을 쏟아 내고 있는 대다수가 중국 기업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환경문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투자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생산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투자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자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익추구가 최대의 목표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지구 환경파괴는 적절한 환경비용을 어느 경제주체도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구 환경파괴를 막으려면 환경파괴의 범위를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 안에 제한해야 한다. 그 이상의 환경파괴는 지구환경을 점점 더 악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 안으로 환경파괴를 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한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은 환경질의 악화를 야기한 사태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다. 아니면 환경오염 파괴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에서는 엄격한 환경규제가 강요되고 있지만, 글로벌 자본은 같은 입지여건에서도 좀 더 환경규제가 느슨한 지역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본주의를 무제한 인정하면 지구환경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에게 어떤 제약의 망을 씌워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 경제학은 재생 가능한 원료와 재생 불가능한 원료를 구별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그 방법상 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수량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석유, 목재, 수력 따위의 여러 가지 대체원료의 단위당 코스트가 값싼 것이 초점이 된다. 물론 불교적 관점은 이와 다르다. 석탄이 석유처럼 재생 불가능한 원료의 목재나 수력처럼 재생 가능한 원료의 본질적 차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재생불가능한 재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며 절약에도 세심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배제된 행위는 지구환경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며 파괴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⑲ 내면기행

허달의 불교와 코칭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트로머 깨는 법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았으나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친구인 의사를 찾아가 통사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친구인 의사는 그가 가져온 검사 데이터를 훑어보고,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더니 밀봉한 처방전 네 장에 순서를 매겨 내밀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가 이를 세 시간마다 순차적으로 개봉하고 거기 쓰여진 지시대로 이행하라고 일렀다.

사업가는 미심쩍은 마음을 누르고 의사 친구의 처방을 따랐다. 어릴 때 놀던 해변가를 아침 일찍 홀로 방문한 것이다.

세 시간마다 개봉한 처방전 각각에는 눈에 익은 친구의 달필로 각기 아래와 같은 글들이 쓰여져 있었다. 내면기행의 로드맵이었던 셈이다.

"귀 기울여 들어라."

"과거로 돌아가 보라."

"삶의 동기들(Motives)을 재검토 하라."

"남은 걱정을 모래 위에 써라."

해변에서의 하루를 친구의 처방에 따라 내면기행으로 보낸 사업가는 자신의 병이 그릇된 삶의 동기, 밝혀지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1960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아서 고든의 통찰력 있는 글 '해변에서의 하루'를 뼈대만 추려 요약한 것이다. 추억의 장소에 홀로 앉아, 세 시간의 들음으로부터 내면기행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 와닿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언젠가, 수요일까지는 과제 수행한 결과를 보내오고 금요일에 만나 이어지는 코칭 세션을 갖기로 약속한 한 여성 고객이 "몸이 아파서 과제 수행을 못했으니 코칭 세션을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해왔다. 그러더니, 잠시 후 생각을 바꿔 몸과 마음이 함께 불편한 것 같다며, 이 점을 코칭 주제로 삼아 코칭 세션을 예정대로 진행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도와주는 것이 코치의 당연한 임무라는 생각에서 승낙하고 금요일을 기다려 만나 보니, 과연 입술에 터진 열꽃 자국이며 핼쑥한 얼굴이 몹시 안쓰러웠다. 이런 경우 코치는 '함께 있어주기' 코칭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이다. 고객의 고유 진동수에 자신의 진동수를 맞추고, 고객이 아픔에서 도망치려 할 때 오히려 이를 붙잡아 심화하는 내면기행을 통해 이에 직면하게 하는 동시에 그 아픔을 겪는과정, 그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과정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코치의 임무이기도 하다. 소리굽쇠의 공명현상과 같이 고객과 진동수를 맞출 수만 있다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만으로도 고객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잡았던 트로머(Trauma: 정신적 외상)의 껍질이 깨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선임하사관의 구령에 따라 대오도 정연하게 발을 맞추어 행진하던 군대가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선임하사관이 다리 앞에 오자 갑자기 행진을 멈추게 하더니, "제걸음으로 가!" 라고 명령한다. 모두들 대오를 흐트러뜨리고 제각기 자유 보폭으로 걸어서 질서정연하던 대열이 금시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 되었다.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니, 다리와 같은 구조물을 지나갈 때는 이와 같이 대오를 헤뜨려 규칙적 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야전교범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제진동'을 방지하려는 과학적 근거에서 시작된 규범이다. 구조물은 그 형태가 확정되면 일정한 고유 진동수를 갖게 되는데, 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우연히 일치하는 진동수를 가진 파동이 비록 작은 규모로라도 가해지면 강제진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진동의 폭이 무한대로 커지고 결국 자체 진동의 확산에 의해 구조물이 무너진다는 법칙이다.

<중아함 아리타경>에 보면 가아(假我)의 요새, 그 성벽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와 같은 비구는 이미 해자를 메웠으며, 해자를 건넜으며, 적의 요새를 깨뜨렸으며, 성문의 빗장을 풀었고, 지극한 깨달음의 거울을 곧바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니라."

위대한 코치인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최대한 맞춰 보내온 파동에 우리 중생이 진동수를 맞춰 공명하는 순간 일어나는 몰록 깨달음의 현상을 기술한 것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현대불교신문 15th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도사
주지 정비룡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6-9506-5706

사찰담보
대출전문
전국가능
금리년6.7%~
사찰거래자금대출
기타부동산담보대출
사찰 거래 가능
문의 1600-9342
019-9004-9342
모기지 24

‘도’ 통하는 것은 천상천하에 제일 쉽고도 어려운 일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42〉

제10장 꿈속의 꿈4

대연거사가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쯤이었다.

진주에서 고속도로와 고령과 합천의 국도, 지방도로를 이용해 지름길로 달렸기에 겨우 4시쯤에 해인사 주차장에 승용차를 정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인사를 올 때는 늘 홍류동 계곡가에 승용차를 대놓고 농산정으로 건너가 바위를 치며 흐르는 물을 바라보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마음이 안 났다.

가야산은 이미 노랗고 붉은 단풍이 불붙고 있었다. 해인사 경내도 가을 냄새가 물씬 났다. 일주문 너머 어디선가 낙엽을 태우는 연기가 안개처럼 은밀하게 감돌았다. 대연거사는 주차장에서 잠시 다리 운동을 한 뒤 원당암으로 승용차를 몰고 올라갔다.

원당암 주차장은 한산했다. 화장실 옆에 승합차 한 대와 지프차가 한 대 주차돼 있을 뿐 한산했다. 원당암의 공기가 맑고 차갑게 느껴졌다.

대연거사는 심호흡을 두어 번 하고는 종무소가 있는 요사채로 갔다. 구면이 된 원주스님은 외출을 했는지 안 보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여성 사무원이 아는 체했다. 그녀 역시 대연거사와 구면이었다.

“원주스님이 안 계시네요.”

“물품 사러 갔습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원각스님은 계십니까.”

“큰스님은 절에 회의가 있어 내려가셨습니다.”

원각스님은 해인사 선원의 유나 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당암에 주석하면서 해인사 종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들어오시어 기다리지요.”

“괜찮습니다. 밖에 있겠습니다.”

대연거사는 혜암스님의 토굴이었던 미소굴로 올라갔다. 혜암스님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는 미소굴로 들어가 삼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미소굴은 변함이 없었다. 미소굴 좌측에는 여전히 주장자처럼 생긴 거대한 나무기둥에 ‘공부하다 죽어라’는 혜암스님의 법어가 쓰여 있었고, 황토로 지은 토굴의 미소굴은 혜암스님의 작은 체구처럼 단아했다.

미소굴 안의 차분한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토굴 안에 유품들도 주장자와 〈금강경〉 한 권, 검은테 안경 등 하나도 더해진 것 없이 보관되고 있었다. 대연거사는 삼배를 한 뒤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다.

대연거사는 합장한 채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아직도 작품을 잘 만들겠다는 욕망에 끄달리고, 타성에 젖어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보고 있느니라. 네가 나와 한 몸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니라. 그때의 시절인연이 있을 것이니라. 네가 장좌불와를 멈추지 않고 하는 한 시절인연이 있으리라.”

미소굴 안의 고요하고 그윽한 분위기는 대연거사를 편안하게 했다. 대연거사가 흘린 참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다.

대연거사가 밖으로 나와 요사채로 갔을 때 종무소 안에서 그를 가리키는 소리가 들렸다.

“장좌불와 한다는 거사님이 왔어요.”

“나를 찾던가요.”

“네.”

충청도 억양이 밴 원주스님의 목소리였다. 대연거사도 원주스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반가웠다.

“원주스님.”

“아이고, 거사님이 오셨그만요.”

대연거사는 원주스님 방으로 들어갔다. 원주스님은 다탁을 끌어당겨 발효차통을 들고 우릴 준비를 했다.

“원각스님은 큰절에 가셨더군요.”

“아마도 저녁 늦게 올라오실 겁니다. 선방 욕실공사 문제도 있고, 수좌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스님은 잘 계셨습니까.”

“나와 뭐, 맨날 그렇지요. 원당암에서 하룻밤 주무셔야지요. 방은 예전에 머무시던 방으로 가면 됩니다. 마침 그 방이 지금 비어 있네요.”

원주스님이 가리키는 방은 달마선원 밑의 공양간 요사채 위방으로 원룸 형식의 특실이었다. 원래는 원당암을 찾아와 머무는 스님용 방이었다.

“지금도 장좌불와 하시는가요.”

“이제 앉아서 자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오한이 들거나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보냅니다.”

“달마선원에도 용맹정진 동안에는 신도님들이 며칠씩 장좌불와를 합니다만 거사님이야말로 진짜 혜암 큰스님의 제자이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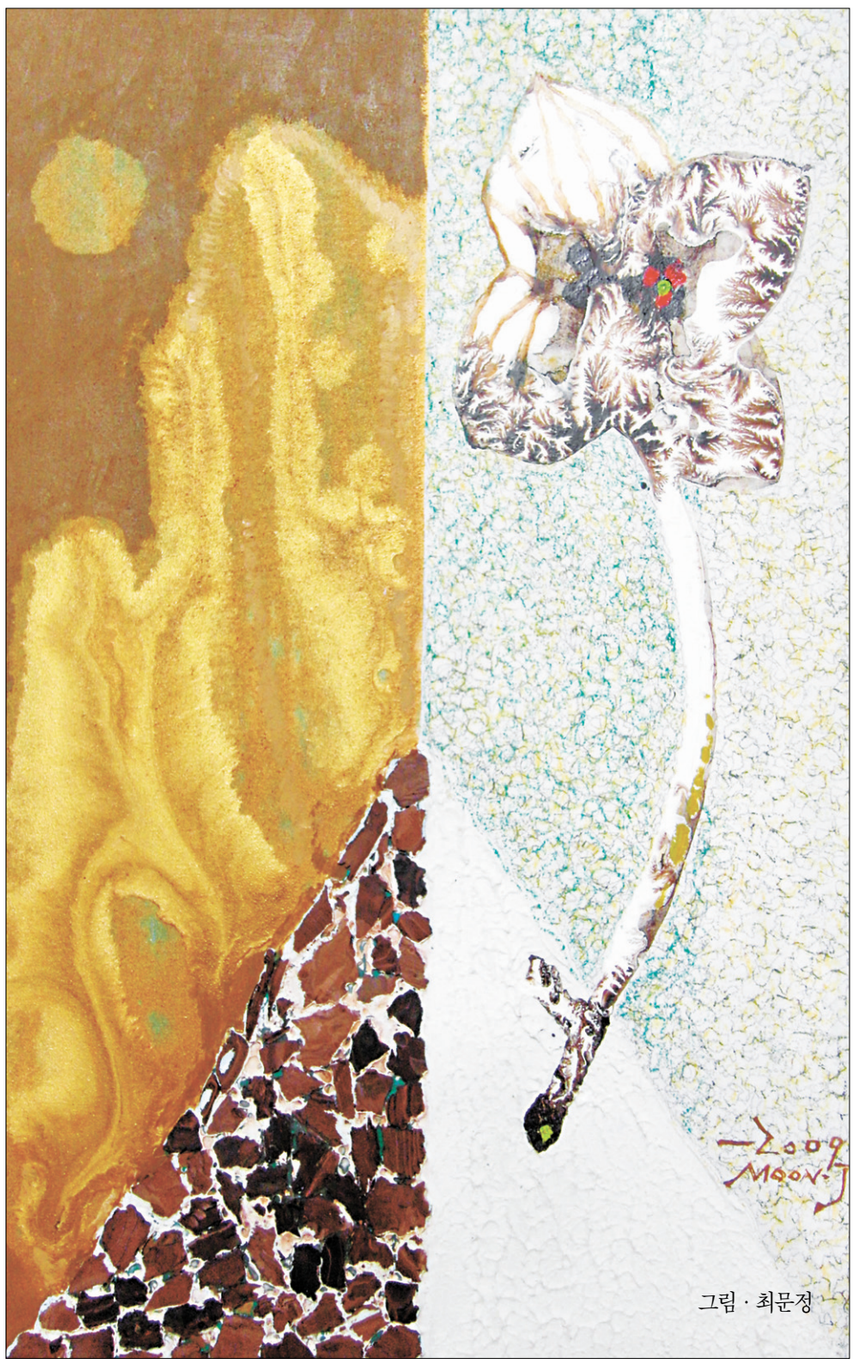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온 누리가 한눈에 탁 트이네
강물은 모여 흘러 창해에 푸르고
해는 봄기운에 어려 태허공에 붉구나
매화는 삼동의 찬눈 속에서도 피어나고
도는 세상만사 중에 있다네
오묘하고도 깊어 말하기 어렵거늘
문자로 부질없이 유무공(有無空) 말들 마소
忘機閑坐鷲棲峰 眼豁乾坤法界通
江得溪流滄海碧 日和春氣太虛空
梅開雪上三冬裡 道在世間萬事中
妙妙玄玄難可說 莫言文字有無空

혜암은 경봉스님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간파하고 극락암을 떠나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미 갈 곳은 정해져 있었다. 해인사 뒤편 중봉암에서 정진할 것이라고 뒤에 전강스님에게 건당한 상좌 도림에게 지시해 두었던 것이다.

〈계속〉

> “큰 스님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걸림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을 뿐 입니다”

미소굴에 걸린 영전 앞에선 대연 거사
“일생을 일주일로 여기고 정진했던 분…”

혜암은 경봉 스님 회상에서 선객들 지도
혜암의 높은 선지에 경봉은 해재송지어 격려

그러자 혜암스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혜암스님의 숨결이 아직도 묻어 있는 미소굴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다. 혜암스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문득 혜암스님의 마음이 무언지 알 것도 같았다.

‘아, 한결같이 견성의 길을 확신하고 일생을 일주일이라 생각하고 정진하셨던 분, 일주일을 넘기고서도 깨치지 못하면 태평양에 빠져죽겠다는 각오로 사셨던 분, 일주일이 지나면 또 다시 일주일… 그와 같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오뚝이처럼 간절하게 정진하셨던 분, 어느 암자나 어느 선방이든 목숨을 내놓고 정진하는 무문관으로 여기셨던 분. 참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수지맞는 장사라고 자랑했던 분.’

대연거사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단 하루도 간절하게 살아보지 못한 자신이었으므로 혜암스님에게 죄송했다. 단 며칠만이라도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지 못한 자신이었으므로 혜암스님에게 미안해 참회했다.

그러나 혜암스님의 유품들이 대연거사를 위로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이미 수행자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큰스님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걸림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대연거사는 차를 몇 잔 마신 뒤 방으로 가 쉬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를 뻗고 긴장을 풀었다.

‘내일은 반드시 혜암스님이 정진했던 중봉암을 가보리라. 큰스님께서 견성한 이후 가야산에서 처음으로 정진하셨던 토굴이 아닌가. 마침 원각스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산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중봉암은 원각스님이 약수암에서 대입공부를 하던 중에 올라가 도림스님의 권유로 머리를 깎고 있다가 혜암스님의 제자가 됐던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각스님은 도림스님을 따라 중봉암으로 먼저 올라가 행자생활을 하고 있었고, 혜암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1967년 초에 왔었던 것이다. 혜암스님이 경봉스님 회상으로 자주 가서 안거를 난 것은 자기경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극락암 조실인 경봉스님 회상에서 혜암은 수좌로서 선객들을 지도하였다.

경봉스님이 선방에 들 때도 있지만 스님은 절 안팎의 일로 출타가 잦은 편이었다. 한 해가 다가는 세밑에도 불국사 석가탑에 사리 48과를 봉안하는 봉안식에 가 청담과 성철의 권유를 받고 설법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대중들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 선방에 들어 대중들의 경계를 점검하곤 했다.

“길에서 도인을 만나면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했으니 어찌 대하면 좋겠는가.”

그날은 대중이 아무도 말하지 않자 혜암이 나섰다. 자리에서 일어나 선방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할을 했다.

“아악!”

그러자 경봉스님이 각자 공부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라고 했다. 다시 혜암이 나서서 대답했다.

“언어문자는 학습하기 쉬우나 도를 통하는 것은 천상천하에 제일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몸을 잊고 법을 구하는 용맹정진 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경봉스님이 봉통홍중공(峰通紅中空)의 운자(韻字)를 주어 선시를 짓게 하였다. 대중이 모두 머리만 조아리기만 하자, 혜암이 그 자리에서 게송을 지어 올렸다.

영산회상의 영축봉이여
구름 한 점 없으니 만리에 통했도다
세존께서 들어 보이신 한 송이 꽃은
천겁이 다하도록 길이 붉으리
꽃을 들 때 내가 참석하였다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 불속에 던졌으리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언어마저 끊겠는데
진실한 본래의 성품은 공하되 공하지 아니하도다.
靈山會上靈鷲山 萬里無雲萬里通
世尊拈花一枝花 歷千劫而長今紅
拈花當時吾見參 一棒打殺投火中
本來無物亡言語 天眞自性空不空

경봉스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암의 선지(禪旨)가 뛰어났던 것이다. 어느 새 조실인 자신의 경계에 와 있었던 것이다. 경봉스님은 즉시 대중들에게 지시했다.

“모두 혜암수좌에게 절을 올리거라.”

그해 안거 때도 경봉은 해재송을 지어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1966년 동안거 때는 특별히 혜암을 위해 지어 격려했다.

심기 잊고 한가로이 축서봉에 앉으니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태어나기 이전 당신은 무엇?"

'담배가게 성자' 마하라지의 마지막 가르침

"태어나기 이전의 당신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 화두와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 사람의 진실한 본성 또는 불성을 묻는 이 화두는 위산영우 선사가 향엄지한 스님에게 던진 질문에서 유래했다. 어느 날 위산 선사가 경학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듯이 자부하던 향엄 스님을 불러 놓고 이렇게 다그쳤다.

"자네가 평소 경전을 읽었거나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런 것이라면 젊은 자네가 나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아직 동서도 가리지 못하던 때의 너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어디 한번 말해 보라."

이것이 바로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이란 화두다. 이 질문에 꽉 막힌 향엄 스님은 크나 큰 의심을 안고 용맹정진하다가 우연히 대나무 소리에 돌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찰나 화두를 타파하게 된다.


마하라지.

향엄 선사처럼 구도자들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당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선사(禪師)일 것이다. 그런데, 인도에 이러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수행자들을 뿌리와 근원으로 되돌리는 명상가가 있다. 바로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Nisargadatta Maharaj)이다. 선(禪)과 가장 유사한 가르침을 전한 그는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으로 더욱 유명한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Bhagavan Sri Ramana Maharshi)의 제자이기도 하다.

20세기 인도가 낳은 성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엮은 <담배 가게 성자—마하라지의 마지막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책세상)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말기에 후두암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설법을 계속했던 마하라지의 최후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어 '진리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은 1982년 출간된 이후 전 세계 구도자들의 고전이 되어왔다. 16년만에 새롭게 번역 · 출간된 <담배 가게 성자>는 해공명상센터를 이끄는 무위해공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마하라지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명상무용가 홍신자씨의 추천사가 담겨 있다.



이 책에서 마하리지는 "태어나기 이전의 당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진리에 대한 통각은 오직 통각 하고자 하는 자아가 사라질 때, 말하자면 자신을 실체라고 믿는 '찾는 자' 자신이 사라질 때에만 가능하다"며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

"태어나기 전의 자네는 무엇이었나? 그 상태에서 어떤 필요나 바람이나 욕구가 있었을까? 실재에 대한 것이든 자유나 해탈에 관한 것이든 그런 바람이 있었을까? 자네의 그 이전은 일체요, 절대적 현존이요, 상대적 부재의 상태야. 그것이 자네가 바라는 진실한 모습이요 본성이지. 이것의 나툼이 의식이고, 내가 있음이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태양의 반영이 태양이 아니듯 그것이 절대적 현존일 수는 없는 거야."

'네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란 '나(ego)'라는 개체적 인식이 없는 상태, 즉 무아(無我)의 경지를 말한다. 현상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내가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전체성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참나인 '절대성'의 상태란 것이다. '절대'란 색(色)과 공(空)이란 상대성의 양쪽을 모두 포괄한다. 다만, 개체를 나라고 착각한 순간 개체의식에 속아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시비분별하는 의식구조 때문에 진리의 전체성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마하라지의 가르침이다. 그의 설법은 오랫동안 참선공부를 하다가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의 구도자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과 발심의 동기를 제공할 전망이다.

담배가게 성자 | 발세카 지음, 이명규 송영훈 옮김 | 책세상 | 1만8000원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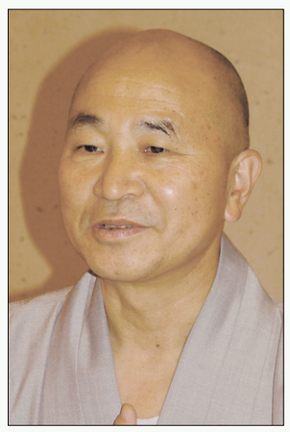
반야바라밀 기도는 참된 수행

혜담 스님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편저

"기도를 성취하여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대립하는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하고든지 대립한다는 것은 그 대립 감정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과 통하는 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광덕 스님 법문)

중국의 옛 공안 가운데 '장공흘주(張公吃酒)에 이공취(李公醉)라'는 화두가 있다. '술은 장 서방이 마셨는데 취하기는 이 서방이 취했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하나의 진리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야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게 기도의 이치인 것이다.




혜담 스님.

이와 같이 감사, 찬탄,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진리생명체임을 잊지 말고 대립과 갈등을 털어버려야 기도 성취를 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반야바라밀 기도수행법의 정수를 담은 책이 나왔다. '광덕 스님의 반야사상의 정수'란 부제를 단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불광출판사)가 그것.

동산 선사의 맥을 이은 율사이자 선사요, 대포교사로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로 추앙받은 광덕 스님은 이 책에서 "법성진리의 힘을 활용하여 본래 완전한 진리의 공덕이 자신과 환경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야말로 참다운 수행"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자기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본래 갖추고 있는 진리를 회복함으로써 일체를 성취하는 것이요, 생활 속에 진리를 구현해가는, 행복을 창조하는 수행이다."

이 책의 편저자인 혜담 스님(경기 광주 각화사 주지)은 작년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기도수행'이야말로 '만인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마하반야바라밀' 기도수행을 통해 큰 병고에서 벗어난 혜담 스님은 "퇴원 후 1년여 동안 은사이신 광덕 스님께서 생전에 법문하신 반야바라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려 뽑아 이 책을 엮으면서 광덕 스님의 기도법문이야말로 반야사상의 정수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 혜담 엮음 | 불광출판사 | 1만1000원

김성우 기자

수행법 전반 · 장단점등 다룬 불교입문서

독자에 알맞는 수행법 선택할 기회줘



10여년 전부터 위빠사나와 염불, 간화선 등 수행법 관련 서적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수행법 전반에 대한 입문서는 아직 보기 드문 상황이다. 충남대 철학과 김방룡 교수가 쓴 <불교수행법>(민족사)은 불교 수행법 전반을 쉽게 파악해 독자들이 알맞은 수행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책에는 조계종 수행법의 근간인 조사선과 간화선을 비롯해 지관법(止觀法), 위빠사나, 간경, 지계와 참회, 염불, 절, 주력, 사경(寫經), 사불(寫佛) 등 대표적인 수행법을 다루고 있다. 각 수행법의 특징과 교학적인 근거는 물론 누가 수행법을 체계화했고 현재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각 수행법의 장단점과 상호 연관성까지 자세한 안내를 해준다. 저자는 불교수행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한 발심(發心)이 전제돼야 하며, '불교'와 '불교 아님'을 구별할 수 있는 교학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판별기준은 '부처님이 제시한 연기법, 중도법, 무아(無我), 공(空)의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가?', '깨침을 통해 동체대비를 실천하게 하는가?' 등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교수행법 | 김방룡 지음 | 민족사 | 9500원

김성우 기자

미당 ·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기언 · 박민규 작품등 수록

제9회 미당 ·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이 중앙books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우리 현대문학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미당 서정주 선생과 황순원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한국어, 한국정신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심화 ·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된 미당 · 황순원문학상은 지난 1년간 창작, 발표된 모든 시와 중 · 단편을 대상으로 한다. 2009년 미당문학상 수상작인 김언 시인의 '기하학적인 삶'은 기하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우리의 모순된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시다. <2009 미당문학상 작품집>에는 김언 시세계를 감상할 수 있도록 10편의 자선시를 비롯해 송재학, 김신용, 이영광, 정진규, 김근, 김행숙, 조연호, 김경주, 이근화 등 미당문학상 최종심에 오른 문단의 대표적 시인들의 작품도 함께 실려있다. <2009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40세 독신남의 귀향을 소재로 한 수상작 박민규 소설가의 '근처'를 비롯해 은희경, 전성태, 배수아, 김애란, 김중혁, 김경욱, 김사과, 김숨, 강영숙 등 최종심에 오른 후보작품 9편도 실려있다.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사는 즐거움	보경	뜰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감영사
5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6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7	인과경	현담	선
8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9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10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 주 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빗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장학생들과 한 무대에

24일, 김흥국장학재단 10주년 축하공연



축구, 해병대 등으로 더 유명한 불자가수 김흥국(사진)이 김흥국장학재단(이사장 김흥국) 설립 10주년과 호랑나비 탄생 20주년을 맞아 10월 24일 오전 10시 조계사 한국불교문화기념관에서 기념 축하공연 행사를 갖는다.

김흥국은 이번 10주년 기념공연에 앞서 "2000년도 낙산사 홍련암을 바라보며 인간방생을 발원했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10주년을 맞아 하는 공연이니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에는 장학재단설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 2부는 호랑나비 탄생 20주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그 동안 김흥국씨가 장학금을 전달했던 학생들도 같이 참석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김흥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들은 약 90여 명으로 김흥국씨는 "여태껏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그 학생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항상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는 가수 김흥국은 "지금까지 장학 사업을 이어올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많은 보살님들과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준 아내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학재단이 잘 되면 아들 번칠이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그 특유의 웃음으로 화답했다. (02)745-0306, 국민 803-21-0319328(예금주:김흥국장학재단)

이은정 기자

쇳불 떨궈 공의 묘리 새기니

이종섭 작가 27일까지 '반야심경' 전시… 조계사 경내에 설치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문자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글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제일 강하다는 쇠에 변하지 않는 쇳물로 그 글을 새기고 싶었습니다."

미술가 이종섭은 2년여 간 절실한 마음으로 작업한 260자 철판에 가로 14m, 세로 7m의 반야심경을 조계종 조계사 경내에 설치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루 2~3자 정도씩 철판에 용접으로 글을 쓰며 작업한 그는 "용접이 시작되면 끓는 쇳물 1㎝정도만 보여, 나중에는 그 끓는 쇳물에 눈이 매달리다 보니 눈뜨고 눈감은 듯 작업했다"고 말한다.

긴 호흡과 인내가 필요했던 이 작가의 작업은 현재의 삶속에서 인내하고 버텨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아침, 저녁으로 부식이 진행돼 색깔이 변하는 철판은 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의 자유로움과 그 사이의 많은 생각과 갈등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는 "단지 특정 종교를 주제로 작업한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 작가의 바람을 담아 이번 전시는 특별히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시형식을 하기위해 종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조계사를 선택했다. 이종섭 작가는 앞으로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주기도문, 국민교육헌장을 시리즈로 작업해 삶과 현실,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반야심경 조형물은 12월 초까지 조계사에 설치되며, 10월 2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에서 제작과정을 담은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지난날의 기억은 그의 불꽃같은 열정이 담긴 작품에 태워버리고, 녹슬어 가는 철판에서 <반야심경>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감상해 보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조계사 경내에 설치된 미술가 이종섭의 '반야심경'.

10년 만에 다시 무대로

'뜰 앞의 잣나무' 극작가 원담 스님



이번 완자무늬 극단이 공연하는 '뜰 앞의 잣나무'를 극작한 원담 스님.

"극단에서 이번에 이 연극을 올리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작품은 더욱이 종교적 색채가 짙어 결정하기에 더 어려웠을 겁니다."

1996년 대학로에 최초로 스님이 쓴 희곡이 공연됐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극단완자무늬는 원담 스님(수국사 주지) '뜰 앞의 잣나무'를 심우도 시리즈의 연작 중 하나로 재공연한다.

원담 스님은 이번에 다시 자신의 작품이 공연되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고, 마냥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라 말하는 스님은 "불교에 몸담은 후부터 부처님께 받은 선물처럼 자연적으로 작품에 대한 영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스님은 현재 '뜰 앞의 잣나무' '지대방'을 연극무대에 올렸고, 내년에는 '부엉이는 황혼에 비로소 날개를 편다'를 재구성해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10월 14일 시작된 이번 연극은 25일까지 대학로극장에서 공연된다. "너무 전통에만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불교문화를 많이 창조해야 한다"는 스님의 바람처럼, 이번 공연이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길 기대한다. (070)7519-3600

이은정 기자

화쟁과 깨달음 수놓아

東大 이점원 교수 31번째 조각전 성료



이점원 교수 31번째 조각전에 출품된 작품.

해 뜰 무렵 나뭇잎에 가려진 억새풀 위의 이슬방울처럼 마른 곳과 마르지 않은 곳의 미묘한 감성을 표현한 동국대 미술학부 이점원 교수의 31번째 조각전이 10월 20일 막을 내렸다. 몇 년째 꽃과 여자를 작품의 소재로 다루며 화쟁과, 깨달음의 사상을 보여준 이점원 교수의 이번 전시회는 관객들이 직접 작품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관객의 참여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미술사상가이자 철학박사인 김영재씨는 "이점원 교수의 작품은 우주 속에서 현란하게 빛나는 현상계는 칠흑 같은 옻칠 속의 화사한 자개로, 만유의 집합이라는 의미에서 작은 자개 조각들은 끊음질 기법으로 수놓은 것은, 마치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의 사상이 구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작품을 통해 깨달음의 끝을 보여주며, 매번 불가능할 것 같은 작품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이점원 교수의 다음 전시가 또 다시 기대된다.

이은정 기자

한·중·북 작가들 자선전시회

북녘어린이 돕기… 22일까지 불일미술관

한국, 중국, 북한 작가들의 미술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다. 북녘어린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선전시회는 한국, 중국, 북한 작가들의 작품 총200여 점 중 108점을 선별해 전시된다. 세계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히 황칠공예 명인 구영국씨의 작품 30여 점도 함께 전시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술협회는 1980년 설립돼 지금까지 많은 전시회와 작품 활동을 국내외 구분하지 않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세계미술협회 유재기 대표는 "북한 어린이도 미래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 참가해 주셨으며, 이번 전시의 판매수익금은 전액 북한 어린이 돕기 행사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녘어린이돕기 자선전시회 한 · 중 · 북 그림 108초대전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16일 개막식을 개최했으며, 22일까지 전시된다.

이은정 기자

네팔 만다라 오묘한 세계에 빠져보자

네팔 만다라 순회 특별전 11월 1일까지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열려



이번 네팔 만다라 순회전에 전시되는 '금강계 만다라'.

네팔의 불교미술을 엿볼 수 있는 네팔 만다라 순회 특별전이 10월 21일~11월 1일 총지사 2층 원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총지종 통리원과 밀교연구소, (주)한네인투어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에는 금강계 · 태장계 만다라 10여 점, 네팔계 칼라차크라 만다라 20여 점 등을 포함한 약 4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9월 조계사 나무 갤러리를 시작으로 열린 특별전시회는 한국과 네팔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네팔 불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네팔 낙후 지역의 난민촌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특별전의 개막법회가 21일 오후 3시 총지사 3층 서원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02)418-5252

이은정 기자



밀교경전을 근거로 그려진 '태장계 만다라'.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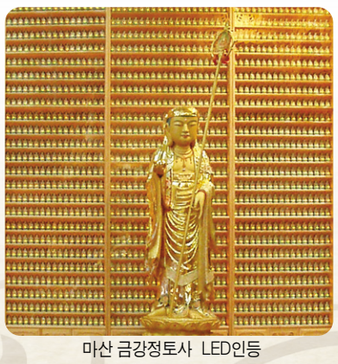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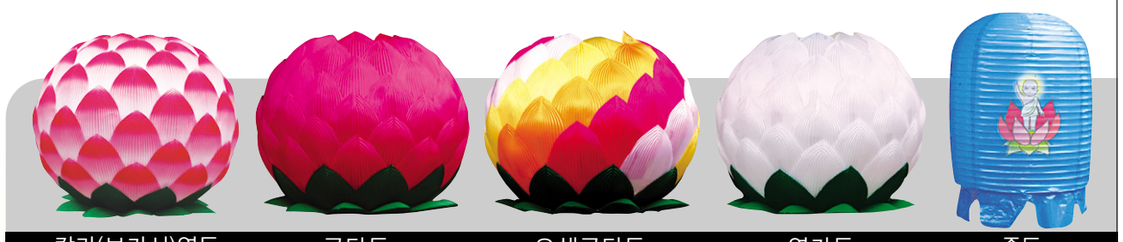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49 밥은 봄바람-부채도사 편<4>

황남빵 · 도라지 전설이 깃든 신라의 달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봄 처녀의 가슴마냥 설레는 이가 있으니, 대학원에서 불교를 전공하는 수안 처사다. 그는 오래 전부터 보름달이 뜬 밤이면 꼭 한 번 저질러보고 싶은 '짓'이 있었다는데, 달빛 아래 차의 전등을 끄고 밤길을 달려 석굴암을 오르는 거란다. 사람에 따라 소원이 이렇게나 가지가지인 줄은 몰랐지만, 꽤나 낭만적인 소원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다.

보름달만큼이나 차오른 수안 처사의 소원 성취를 위해, 부채도사님을 비롯한 이들이 뭉쳐 석굴암을 향했다. 불교대학원의 도연 처사와 무구 스님도 동행 했다. 일단 차 안에서 입이 궁금할 것을 대비해 근처 가게에서 황남빵을 한 상자 사기로 했다. 경주에서 세월의 반 이상을 보내다보니 도처에 있는 경주빵집을 자주 보긴 했지만 황남빵이라는 이름은 낯설다.

"그게 사연이 있어요. 경주빵과 황남빵을 같이 사서 맛을 비교해가며 얘길 들어야 더 실감날 텐데…."

경주빵과 황남빵에 얽힌 사연인 즉 이러했다. 옛날에 황남빵을 처음 만들어 가게를 꾸려가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던 수제자가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자식들이 가게를 물려받게 됐고, 그 제자는 이름을 달리해 '경주빵'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다.



경주빵의 원조 황남빵.

석굴암 진입로에 이르렀을 때, 부채도사님이 "난 도라지 약좀 먹어야겠다. 이게 기관지에 좋더라니까‥"라며 가방에서 도라지 엑기스를 꺼내든다.

"히말라야 있을 때나 어릴 때나 거리를 떠돌며 살다보니까 한기가 항상 목 안에 차있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 한 스님이 도라지 엑기스를 줘 먹어봤더니 효능이 있더라고."

부채도사님의 말을 받아 도연 처사는 "도라지꽃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세요?"라며 그에 얽힌 전설을 들려준다.

"그게 배경이 금강산인데, 아버지와 딸이 둘이 사는 화전민 가족이 있었어요. 딸은 커서 예쁜 처녀가 됐는데 이름이 라지였어요. 그런데 라지가 옆 마을 총각이랑 오누이처럼 지내다가‥ 아고 그러고 보니 얘길 하나 빼먹었네. 실은 엄마도 있었는데…."

도연 처사의 전설 따라 삼만 리가 펼쳐지는 가운데 차는 전등을 끈 채 느린 속도로 석굴암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벨라(자신의 낡은 아벨라 승용차의 애칭)만 할 수 있는 짓이에요. 벨라와 철이(만화 로봇태권V를 조종하는 주인공 이름)가 합체해 조종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하면 안돼요."

수안 처사의 노파심에 부채도사님은 "벨라가 일어나 로봇태권V가 되는 거 아냐. 아니면 독수리 5형제로 바뀌던지‥"라며 농을 하고, 차는 어느덧 석굴암 정상에까지 이르렀다. 대화의 주제가 이미 독수리5형제로 넘어간 지가 언제인데, 도연 처사의 도라지에 얽힌 사연은 중반에 이르지도 않은 눈치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는 망하고 엄마는 폐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옆 마을에 황놀부가 있어가지고…."

도연 처사의 끈질긴 근성에는 부채도사님도 당할 재간이 없어 "그래서 그 황놀부가 황남빵을 만든 거 아냐?"라며 부채질에 가속도를 붙이고, 수안 처사는 한 술 더 떠 "올커니~!"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보름달마냥 팥을 한 아름 안고 있는 황남빵을 오물거리며 신라의 한량들은 그렇게 그윽한 달빛을 유유 작작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가슴 가득 품은 달무리의 기운과 별똥별의 추억은 생생하기만 한데, 라지가 왜 도라지가 됐는지에 대한 기억은 당체 떠오르질 않는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8 두통

'두통' 원인 알아야 근본 치료 된다

두통은 흔한 질병이지만, 그 통증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단순한 두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만성두통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두통에 대해 살살이 파헤쳐보자.

1. 편두통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 머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편두통이라고 한다. 원인은 뒷목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턱관절 불균형에서 오기도 한다. 통증이 있는 쪽 뒷목을 만져보면 굳어있고 심한 경우는 어깨까지 뻐근하다. 이 경우는 뒷목을 교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오는 편두통의 경우는 턱관절을 만져보아 아픈 곳을 마사지해준다. 턱관절은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움직이는 양측관절이다. 한마디로 왼쪽 턱과 오른쪽 턱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양측관절인 턱관절이 불균형해지면 척추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로 인해 편두통이 생길 수 있다. 심한 턱관절 불균형은 정형외과나 치과에서의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

2. 소화장애로 인한 두통

잘 체하거나 뱃속이 더부룩하며 평소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의 두통이다. 이런 두통은 소화장애를 해소하고 뱃속의 가스를 제거하면 두통이 없어진다. 변비가 있는 경우는 키위, 푸룬(서양자두), 알로에 등이 도움이 되고, 설사가 있는 경우는 바나나, 옥수수 등이 좋다.

3. 눈의 피로로 인한 두통

눈과 두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눈이 피로하면 두통이 생기고 두통 때문에 눈이 충혈되기도 한다. 눈이 피곤할 때 뒤통수를 만져보면 굉장히 아픈 곳이 있다. 여기에 찬물수건을 대고 있으면 눈이 시원해지면서 두통이 호전된다. 그리고 인공눈물로 눈의 건조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눈의 피로로 인한 두통에는 구기자차, 오렌지쥬스가 도움이 된다.

4.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뒷목 근육이 긴장이 된다. 그래서 뒷목 근육을 '스트레스 근육'이라고도 한다. 두통의 가장 흔한 경우가 스트레스성 두통이다. 스트레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잘 낫지 않는데, ABM 검사를 해보면 대뇌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나타난다. 고주파치료로 뒷목과 어깨 등을 풀어주어 근육을 이완(relax) 시키고, 정신적인 심화(心火)를 가라앉히는 청심환 처방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원인 모를 두통

두통의 80% 이상이 근육 수축에 의한 통증이 원인인 '긴장성 두통'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머리나 목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해 발생하는데 주로 오후 늦게 나타나며 머리 주위를 조이는 느낌이 온다. 대부분의 긴장성 두통은 숙면을 취하면 사라진다. 너무 많이 자거나 조금 잘 경우 생기므로 규칙적인 수면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엔돌핀(endorphin)을 생성해 두통을 줄여준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는 20분 정도 뒷목, 어깨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긴장성 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듯 두통은 원인이 아주 다양하다. MRI나 CT 검사를 하고 나서도 이상이 없는데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사실 육체적인 원인보다는 감정과 심리적인 원인이 많다. 이 경우에는 정체된 감정해소와 심리상담을 통한 마인드힐링(Mind-healing)이 효과적이다.

#두통의 응급 치료법

가운데 손가락은 우리 몸의 두뇌에 해당한다.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 좌우를 무통사혈침으로 사혈을 하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두통 상식

두통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 스트레스, 뒷목의 긴장, 눈의 피로, 턱관절불균형 등이 원인인데, 사람들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온다고 생각한다. 두통이 오면 뒷목을 만져보라. 반드시 뭉쳐있다. 뭉친 것이 풀리고 뒷목과 어깨의 기와 혈이 소통하여 부드러워지면 두통은 생기지 않는다.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 로즈마리 / 능인 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54호 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 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요가 개인,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 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불교마음수련원생 지도
면벽, 좌선, 예불, 명상다례 등을
통하여 심,신의 장애제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우울증, 자폐증, 만성피로 등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함.
(팔공산 묘적암 성인 합장)
011-9371-8080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감정 위주로
속성 지도해 드림
운명 전화상담 가능
010-7443-3060
도통 합장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0-3045-0085

기도 부전
스님
모십니다
011-393-0013
011-710-72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도심사찰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시 소재
016-205-0345

스님 시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 컴퓨터 가능자
▷불심이 깊으신 40~50대 분
포천시
010-9269-8445

참 좋은 명리학
명리학자 금당 이종수
(3대 복심법 명리학
선종 학파 이수자)
부산광역시 동구 동광동 5가
1-7 인쇄골목 2길.
010-5015-7175
명리학 상담가능

보담 스님의 하늘 소리
천도재, 사십구재,
구병시식, 법문,
지장보살님을
95년도에 친견하고
지금까지 영가천도를
위해 실행합니다.
010-9444-0035

초능력 만능 氣 잡기
사물에 진가, 허위 과장 일의
시작들과 사업 성패 등 진실 100%
기, 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정보 어떤 氣인가?
만물 만능 氣 잡기 전수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임.
070-7758-3144
016-606-5658

선망부모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정성드려 천수바라,
나비춤, 하늘의 소리
사업부진, 결혼,
내 운명은 나만이 바꿀 수 있다.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철원군 조계종 사찰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33)455-1565
010-3117-517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법당불사 인연
맺어주실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419-5852
011-9977-39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현풍 천년고찰
도성암 선원
053) 614-9167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2분
법당 보살님 1분
- 월 4회 휴무
- 보시는 상담 후 결정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삼화사
033)534-7661
010-2273-0950

조계종 정진하는 비구 노승의
사원에서 신심있는 4-50대
공양주 구함 (급여는 면담 후 결정)
그리고 암자에 수행하며 관리운영
할 비구니 4-50대 스님에게
맡겨 볼 생각으로 찾고 있음.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경북
010-6353-1180

사 람 찾 음
속명 : 장종인
법명 : 자혜
나이 : 갑오생 56세
위 사람은 부전으로 다니는
스님으로서 부당행위를 한 자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31)471-6675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헌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불교용품점 인수 경영하실 분
한곳에서 10수년간 성실히 운영한 불교용품점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급히 인계하고자 합니다.(기존 고객이 매우 많음)
- 위치 : 경산시 하양읍(와촌방향 근교)
- 가액 : 삭월세 10개월 500만원 • 시설비 (용품비 포함) 양도가 : 3천 5백만원

성불불교사
010-4580-5633 / 010-2326-088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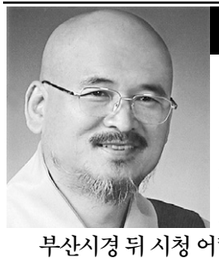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www.kbs.cc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창간되어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유 불 도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싣습니다. 1년 구독료 10만원을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광고(1백만원)+수맥탐지봉(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과 회원증, 해설위원 위촉장을 보내드립니다

국제화 도약을 위한
마닐라 통신 大學校 讓渡
학교 개괄
1. 4년제 (연 3학기 제) 종합 대학교
2. 필리핀 유일한 통신(원격) 대학교
3. 20만명 용량 인터넷

제공학위 : 학사, 석사, 박사과정
제공학과 : 철학(동양(불교)철학) 영어, 사회복지, 상담학, 유아교육, 정보통신, 컴퓨터, 행정학, 경영학, 보건학(전공: 침구, 자연치유 약초, 피부 미용, 카이로프락틱)
서류 제출 : (1) 단체 직접 제출: 단체 소개서, 대표자 이력서
(2) 추천인에 의한 제출: 단체 소개, 대표자 이력서, 추천인 이력서
양수 자격 : 원격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다음 단체 법인
1 불교 종단, 2 사단 법인, 3 신문사
양수인 이점
1.총장이 한국 대학본부에서 경영 총괄함
2.필리핀 대학에서는 통신 교육 제공
3.필리핀 고등 교육부의 직접지원
서류 제출 : vc1600@gmail.com iacik@yahoo.com
양도 협의 절차
1. 학교 실사 후 양도 협의 결정
2. 필리핀 고등교육부의 양도 승인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9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사주명리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않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사주명리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7-711-2248

충청도 사찰(암자)
오래된 사찰이 있던 자리로 남향의 앞이 "탁~트인 조망
고려시대 추정 "미륵석상" 2분이 모셔져 있음
(문화제 등록가능)
부처님과 산신이 모셔져 계시는 가건물2동과,
도량이 깊은 "터"
- 마당 앞 기암괴석 "청정계곡과 암반에 작은 폭포"가(원천수) 있습니다.
- 토지 내 "산신터와 용신터"가 있습니다.
- 약300년된 노송과 계곡 옆 여러주의 소나무 운치 (정자터 최고).
- 천둥산으로 둘러싸인 박달재 마을 최상류 정남향의 "배산임수"
- 중앙고속도로 서제천IC에서 10분소요.

충북 제천시 봉양읍
절자리 1천평 1억 8천만원
전체를 구입시 2천평 2억 6천만원
문의 011-9840-9138
* 저는 불자로서 이 땅은 꼭! 절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과 인연될 스님을 빨리 기다립니다.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를뿐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 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74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 만 5천 6백원)+수맥 탐지봉(1만 5천원)+휴대용 케이스(2만원) 무료 기증해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74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하루밤이면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입금, 전화(1688-1137) 주시면 저자가 직법 사인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8천 8백원) 무료 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www.kbs.cc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 수상 육효 자미두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확실하게 공부. 수료증 자격증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	●위치 : 부산	●위치 : 서울
●법당 : 20평	●법당 : 40평	●법당 : 20평
●요사 : 150평	●요사 : 80평	●요사 : 40평
●부지 : 700평	●부지 : 160평	●부지 : 100평
●가액 : 20억(조정가)	●가액 : 7억 8천	●가액 : 14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전남	● 위치 : 경기
● 부지 : 100평	● 부지 : 450평	● 부지 : 200평
● 건평 : 150평	● 법당 : 30평	● 임법당 : 35평
● 시내요지	● 요사 : 40평	● 요사: 40평
● 가액 : 18억	● 가액 : 1억 2천만원	● 가액 : 6억 3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부산 영도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공원)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부산 전통 와가 사찰(3층)
● 총대지 : 약 108평
● 법당(와가) 30평, 삼성각, 주지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방 8칸
● 법당 뒤편 산(공원)
● 버스 도로 접
● 가액 : 4억 3천(은행 2억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비밀보장 철저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50평,
● 심야전기, 신전자제품완비
● 방4개, 법당, 공양간, 욕실2개
● 법당내부신도실완비
● 몸만 들어 오면 즉시 법회 가능
●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564-8088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암 자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124평, 법당 13평
● 요사채 24평, 방 2, 현대식거실, 주방, 2층 다락방1
● 가액: 2억 2천 (융자 5천 5백 포함)
● 마을안 전원 주택같은 암자
010-9249-19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구제봉 줄기
● 임도 삼리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곳
● 총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 및 포교원

● 위치 : 충북 옥천(130평)
● 건평 약 80평(2층)
● 대전역, 터미날 IC 5~30분이내 대전생활권
● 가액: 3억 2천만원
● 포교원: 대전 유성구(40평)
● 삼존불, 탱화, 주차편리
● 상당하시는 스님 최적,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6888-4956

고 찰 사 지 안 내

● 부산 근교 가야시대 창건한 문화재 보존 사찰임
● 문화재 발굴 후 건축할 수 있음
● 대가람 중창의 대력 원력의 인연만 연락요
● 약 700평 ● 가액: 5억 5천
055)273-0053
010-3571-0042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약간
010-8653-321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동부산 대학교입구
● 평수: 30평 , 3층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51)545-5572
011-590-57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전세 500만원
063)543-5551
010-4427-225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 + 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응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동래 (지하철 2분거리)
● 현 법회 기도중
● 3층 건물 중 2층 50평
● 스님 공찰 소임관계로 급 안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있음
● 문의 오후 5시 이후
017-586-569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 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백안동 백안삼거리 교통요지
● 2층 중 1층 한옥주택 임법당(20평)
● 방 2개, 거실 및 법당, 욕실
● 주차장 완비, 현재 철학강의중
● 가액 : 전세 2천 5백만원
010-9911-34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평동
● 대지 : 약 200평, 법당 : 30평
● 한옥기와 요사채 1,2층 100평
● 시설(각종 비품 포함)양도
가액: 8억 5천만원
010-6356-4058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 대지: 200평, 건평: 50평(1층, 2층)
● 2층법당, 삼존불
● 시설 완벽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권리, 비품대) 8000만원
016-9620-099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전 120평
● 임법당 15평, 큰방 2칸 작은방1
●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2평 집기 일체
● 비구니스님기도처 적합
● 가액: 8,500만원
● 꼭 필요 하신분 연락 주세요
011-340-5963
010-6667-577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 25평, 2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신중, 산신, 소불 120불
● 가액: 8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6485-8204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용궁리
● 대지 200평, 요사채 40평
● 방 4, 화장실 2, 법당 12평
● 심야전기
● 가액: 1억3천만원
010-5189-571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 대지 605평, 건평 130평
● 4동,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 슬라브집 30평, 창고, 화장실
● 가액: 2억 5천만원
010-3174-2336
010-2874-884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장부근)
● 평수 : 42평(시설완벽)
● 3존불 1000불조성
● 가액: 3천만원
010-9692-12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구리시 교문동
● 3층중 2층 50평. 대로변 앞 뒤 산이 보이는 전망
● 법당 25평, 방 3개, 주방 大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없음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릉시 상동면
● 평수 : 80평
● 요사채 방 6칸
● 법당: 삼존불, 석탑, 약사보현보살, 보현보살
● 가액: 8천 5백만원(절충가능)
● 주위가 청정수려함
010-4606-387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금정시장 입구)
● 2층 , 평수 : 약 50평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7백만원
010-4432-270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약 42평(2층)
● 구조: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53-73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4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450평(등기필), 와가법당20평
● 2층 요사채 38평(창고 15평) 옥외 화장실 6평
● 6층 석탑(제주석)
●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은 방문시 보시고 절충가능
010-3791-7037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북부 팔달구 마을 끝집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영해
● 대지 : 74평
● 임법당, 텃밭있음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6천 5백만원
054)787-1935
016-677-1935

사 찰 안 내

● 위치: 여수 돌산 ● 땅 250평
●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31억 7천만원 (금액조정불가)
010-6227-596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서동
● 법당 29평, 요사채방 2칸
● 친견실 1칸
● 2층건물 중 2층
● 가액: 전세 5백, 월 32만원
● 답사후 시설 절충(급)양도
010-8517-2357

작 은 토 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 평수 : 대지 110평 (건평 30평)
● 임법당
● 가액 : 1억원
033)434-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사 찰 안 내

● 위치 : 계룡시 근교
● 대지 : 112평
● 경관수려한 사찰로 신심을 맑게 하는 청정기도도량
● 가액: 1억3천만원
016-742-2122

포교원최고요지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완벽 법당1실, 방 4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2500만원
055)372-3563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 금호 ● 부지: 106평, 건평 60평
● 법당1, 거실1, 방3, 공양간1 창고, 보일러실, 화장실,지하수
● 조경 – 뒤에는 작은산, 앞에 큰 저수지 有
● 조용하고 아담한 수행도량
● 비구니 스님에게 적합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방3, 부엌1, 화장실
● 아미타석자반동굴, 장보살2자반 동굴,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산신탱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多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0-5336-88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아래
● 평수: 5층 건물 중 3층
● 약 60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 최상의 시설로 주차장과 모든 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32)553-9799
011-617-40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길음동 , 전철 출구 바로 앞
● 4층건물 중 2층
● 실평수 40평, 법당 2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100만원
010-2665-23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366-4905

전원주택 토굴 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2753-70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영등포시장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번화가
● 4층 건물중 4층 옥탑방, 옥상사용
● 법당 20평, 방2, 욕실 주방 살림가능
● 후불탱화, 삼존불, 산신 지장小불
● 현성업중,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3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나가면 결국 보이게 된다

강 사 : 법현 스님(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일 시 : 2009년 10월 14일
주 제 : 한국 종교를 말한다
장 소 : 한신대학교 60주년기념관
주 최 :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고타마 싯다르타는 29세에 출가해 6년 동안 여러 종교를 접하고, 고행 끝에 비로소 중도(中道)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게 됐다. 다양한 종교가 어울려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런 중도 사상은 누구나 가져야할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태고종 교무부원장 법현 스님은 KCRP 종교간 대화위원을 맡으며, 각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10월 14일 한신대학교에서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주제로 한신대 교수진,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를 통해 설명하고 모든 종교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것에 집착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요구되는 중도는 불교의 중요한 사상이다. 다른 종교를 이해하면서 불교 수행을 하는 법현 스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하는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비우고 사회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한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법현 스님.

그것 또한 지나가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던 운동가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단결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생각해 보면 이는 참으로 웃긴 말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흔들리기 마련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사막지역에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만이 살아남습니다.

<법구경(法句經)>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 '독사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흔히들 독사를 만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막에서 만난 독사는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줘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처럼 지역, 문화 등에 의해 그것이 달리 생각되어질 뿐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차동엽 신부가 쓴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도 소개돼 많이 알려지기도 한, 솔로몬의 일화 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왕이 어느날 보석세공인을 불러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반지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게 하고 힘들 때에 용기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길 것을 보석세공에게 주문합니다. 보석세공인은 반지를 만들고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솔로몬을 찾아가 글귀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라는 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승리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패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용기를 얻게 되죠.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한준(1732~1811)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러한 지나간 상황을 겪으면 결국 보이게 된다는 뜻이죠.

틀린 줄 알았는데 다르고 다른 줄 알았더니 같다
혀와 말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어


법현 스님의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주제의 강연을 듣고있는 한신대 학생들.

#명상 통해 모두가 '하나'임을 체험해야

그럼 과연 이런 말이 어떠한 뜻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틀리다'와 '다르다'에 대해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틀리다'는 것은 알고 보면 '다르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르다'의 경우, 그 구성요소를 분석하면 결국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시기는 추워지기 직전이라 모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기가 자신의 피를 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갯소리로 모기와 피를 공유한 사이가 돼버립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미 같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른 곳에서 공유한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면, 결국 같은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붙어있는 상태는 살았다고 말하며, 떨어지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 형성되고 죽는 것을 반복 하는데, 이는 결국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명상수련인 호흡법을 통해 명상을 진행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물질들은 일부이며 마음도 구분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모든 것은 같은 존재며, 틀린 줄 알았는데 다르고, 다른 줄 알았더니 같고, 결국엔 맞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말하는데, 이렇게 마인드가 전개되는 것이 결국 우리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 통합 또는 분열의 매체

독도 되고 약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우리의 혀와 말은 좋게 쓰이면 좋은 말씀과 화합이 될 수 있지만, 나쁘게 쓰이면 반대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감각과 지각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는데, 감각은 눈 · 귀 · 코 · 혀 · 몸 · 뜻(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식(識)이라 하여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각을 통해 지각의 현상과 법칙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흔히들 법과 진리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는데 이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법칙을 이해하면 법이고 진리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이고 사고입니다. 흔히 교통사고도 날만한 상황이니 나는 것입니다. 날만한 상황이 아니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 정보를 잘 받아들여, 어떻게 저장하고 전달하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전달자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혀라는 것이 문제가 돼, 전달자의 번뇌와 싸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혀가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언어화한 것이 문자이죠. 그리고 이런 문자의 사회적 약속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표면의식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깨워야만 합니다. 개념파악이 분명하고 발라야 어느 공부든지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교, 수행, 명상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말이 곧 사회통합 또는 분열의 매체가 되기 때문이죠.

한국불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500년 동안 탄압받아 오던 불교는 일본의 침략 때문에 억압된 불교의 상황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 진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불교를 다 개방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불교음악인 범패입니다. 범패를 금지한 것에 대해 정확한 이유가 설명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하는 바로, 신라때 일본 구법승인 엔닌(圓仁, 794~864)이 당나라 유학당시 쓴 <입당구법순례행기에(入唐求法巡禮行記)>에 산둥반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산둥반도 편에 해상왕 장보고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는데, 그 기록에는 당시 장보고가 지은 법화원이라는 절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는 불교의식이 당풍도 향풍도 아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그 당시 그 절에서는 당나라도, 일본식도 아닌 신라 고유의 염불과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면 그런 비슷한 의식이 생겨나고, 비슷한 문화는 그만의 비슷한 의식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면, 그 나라에는 한국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통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 나라만의 언어, 문화, 음악 등이 금지 돼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말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어야

21세기는 문화, 생태, 명상, 수행 등이 주가 되는 시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톨레랑스처럼 이 시대는 관용과 용서의 시대여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종교, 사상을 떠나 이런 덕목을 지닌 사람이 종교, 단체,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종교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닌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나간다'라는 말은 불교적 의미도 담겨 있지만, 시간적 관점도 포함돼 있는 말입니다.

개구리는 적정 온도의 물에서는 높이, 그리고 멀리 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물의 온도가 변해 뜨거워지면 멀리 뛰질 못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옛날 프랑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수도원 원장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늘 고양이의 목을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사를 드릴 때 고양이가 시끄럽게 할까봐 그랬던 거였는데, 그 신부가 워낙 뛰어난 분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 행위마저 위대하게 보고 고양이를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의식이나 전통에도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현재의 일, 사랑, 수행, 명상, 공부 등에 열심히 매진해 정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eoj84@buddhapia.com

불자정보 754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 40평
● 2층 건물에 2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32)549-20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 동부지청 부근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30평
● 가액: 2천만원, 월 20만원
051)782-0110
010-3101-11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평수: 약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 20만원
● 시설비 집기일체 1,500만원 (절충가능),시세 반값도 안됨
051)503-0908
010-2291-55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사찰암자 터
● 위치 : 경북 영양에 지방도 계곡 접한 언덕위 국유림 내에
● 전1842평 같은곳 전 925평
● 평당 5만원. 호조건 주인직
054)682-8888
011-538-22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최고 위치, 최고 시설
● 삼존불,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42평
● 가액: 전세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세요
010-5453-5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시장 2층
● 약 5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방3, 공양간,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됨,유동인구 밀집지역
017-541-1140
051)631-2378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산 신도시 고잔역 바로 앞,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
● 1층, 실 50평
● 전체 온돌마루(인테리어최상급)
● 방4, 주방, 공양간, 샤워실
● 법당 30평 별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31)410-1896

사찰(급)안내(포교원)
● 위치 : 경기도 부천 (위치 아주 좋음)
● 평수: 실 37평, ● 법당, 방2,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등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32)666-0424
010-9494-9713

포교원 안내
● 위치: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 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가곡동 시장통
● 평수 2층 65평, 방2, 공양실1, 화장실 남녀 각 1개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협의가능
● 모든 시설완비, 현재 운영중
● 스님 봉찰 주지 문제
011-590-287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 평수 2층 65평, 방2, 공양실1, 화장실 남녀 각각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협의가능 모든시설완비, 현재 운영중 스님 봉찰 주지 문제
011-590-2878

부 산 대 사 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011-563-15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 법당 72평, 관세음보살, 산신불, 각단탱화, 소불, 관음지장 250불
● 3층건물 중 2층 ● 방 3, 목욕탕, 화장실 3, 도시가스, 교통편리함
● 가액: 보증금 1천2백만원, 월 62만원
● 시설비 2천3백만원
010-2224-8967

사찰 대출 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죽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죽도 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 대출형식 : 담보대출
· 대출금액 : 5천만 ~ 5억
· 대출금리 : 연 7.2%~8.2%
· 대출기간 : 5년(연장가능)

■ 담당직통
· 상무 : 이강욱 010-9842-4200
· 과장 :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⑩ 품다도

명대 새 문인문화 이끈 '오파'의 차문화

명대에는 지금의 중국 절강성 소주지방을 중심으로 이전 시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문인문화가 태동했다. 이를 선도한 문인집단을 가리켜 소주지방의 옛 이름을 따서 '오파(吳派)'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은 오파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서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스스로도 "일생동안 술은 손대지 않았으나 차만큼은 자주 마셨다"고 말할 정도의 '차 애호가'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산천을 유람하면서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며 다수의 시문과 그림을 제작했고, 틈틈이 차를 품평하거나 차에 대한 글을 정리하면서 그윽한 아취에 젖는 시간이 많았다. 대북고궁박물원 소장 '품다도'는 1531년 어느 봄날 문징명과 가까운 벗들이 초당에 모여 차를 품평하는 정경이다. 단정한 초당 안에서는 차를 사이에 두고 문징명과 그의 벗이 마주 앉아 청담(淸談)을 나누고 있다. 별채에 있는 동자가 풍로에서 찻물을 끓이며 부채질로 불기운을 조절하고 있는 사이, 초당 밖에서는 한 인물이 석판교를 건너고 있다. 자연에 담긴 듯 고목으로 둘러싸인 초가집과 그 뒤로 절제된 색조에 고고한 형태만을 드러낸 산봉우리가 보인다. 곧게 솟아오르다가 가지 하나를 무심히 늘어트린 노송은 분명 산 능선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초옥 옆에 뿌리를 내린 푸른 소나무가 곧게 솟아 잡힐 것 같지 않던 봉우리와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구성을 이뤘다. 이는 노송을 통해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일상생활과 자연이라는 이상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니 그 의도가 참으로 멋스럽다.



문징명(文徵明), '품다도(品茶圖)', 지본채색, 88.3x25.2cm, 대북고궁박물원 소장.

봉우리 위로는 여백을 둬 시원스럽게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상단에 적힌 시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문징명의 서체로 쓰인 시는 그림과 어우러져 각각의 격조를 높이며 융합돼 있다.

푸른 산 깊은 곳, 곱고도 아름다워(碧山深處絶纖矣)
사방으로 난 창문은 시냇물을 향해 열려있네(面面軒窓對水開)
곡우가 막 지나니 차 마시기 좋은 때(穀雨乍過茶事好)
차 솥의 물이 막 끓기 시작하니 멀리서 벗이 찾아오네(鼎湯初沸有朋來).

시문에서는 차 마시기 좋은 탈속의 자연풍경과 함께 차 만들기 좋은 시기로 곡우(양력 4월 말경)가 소개돼 있다. 그런데 이는 그 전시기인 송대에 비해 찻잎을 따는 절기가 한달 가량은 늦춰진 것이니 어찌된 일일까. 이러한 변화는 그림 속 다구의 표현에서도 보인다. 인물들 앞에 놓인 다구(茶具)라고는 소박한 다완(茶碗)과 다호(茶壺)뿐인데 송대의 화려한 탕병과 잔탁 세트, 말차 거품을 내던 다선에 비하면 단출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묘사는 사실 문인의 소박한 살림살이만을 드러낸 것은 아닐 것이다. 명대에 들어 차를 만들고 마시는 방법에 있어 일대의 전환을 맞이하는데 그림은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391년, 명의 태조 주원장은 농민이 단차(團茶, 말차)를 만들기 위해 받는 고통과 폐단을 알고 단차 제조를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다. 이후 단차를 대신해 찻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마시는 산차(散茶, 잎차)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됐고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다와 음다법의 변화로 인해 명대는 산차에 맞게 찻잎 따는 시기나 다구의 형태가 바뀌었던 것이다. 차 거품을 낼 필요가 없어진 다완은 입지름이 줄어들고, 찻잎을 우려내야하는 다호는 송대에 비해 둥글면서 자그마한 형태로 바뀌었다. 문징명은 다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상을 소박한 듯 세심하게 표현한 것이다. 문징명의 <품다도>는 명대 들어 더욱 맑아진 차색과 깊어진 차향을 음미하는 문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탈속을 추구하는 이상과 뜻을 함께 하는 벗이 어우러져 더 깊은 향기를 전한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⑦ 봉암사(鳳巖寺)



1947년 가을, 안타까운 시절 속에서 고뇌하던 몇몇 스님들은 희양산 봉암사에 걸망을 풀었다. 부처님 법대로만 살기로 약속을 하고, 안타까운 시절과의 결별을 다짐했다. 훗날 그 뜻 깊은 시간들은 시절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의미가 됐다.

또 다시 가을이 찾아오고, 전국의 수좌들이 봉암사를 찾았다. 봉암사결사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가을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법회가 시작됐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영진 스님이 참회문을 낭독하자 사부대중은 합장으로 참회에 동참했다. 다시 안타까운 시절이 찾아온 걸까. 60년 전의 그 도량엔 1만의 사부대중이 비를 맞으며 기억 속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안타까운 시절마다 대중은 모여서 약속을 했고, 다짐을 하며 떠나갔다. 모두가 떠난 봉암사. 마당엔 가을바람만 서성거리고, 담장 너머에선 누군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詩가 있는 도량

▪ 어머니 품에서

알싸한 하현달빛
눈처럼 깔리는 밤
달깍딸깍 떨어지는 뼈마디 삭는 소리
저릿한 어머니 품속
살금살금 파고든다

말갛게 졸아든 육신
온 밤을 잠 못 들고
옹이 진 주름살만 손바닥에 툭, 툭 걸려
이리도
시린 바람이
이내 속 후벼 팔 줄은

이 밤 지새고 나면
얼마나 더 가벼워질까
평생 받은 온기를 돌려드릴 수 있다면
이 한 몸
달빛에 녹는 눈꽃되면 어떠랴

–이승현, 시집 <빛, 소리 그리고>

옛 판화의 세계

이발이 법을 배우다
이발참문(李渤參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귀종 석지상이, 제자백가의 책을 해박하게 모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별명을 이만권이라 불렸던 이발과 법거량을 하고 이발이 법을 배우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귀종(歸宗) 화상은 마조의 법을 이었고, 강주의 여산(廬山)에서 살았다. 선사(禪師)의 법명은 지상(智常)이며 성씨는 알 수 없다. 선사(禪師)께서 오랫동안 남전과 도반이었는데 신체가 기묘하고 이상해 보는 이가 모두 의심하기를 왕이 될 상호라고 수군거려 결국 독약을 눈에 쐬어 눈이 붉게 되니, 사람들이 눈 붉은 귀종(歸宗) 화상이라 불렀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종지상 스님을 만나게 되자 이발이 물었다. '수미산이 겨자씨를 받아들이고 겨자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깨알이 수미산을 받아들입니까?' 지상 스님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박사의 학문은 만 권의 책을 열람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자 이발이 말했다. '분수에 넘치게 그런 헛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지상 스님이 말했다. '사람의 키는 아무리 커도 10척의 몸밖에 안 되는데 만 권의 책을 어떻게 그 몸에 붙여 놓을 수 있습니까?' 이발은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다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좋은 말씀이라 칭찬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모두를 비운 곳에 모두가 차는 법이라고 했듯이, 모든 존재의 본질인 사라짐을 통해 텅 빈 자체가 될 때, 작은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녹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텅 빈 마음속에 우주 삼라만상이 깃들듯이, 수만 아니 수억 개의 수미산이라도 겨자씨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겨자씨와 수미산이 둘이면서, 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새겨 보면서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깨달음의 세계에 한번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귀종 선사와 많은 조사들이 깨우침을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듯,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자후를 하는 큰 선지식들이 많다. 우리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식이 없다고만 한탄하는 것이 아닐까 반성해 보면서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의 세계를 헤엄쳤던 많은 선지식들이 부러울 뿐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이발참문(李渤參問)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훼이셜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를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전신용 (30cm x 130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님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 삼베수세미
각 ~~4,000원~~ ➔ 3,600원 (10%DC)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세안용 (30cm x 28cm),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한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한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한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한다.



▪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 질까봐 하는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오직 자기근본에서만이 모든 걸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앞의 신도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대답은 다 받았지만, 지금 이해도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종합건강진단을 위하여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위암에서 간으로 전이된 말기 암이라고,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 7월에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가서 한 20여 일간 사경을 헤매었는데, 저도 이 한마음선원을 접한 지는 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말로는 불교 집안이라고 했지만 불교의 법도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집사람은 딴 교인인데도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도 모르게 진주선원에서 천도재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숨통은 틔워 놓았다고 하셨다고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왕 가는 마당에 깨끗하게 간다고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데 거짓말같이, 진짜 거짓말같이 제가 그 뒷날에 바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래, 어떤 절인지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자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 내켰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 문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그래서 단숨에,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인 제가 딱 정확하게 13일 전에 큰스님 친견을 하러 승용차를 밤새도록 한 4시간 만에 몰고 본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을 친견을 못하고 내려갈 때는 힘이 좀 빠지더만요. 가면서 테이프도 듣고 하면서, 제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뭔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친당숙 삼촌들 한 8명이 젊은 나이에 암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종손이면서 장손이고, 또 우리 세대가 저 밑으로 한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이라는 걸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저의 대에 와서 또 이렇게 되니까, 잘 먹고 잘살 때는 몰랐는데 그 고(苦)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남은 삶인지 모르겠지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큰스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허허허…, 그 순간에 벌써 댁의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 뭐, 저절로 담길 게 아닙니까? 참 고마워요. 생각을 그렇게 해 주니까. 내가 고맙다 할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 이치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허공에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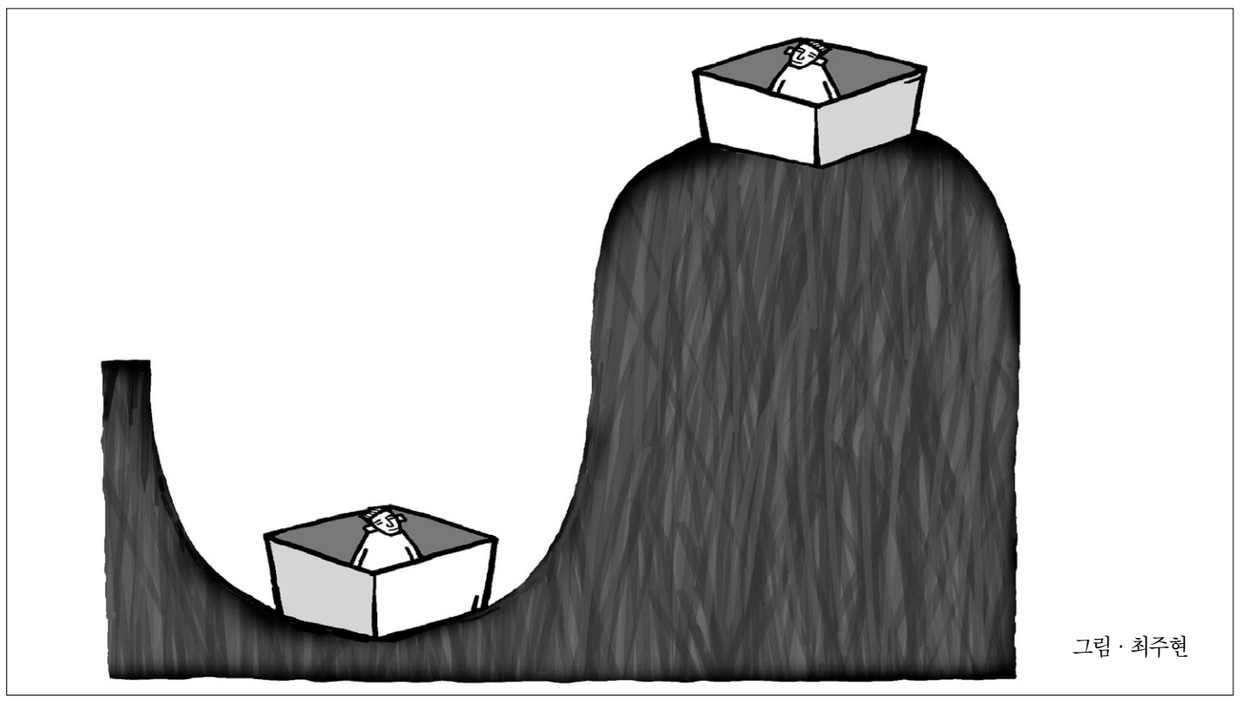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스님! 제가 요즘 둘 아닌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참 편한데요, '둘이 아니잖아,' 이랬을 때에는 뭔가 걸립니다. 그렇게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나름대로 관해 본 결과 '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스님, 진정한 믿음의 공덕을 좀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하는 거는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죠? 또 '둘이 아니잖아.' 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잖아.' 이 소리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대대로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천 년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만에 그 유전을 해체시킬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어저께가 과거입니다. 어저께가 과거고, 아까 한 시간 전이 과거니까, 우리가 과거다 미래다 또는 현실이다 할 게 없이 그대로 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먹는다 해도 내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목이 말라서 달라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근본에서만이 자기의 모든 걸 리드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처음에는 '저건 형상이지.' 이렇게 따지시지만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신다면, 해 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내가 몸이 몽땅 공해서 비었다면 저 부처님과 같다. 부처님과 같으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니 못 볼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못 건질 게 없고, 모든 게 다 그렇다.'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마음에…,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거나 또는 말을 잘못 한다거나 이런 원인도 눈 하나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냥 공체로 봐라, 공식으로 봐라. 아무리 강도라도 강도가 아닌 사람이 강도를 볼 때는 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도면 강도로 봅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봐도 강도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곱고 텅 빈 사람은 그대로, 악이든지 선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불쾌하게 하질 않습니다.

사찰마다 스님네들이 노비를 얻으러 옵니다. 그런데 얻으러 오니까 싫죠. 얻으러 오니까 싫은데 그게 얻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전자에 빚을 졌기 때문에 주는 거다, 갚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인의롭게, 섭섭지 않게 잘한다면 그건 모두 보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보살 케이스에 들질 못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하기만 하겠습니까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거기다 놓고 관해라. 거기다 놔 버려라. 네가 공해서 없다면 모든 게 없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안 탄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것도 없다.' 이게 모두가 끊어진 상태죠. 예를 들어서 '배움이 끊어진 사람은 한가하기 짝이 없는데, 망상도 버리지 않고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악도 버리지 않는다.' 이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니게 되죠.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 하나 벌레 하나라도 다 둘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급하면 새들도 와서 일러 주고, 이런 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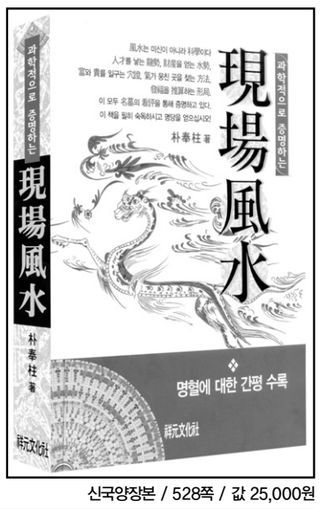
이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직감적으로 다 잘 아는데 사람들은 요기서 요 한 발짝 사이도 몰라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가 맞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가는 새도 있고, 미리 탈출하는 짐승도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고 죽는다 이거죠. 그것들은 알고도 힘에 겨워서 죽는데, 사람은 피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모르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알게끔 다 해 놨는데 왜 모르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찢고 찢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살아온 것이 얼맙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나는 지금 뭐가 급하냐. '이 주머니 속에서 내내 수없는 나날을 그냥 그렇게 살겠느냐? 탕탕 털고, 탁탁 털고 나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질문자3(남): 스님, 이왕 쉽지 않게 나왔으니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크게 불사를 일으키신 왕을 보고 전륜성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달마 조사께서는 똑같은 행을 한 왕을 보고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결국은 스님 자신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달마 조사님의 둘 아닌 뜻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달마 스님이 그걸 똑바로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다. 나는 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었다. 너희들 똑바로 봐라.' 하고서 신 한 짝을 주장자에다가 걸고서 보여 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날까지 그 말씀이 내려오고 있으니 그 왕

☞22면으로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現場風水
현장풍수
❖명혈에 대한 간평 수록!
풍수지리 안내서! 풍수지리의 근본사상은 승조효친사상이다.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먼저 자기 조상을 숭상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풍수지리에 대해 소개한다. 심혈 순서, 음양오행론, 나경총론, 용법론, 각종 사법론, 혈장총론 등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명혈에 대한 간평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제1장 심혈 순서
제2장 음양오행론
제3장 나경총론
제4장 용법론
제5장 각종 사법론
제6장 혈장총론
제7장 수법론
제8장 발복추산법
제9장 본신룡의 특성과 물형론

朴奉柱著
신국양장본 / 528쪽 / 값 25,000원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祥元文化社

오직기도할뿐!
하루 108번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기도 입재
4분정근
새벽기도 : 33번
사시기도 : 21번
2시기도 : 21번
저녁기도 : 33번
◆입재일 : 10월 18일 (음, 9월 1일) (1차 100일 기도)
◆시 간 : 오전 10시 30분
◆동참비 : 10만원 (농협 073-02-262101 전혜진)
◆접수처 : 전화 041)942-9465 팩스 041)942-8465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703-4
성불사선보 합장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buddhanews.com

어떠한 일을 하든 오직 주인공에다 맡겨놓고 해 보세요

☞21면에서 계속

도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질문자3(남): 그러면 그 왕이 그 스님을 죽인 죄에 대한 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큰스님: 그거를 뉘우치고 둘 아니게 봤다면 없을 것이고, 둘로 봤다면 그거는 인과성으로 또 흘러 내려가겠죠.

질문자3(남): 지장보살님은 지금도 지옥 문고리에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상계를 보면 전혀 보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마 지장보살의 보람일 겁니다.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보살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그 도리가 바로 보살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걸 항상 둘로 보시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질문자3(남): 예, 스님께서는 이미 다 구족하시고 부족하신 게 없으시고 더 이루실 것도 없으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신 스님께서 시끄럽고 험악한 이 자리에 그냥 나투어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저는 느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스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리무중입니다. 도저히 스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살아 계신 스님을 보고도 그 마음을 느끼지를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보살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스님!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제가 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역력하게 살아 계신 모습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 제삼자인 내 마음을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없든지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항상 진짜로 믿고 '나를 내내 이끌어 왔고, 세세생생에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너뿐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그렇게 되죠. 이게 '나'라고 하니까 자기만 집어넣은 것인 줄 알고 또 누구 집어넣고 누구 집어넣고 이러죠?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 하나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누구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다면 복잡해서 못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에다만 해도 그렇게 모두 전부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마음으로다가 둥글려서 하나로만 해서 모든 걸 집어넣는다면 땅속에서 사는 벌레도 알고 아마 인사를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어. 나는 벌레의 모습을 이제 벗어날 거야.'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고, 어디를 가나, 들어오나 나가나, 어떠한 일을 하든 그 모든 거를 오직 거기다가 맡겨 놓고 해 보세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공부예요, 그게. 진짜 공부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도 거기 놓고 그른 것도 거기 놔라, 옳고 그른 게 모두가 둘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도 함이 없이 사는 거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 삼아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급한 사람들은 와서 애길 하고 가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왜 그렇게 애길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말을 해도 그냥 해결이 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줄창 와도 안되죠. 그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병이나 낫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이죠, 급하니까. 그래서 "급하다는데 어찌 스님은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어떤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급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하고요.

그런데 와서 말하는 사람이나 또 생각을 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순간 찰나죠. 그거를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얼마나 밉고 곱고도 없느냐, 잘살고 못살고 그거를 평가하지 않느냐, 돈이 적고 많고를 평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모두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전깃줄이 요만하다면 저쪽에서 가져오는 마음도 전깃줄이 요만하겠죠. 그렇다면 요만한 걸 가져오느냐, 그 전깃줄마저도 안 가져오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올 수밖에요. 전깃줄을 요만한 거라도 가지고 와야,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서 가져와야 이게 이어지면서 불이 들어올 텐데 말이에요. 한 쪽에만 있어도 그것은 불이 안 들어오죠. 한 쪽 줄만 가지고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두 쪽 다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가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불교'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는 진리를 말한 것이고 생명과 삶을 말한 것이지 그것은 종교를 말한 것이 아니다. 진리다, 그냥. 그런데 당신네들은 진리라는 거를, 종교라는 거를 이름을 지어 놓고 내 종교, 네 종교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애든 어른이든, 늙었든 젊었든 간에 모두, 자기 주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 어린애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처를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의 소리를 자기가 듣고 산다 이거야. 과거 수없이 거듭거듭 지나오는 동안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의 소리를 듣고 산단 얘기예요. 자기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어떡한다' 하면 그대로 자기 소리가 그냥 자기 소리죠, 뭐. 처음에는 그것을 듣는다 이러면 배우지만 나중에는 '배우는 것도 또 가르치는 것도 없다, 둘이 아니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나라마다 말이 다 각각이고 종교가 다 각각이지만, 내가 그래서 여기 기독교나 가톨릭교 다니던 분이 오시거나 그런다면요, 항상 그래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주님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주처가 항상 자기한테 있지 자기 빼놓고 뭐가 있느냐?" 이러죠. 자기가 자기를 빼놓으면 이 세상은 어딨고 상대는 모두 어딨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어느 제자가 아파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부처님 뵙기를 아주 소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줄 알고는 부처님께서 그 아픈 사람에게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좀 어떠냐?" 하면서 들어가니까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마라. 껍데기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냥 드러누워 있되 너부터 먼저 알아라. 그래서 내 마음도 네가 알게 되면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 둘이 아닐 것이니 그렇게 해라." 하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껍데기로 이렇게 휘휘 젓고 다니다가 정말 그릇대로, 차원대로 살다가 죽으면 자기 인연 따라서 가는데, 인연 따라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 독일 수용소에 가서 천도를 시키는데요, 모두 두더지, 쥐 이런 걸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흙벽 안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나와서도 오고 갈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당하고 살던 그 환상이 눈앞에 벌어져 있으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환상들을 다 치워 주니까 그때서야 다 나온 거죠. 그리고 쥐나 두더지나 다람쥐, 뭐 이런 걸로 된 것에다가는 입력을 해서 넣어 줬지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어도 입력을 해서 넣어 줬으니까 꼭, 몸을 벗으면 바로 인도환생이 되죠.

> 이 주머니 속에서 수없는 나날을 내내
> 그냥 그렇게 살겠느냐, 탁탁 털고 나서겠느냐?

그러니까 쥐들도 다들 알아듣고 얼마나 좋아서 뛰는지 정말이지 실감을 하면서 뭐라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느냐 하면요, '여기 온 것이 참, 내가 당신네들한텐 큰 심부름을 했구나. 그런데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구나.' 하고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함이 없이 한다고 항상 그랬죠.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라는 게 뭔가. 내 모습이 내가 아니니까. 내 모습이 아닌 바로 나 자체가 이 모두를 함이 없이 한 거니까, 대단히 좋은 일을 보살 부처님께서 모두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종을 울리면 애들이 다 모이죠? 그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내 마음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어느 성당인데 이 지하로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땅굴을 파서 왜, 이쪽저쪽으로 굴을 파서 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숨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벽 사이에 모두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붙들어 가고 그 굴에 들어간 사람은 붙들어 내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랬는지.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있는 건 있는 건데 어떡합니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구 안에서도 이렇게 수없이 나면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죽고, 낳고 또 죽고, 낳고 또 죽고 이렇게 끊임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인파를 개개인으로다가 나오게 한다면 문제가 좀 크지 않은가. 지구는 요만한데 사람들이 많으면 지구 그릇이 무거워서, 무거운 거는 아니죠. 무겁지는 않은데 정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사람이 그냥 여기서 뭉텅 죽든지, 저기서 뭉텅 죽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내 나름대로, 내가 한 일도 없지만 한 일 없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뒤의 부처님을 곰곰이 잘 들여다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장 육부도 전부 비고, 손발이 있는데 걷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손발도 없죠? 머리도 없죠. 전부 없죠. 없으니까 세상 허공에 꽉 차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6·25때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놔두고 가고 뭐, 긴 염주 그런 거를 다 팽개치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삼스럽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스워서 웃다가 하는 말이, 혼자말이에요, 이게. '만날 조금도 놓치지 않고 예배를 올리고, 조금도 놓치지 않고 목에다 걸고, 조금도 놓치지 않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째 다 버리고 갈까.' 하고요. '진짜로 저렇게 다 버리고 갈 수만 있다면 저 부처님은 자기하고도 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이 응할 텐데….'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공부라고 하는 것도 딴 사람이 듣기에는 '저 스님은 만날 좌선도 안 시키고 뭐, 뭣도 안 하고 생활 불교로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태평하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태평하게 놔두면 스스로 여러분이 각자 다, 앉고 싶을 때 앉을 거고,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고, 일할 때 되면 일하고, 누워서 잘 때 되면 잘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틀린다면 벌써 이건 참선이 아니죠. 그건 끊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는 오장 육부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귀도 가지고 눈도 가지고 코도 가지고 입도 다 가지고 있지만 함이 없이 이끌어 가는 데가 있구나. 함이 없이 하는구나. 함이 없이 사는구나. 그런데 좋은 마음을 쓰라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갖게 해 주었구나. 인간이라 갖게 돼 있구나. 나쁜 것 좋은 것은 알게 돼 있구나.' 이거 말이에요. 나쁜 것 좋은 것도 모른다면 짐승과 같죠, 뭐. 그래도 짐승은 인연을 알아서 주인이 죽게 되거나 이런다면 그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해요. 집이 무너져서 식구가 다 죽을 텐데 쥐가 나와서 소리를 내고 춤을 추니까 바깥에서 무슨 소리냐고, 식구가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 동안에 그 집이 무너져서 식구들을 다 살렸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하며…, 아마 예전에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나' 하면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나 아닌 나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이 없이 모든 거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 그놈이 하는 거죠. 그놈이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다 보면 첫째, 이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날 거고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에너지로 발생을 해서 진화가 돼서 살든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뭐, 우리가 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렇지 우주도 많고 혹성도 좀 많습니까? 별성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종자가 생겨서 이렇게 인간으로 된 거니까요. 이 공기주머니도 그렇게 해서 내려 준 거고요. 우리 생명이 생기니까 그렇게 공기주머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같이 또 만납시다.

※위 법문은 1999년 9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2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1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1월 5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이학송
의정부 광동고 교장

다음세대 위해 투자하는 교육 필요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행복할까? 이 물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화두이다. 최근 국감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신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놀이 문화가 사라지고 학습 환경이 실내중심으로 바뀌면서 '약골 청소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청소년 자살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고,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는 점점 저학년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년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나 2008년에는 무려 7만 2000명을 넘어 섰다. 이외에도 게임중독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 가정환경으로 결식하는 학생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지덕체(智德體)를 강조하던 교육 이념이 활발하던 때에는 적어도 교육의 방향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요즈음 교육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입 수능시험 결과와 소위 명문대학교 진학률 등의 잣대로 학교 평가 등을 다해버리는 어리석음을 함부로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옛말도 있듯이 교육의 본질은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덕성(德性) 등이 청소년시기에 잘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중·고교 교육과정은 이런 점을 감안해 다양하게 편성돼 있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 성적 위주로 집중되고 있고 기타의 고려 요소는 상당히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특목고인 외국어고나 과학고는 이름 그대로 외국어와 과학 분야에 대한 특수 교육을 수행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어떤가?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도구일 뿐 본질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한가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렇게 선망하던 외국어고에 진학해서 스스로 자퇴한 학생이 지난 5년 동안 전체 외고 학생의 2%에 달하는 190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온갖 노력을 다해 들어간 외고에서 왜 자퇴를 하는 것일까?

주요 언론에서 습관적으로 강남 교육특구니 명문학교 진학률이 아파트 가격 형성에 절대적이니 하는 등의 표현을 하고 좋은 학교, 나쁜 학교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현실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도시 중심의 평준화 지역과 기타 지역의 비평준화 지역이 있고 도시와 농촌이 환경 차이가 매우 크다. 대도시 내에서도 경제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과 대학진학률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거시적 관점과 여유를 가지고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자. 지덕체가 조화이룬 민주 시민 양성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자. 고졸이나 대졸이나 스스럼없는 선진 사회처럼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체면과 명분을 앞세운 조급한 결과주의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지식인층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解弛)가 심각한 것도 지나친 성과주의가 가져온 결과라고 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잊지 말자. 또한 극소수 상위권만 부각시키는 폐단을 버리고 전체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올바른 교육관이 논의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근간에 편견을 버리고 공교육의 틀 속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장애우 교육이 좋은 사례이다. 배려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한 바로 눈앞의 성과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교육철학이 수용되는 사회의 성숙을 기다려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조용한 선거의 함정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가 자승 스님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당초 출마를 검토하거나 의사를 밝혔던 스님들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음으로 대세는 자승 스님으로 굳어진 형국이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경합 구도가 아니어서 선거정국이 조용하다는데 무게를 두는 관점이다. 1998년의 조계종 사태는 선거를 둘러싸고 발발했었다. 이후 대다수 불자들이 조계종 선거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어 망신스러운 일이 생길까 조바심을 쳐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경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선거는 "조용해서 좋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선거가 지나치게 사전 합의에 의존되어 '야합' 냄새가 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왕 치르는 선거라면 건전한 토론을 통해 종단 비전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올바른 선거문화라는 것이다.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드러내 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후보자 검증 문제를 주문했던 측에서 주장하는 청정성 문제와 특정후보의 자격을 두고 사회법에 제소하는 등 잡음은 여전하다.

공개적인 종책토론 한 번 없이 치러지는 선거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시각이 양분되고 있다는 것은 대세론을 만들어 낸 후보에게 보다 겸허하고 공정한 행동을 주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조용한 선거'와 '야합의 냄새'는 현실이다. 문제는 당선자의 행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자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최근 불교계에 아주 의미 있는 단체가 창립됐다. 신행 현장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신행을 하고 문화 포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온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 모임이다. 소설가 남지심 선생과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가 공동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말로 하던 불교를 행동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우선 목적 사업으로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이 모임은 문을 개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본지가 이 모임을 주목하는 것은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모임의 창립을 이끌어 온 면면들은 불교계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낸 중년 이상의 재가불자들이다. 어느 모임에 가도 존경받을 인사들이 손수 모임을 만들어 남을 위한 삶을 새롭게 서원했다니 귀감이 될 일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오랜 세월동안 불교 활동을 하면서 적지 않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삶을 돌이켜 보고 '누구를 위해 꾸준하게 도움이 되는 일은 얼마나 했던가?'를 반추한데서 모임이 시작됐다니 가슴 뭉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성인들의 면모는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켜 부단히 실천에 옮기는 것일 터이다. 이 모임을 결성한 인사들이야말로 지성인 불교운동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디 모임이 활성화 되어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지구촌 곳곳에 보살행이 넘쳐나길 기원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버스는 달리고 싶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결실

결실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람들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선수나 팀은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최선의 경기를 다짐하지만 승패는 의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응원하던 사람들도 희비가 달라진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상(常)이 아닌 무상(無常)이라 해본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위해 한 해 혹은 여러 해 준비했던 시험이지만, 반드시 통과하지는 않는다. '변수'라는 것이 있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좋은 결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과가 달라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덧없음'이라는 무상의 뜻을 떠올리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이다. 이것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인과를 다르게 보는 보살의 안목이 필요하다. 부처님 말씀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생들이 상상하거나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굳이 삼법인을 말하지 않더라도 덧없이 변화하는 이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중생들의 내면에 잠재한 탐심은 결과에 집착하기에 세상은 고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유마거사는 문병하러 온 석존의 제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소승적 생각을 벗어나라고. <무문관> 내용에서 운문 스님은 생사에 얽매여 있는 대중들을 향해 고양이를 두 동강 내어 보이는 시범을 했다. 천편일률적 사고와 생활을 질타한 것이다. <법화경>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석존은 태자로 있던 카필라성을 나와 가야성 가까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한 것은 방편이었음을 선언한다. 땅 속에서 솟아오른 지용보살들도 과거 자신이 제도했다고 하여 영산 대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멸도라는 말에 얽매이지말고, 영원한 법신을 믿으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르쳤다.

발상의 전환은 <반야심경>에서도 여실히 보여준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인 오온설, 사성제설, 12연기설, 12처설 등을 낱말풀이와 같이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無)'로써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 해야 함을 강조한다. '무'가 갖는 의미는 관행적, 교과서적 시각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를 아는 지혜를 갖추라는 말이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혹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뜻하는 것은 모두 명확한 결과를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살이에서 명확하지 않은 결과들이 더욱 많다. 그래서 세상이 고해의 예토로 보이는 것이다. 같은 인과를 두고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과 성인의 경지인 불보살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중생이 물건과 결과에 집착할 때, 불보살은 법공(法空)임을 본다. 그래서 보살은 고에서 벗어났으며, 두려움이 없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야심경>은 설한다. 삼세의 부처님들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에 위없는 보리를 얻는다고 하였다.

결실의 계절에 중생의 집착이 아닌 보살의 무기인 공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최동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동대산 진흥사
• 주 지 : 현종 (이종희)
• 주 소 :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항리 32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년 10월 14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달마정사 (서울포교원 달마선원)
• 주 지 : 명석 (김대식)
• 주 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1리 760-28번지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삼광사
• 법 명 : 삼광 (안진호)
• 주 소 : 경기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464-10
• 사 찰 명 : 도원정사
• 법 명 : 도원(안규갑)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2-10, 464-8, 464-12
• 사 찰 명 : 청룡사
• 법 명 : 향운(안정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9-19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운주사
• 법 명 : 삼 광(안진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10
• 사 찰 명 : 은해사
• 법 명 : 삼 광(안진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10
• 사 찰 명 : 보림사
• 법 명 : 향 운(안정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9-19
• 사 찰 명 : 칠장사
• 법 명 : 향 운(안정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9-19
• 사 찰 명 : 선운사
• 법 명 : 향 운(안정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9-19
• 사 찰 명 : 화엄사
• 법 명 : 설 송(안상호)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12
• 사 찰 명 : 봉선사
• 법 명 : 대성화(최춘희)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 사 찰 명 : 신흥사
• 법 명 : 도 원(안규갑)
• 주 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2-10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사)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낙산사 화마로 '전화위복' … 보다 원형에 가까워져

양양 낙산사를 가다

2005년 화마로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가 제2차 복원불사를 통해 원형에 가까운 옛모습을 되찾았다.

화재 이후 낙산사는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2007년 11월, 1차로 원통보전 홍련암 범종각 홍예문 복지시설 상락원 낙산유치원 등 12개 전각과 시설을 복원(건립)했다. 이번 제2차 복원불사 회향으로 설선당, 응향각, 무산지역아동센터 등 12개 전각과 시설 불사가 끝났다.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 · 총무원 재무부장)는 10월 12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제2차 복원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녹원 동춘 정무 밀운 혜정 스님 등 원로스님, 설악산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주호영 특임장관,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진호 양양군수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낙산사 복원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되살아 난 천년 고찰의 옛 모습에 환희 찬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복원불사와 함께 가람의 면모가 일신되고 교육과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관음도량의 정신을 되살리는 대작불사로 사찰 복원불사의 모범을 창출했다"고 치하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낙산사 복원을 계기로 불자와 국민 모두가 문화재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어나가자"고 치사했다.

보선 스님은 치사를 통해 "넘치지 않은 절제와 겸손으로 장엄한 낙산사 복원의 미덕은 부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닮아있다. 중생을 대하는 관세음보살의 동정을 닮아있다"고 말했

우송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제 낙산사는 어느 누구의 성지가 아닌 전 불자,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성지가 됐다"고 격려했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기와 한 장, 나무 한 그루에도 자비의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에 감사하다"며 "복원불사 회향을 계기로 미소의 온기가 넘치는 자비의 인연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장관은 "낙산사 복원불사 회향을 통해 새로 태어난 낙산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처, 안식처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불자와 국민 모두 이제는 마음의 불사를 이어나가자"고 축사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낙산사 복원불사의 공로를 기려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복원불사 총도감인 현고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진호 양양군수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정념 스님은 행사에서 쌀 10kg들이 1000포대를 양양군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지역아동센터 4곳에 도서 등 1000만원 상당의 필요물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낙산사는 제2차 불사 회향과 동시에 제3차 불사를 시작한다. 2012년까지 계속될 제3차 불사를 통해 도량 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불자와 국민의 수행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10월 12일 낙산사 제2차 복원불사 회향식에서 봉행된 '빈일루' 현판 제막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이 자리했다. 무산지역아동센터(오른쪽 위)와 낙산사 유치원.





지관 스님 "관음도량 정신 되살리는 복원불사 모범"
108 법륜석 설선당 산불안전체험장 등 대중시설 눈길

정념 스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동안 복원불사를 해왔다"면서 "낙산사가 관음 기도성지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 고증 통해 완연한 옛모습 찾아

정념 스님은 "(2차에 걸친 낙산사 복원은) 건물이나 당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정성과 아름다움을 이어간다는 책임감 속에서 낙산사의 역사를 되찾고 문화를 복원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낙산사 복원은 조선 중기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기본으로 문화재위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정확한 복원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공중사리탑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돼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해를 맞이하는 누각'이라는 뜻의 빈일루(賓日樓)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친필로 현판을 제작했다.

정념 스님은 "옛 문헌들 속에서 찾아낸 낙산사의 모습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과정은 문화재위원과 어른 스님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낙산사 복원을 도와 준 종단의 스님들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낙산사는 복원불사를 진행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과 사찰의 복지활동에 주목했다.

스님은 "아무리 많은 전각을 지어도 찾아올 불자가 없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산과 바다를 동시에 접한 낙산사에 자연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낙산사가 낙산사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문화재입장료 징수를 보류하고, 점심마다 무료 국수공양과 커피를 제공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다. 제공된 국수와 커피 비용만 매월 2000여 만원에 달했다.

#기도정진 자비도량으로 '열린' 낙산사

2차복원 불사 회향으로 낙산사는 '열린' 도량으로 거듭났다.

△해수관음전 108법륜석=2차 복원불사를 통해 해수관음전에 선보인 108법륜석은 108개의 석대에 한 사람씩 앉아 108배 등 기도 정진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108법륜석은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 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홍련암과 함께 관음성지로서의 명성을 드높일 수행공간이 될 전망이다.

△설선당, 정취전 등=원통보전 주변에 세워진 설선당, 정취전, 응향각은 낙산사가 대중을 위해 개방한 공간이다.

응향각에는 각 1평 남짓한 방에 좌복 만이 깔려 있어 누구나 참선을 경험할 수 있다. 설선당은 일반관람객을 위한 쉼터로 정취전은 스님과 불자를 위한 공간으로 쓰일 다실 겸 지대방이다.

이 외에 원통보전 좌측에 자리한 고향실, 송월요, 근행당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으로 사용된다.

△산불재난안전 체험장=2005년 화재 당시 불길이 밀려든 길목에는 산불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산불재난안전 체험장이 설치됐다.

홍예문 아래 능선에 자리한 체험장에는 4년 여가 지난 지금도 화마에 숯덩이가 된 채 나무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이곳에는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이 화재로 녹아내린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무산지역아동센터=2차복원 불사에서는 불교의 미래 동량인 어린이 포교를 위한 무산지역아동센터를 빼놓을 수 없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양양군내에 노인요양시설인 상락원, 낙산사 유치원 등을 설립 · 운영해 온 낙산사는 어린이 공부방 전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무산지역아동센터를 개원했다. 천년고찰 낙산사. 잿더미 속에서 무지개 꿈을 피어올린 2차 중창불사 회향으로 펼쳐질 새 천년에 사부대중 모두의 기대가 크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마음 모아줘 감사해"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낙산사 복원을 위해 4년 동안 마음을 모아 주신 종단 원로 큰스님들과 낙산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낙산사가 관음 기도성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주십시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은 벅찬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2005년 4월 5일 순식간에 가람을 덮친 불길이 가람을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스님이기에 2차 복원불사 회향의 기쁨은 클 수 밖에 없었다.

"가람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복원불사를 이뤄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화마 속에서 모셔낸 관세음보살님(건칠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362호)께 수행과 기도의 힘, 정진의 원력으로 낙산사를 복원하겠다고 발원한 4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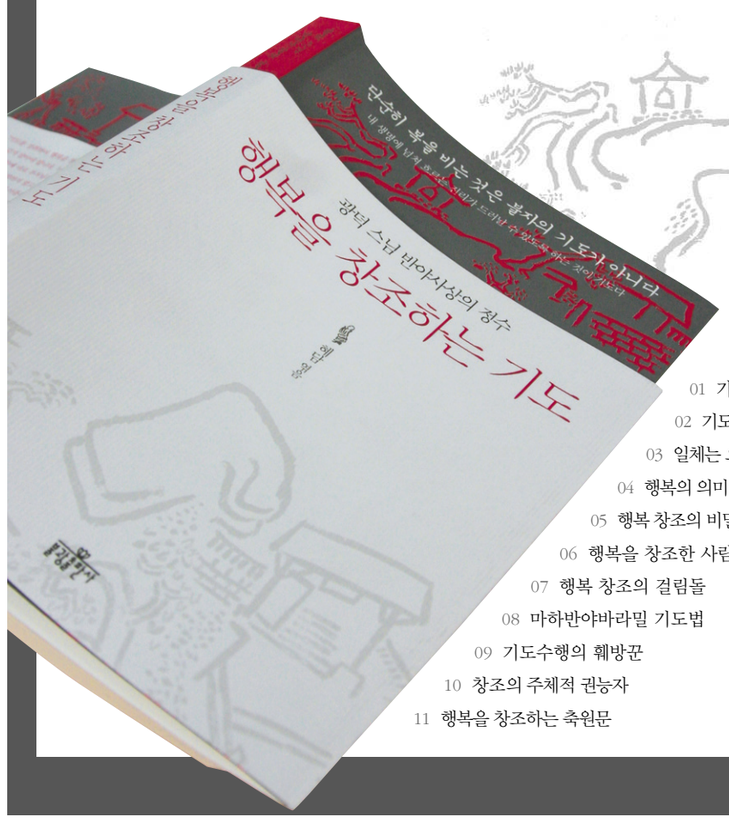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도 화마에 가람을 잃은 날의 아픔은 사라지지도 줄지도 않았다. 스님은 '가람을지켜내지 못한 주지'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복원불사를 향한 정진 뿐이라 생각했다.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 했지만, 삼재(三災, 화재 수재 풍재)마저도 비켜간 홍련암과 건칠관음보살좌상을 보며 모두들 가피를 경험했다.

정념 스님은 "홍련암과 관세음보살님이 무사한 것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낙산사 복원의 원동력 또한 기도와 정진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각오로 홍련암 1000일기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대중이 뜻과 힘을 보탰다. 매월 관음재일이면 전국에서 불자들이 몰려와 철야정진을 했다. 쉼 없이 이어진 기도로 모아진 신심은 원력을 굳세게 다져갔다. 결국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원력은 다스러진 잿더미에서 천년고찰 낙산사를 꿈같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은사이신 광덕 스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이라는 진리에 눈뜨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 생활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불자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일깨워주신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기도했을 때 온갖 장애가 없어져 소망을 성취하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복을 비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한국불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책을 통해 기도 수행의 새로운 물줄기를 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 엮은이 말 중에서



01 기도의 근본 원리
02 기도 성취의 힘
03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은 것
04 행복의 의미
05 행복 창조의 비밀
06 행복을 창조한 사람들
07 행복 창조의 걸림돌
08 마하반야바라밀 기도법
09 기도수행의 훼방꾼
10 창조의 주체적 권능자
11 행복을 창조하는 축원문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기도!
삶의 벼랑 끝에서 잡은 기도!

누구는 기도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데…
나는 왜 더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은 불자의 기도가 아니다.
무작정 빈다고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내 생명에 넘쳐 흐르는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광덕 스님 반야사상의 정수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혜담 스님 엮음 / 256면 / 값 11,000원



광덕 스님 ◉ 한국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현대화를 정착시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광덕 스님은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로 존경받았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이라는 긍정의 세계를 열어 보인 스님은 1999년 열반하였으나 그 말씀은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혜담 스님 ◉ 작년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이 있었던 혜담 스님, 출가하고 나서 40여 년을 한결같이 공(空)을 깨닫기 위해 화두에 매달렸고, 기도는 도외시하였던 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기도수행'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행방법이라고 일러준 광덕 스님의 말씀을 큰 병을 앓고 나서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마하반야바라밀' 기도를 통해 병고에서 벗어난 스님은 퇴원 후 1년여 동안 은사인 광덕 스님 반야사상의 정수를 가려 뽑아 이 책을 엮었다.

불광출판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3층 T.(02)420-3200 F.(02)420-3400 http//www.bulkwang.or.kr